

세 상 의 변 화 를 만 들 다

열어놓 어른, 공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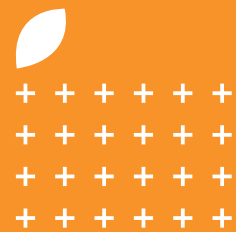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보통의 자립을 꿈꾸다

자립은 온전히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손을 맞잡고,
때로는 서로의 등을 기대고 서는 것,
그것이 보통의 자립입니다.
하지만 열여덟 어른은 자립이라는 이유로
‘만 18세’에 홀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공명하다

세상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욱 열심히
열여덟 어른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이를 계기로 열여덟 어른의 온전한 자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점점 크게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마중물이 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열여덟 어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향한 공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목차

인사글	발간사 _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한찬희	8
	축사 _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10
아름다운재단 소개	‘아름다운재단다움’이란 무엇일까요?	12
자립준비청년 현재 이슈	자립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6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3년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1
	자립준비청년 사업 히스토리	22
	결국 남는 것은 사람 : 지원사업	26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말하다, 나의 권리를 :	38
	‘열여덟 어른’ 캠페인사업	
	자립준비청년사업 시기별 주요 특성	46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임팩트	지원사업 임팩트	63
	1. 연구 배경과 목적	63
	2. 연구 방법과 절차	64
	3.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특성	69
	4.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70
	5.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	81
	6. 자립준비청년사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86
	7.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방향 제안	104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5
	2. 분석 방법 및 절차	116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117
	4. 임팩트 하이라이트	151
	5. 연구 한계 및 제언사항	155
	6. Appendix	157

온전한
자립을 위한
모두의
발자취를 담다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임팩트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모두의
발자취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길

#아름다운재단 설립
#아름다운재단의 1호 기금
#故 김군자 할머니
#자립준비청년
#열여덟 어른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된 2000년은 故 김군자 할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읜 후 야학에서 여덟 달 동안 공부한 것이 배움의 전부였던 할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해 삶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며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머니의 전 재산을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1호 기금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을 통해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퇴소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 경제교육,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보다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열여덟 어른>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아진 이웃들의 관심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수많은 정책 도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난 20여 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음 20년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열여덟 어른, 증명하다》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걸어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년들이 사회의 행복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기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한 찬 희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열여덟 어른
#위로와 격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여 년간 헌신해 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발자취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귀한 보고서에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서,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과 성장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이번 아름다운재단의 임팩트 보고서 발간의 의미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연구자로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외롭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재단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을 권리 주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과정이며,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며 서투르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미친 변화는 그 지원을 받은 청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웃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고민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림으로써 또 다른 변화의 새로운 불씨가 당겨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세상은 절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힘든 사람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이는 힘든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 줄 때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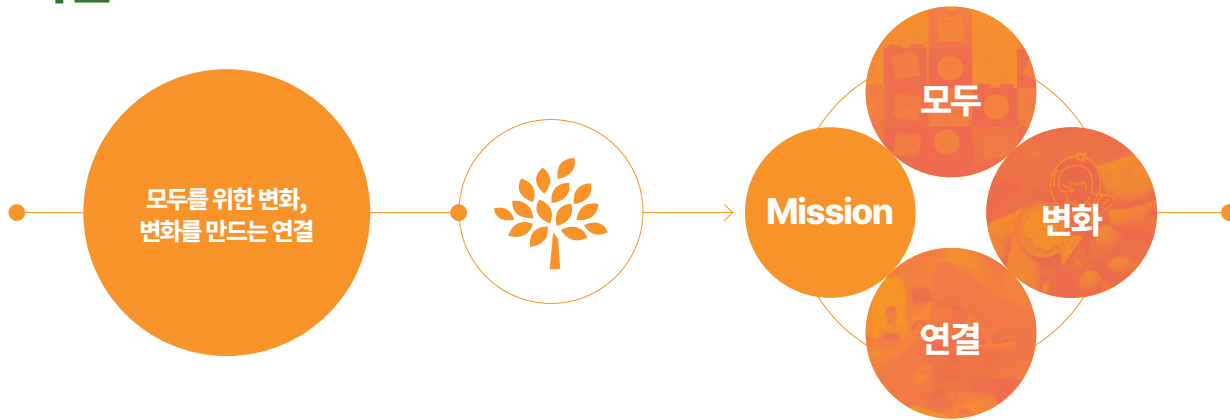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적은 관심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다시 한 번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임팩트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아름다운재단다움’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8월 창립한 아름다운재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찾은 ‘아름다운재단다움’을 소개합니다.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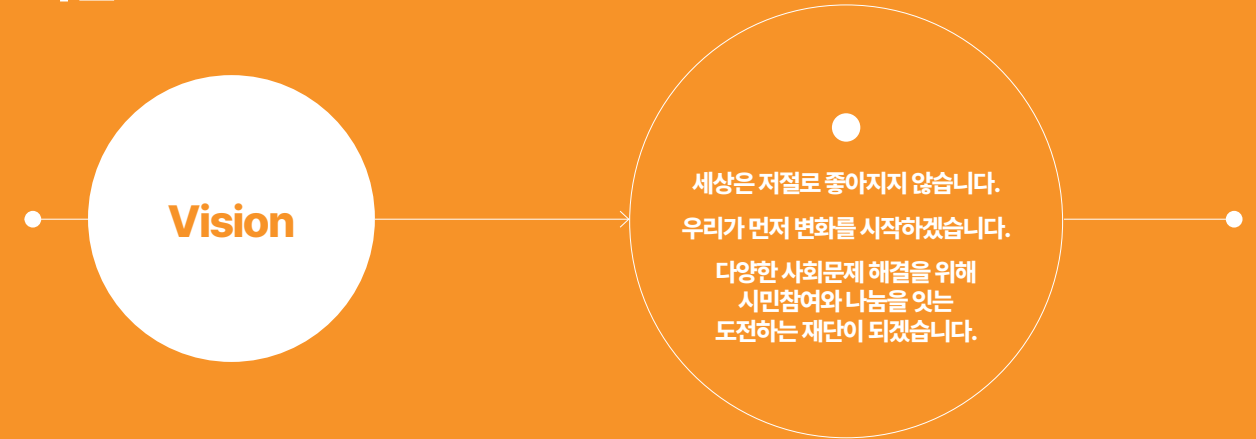


모두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점입니다. 우리 특정한 누군가
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만드는 세상엔 소
외와 차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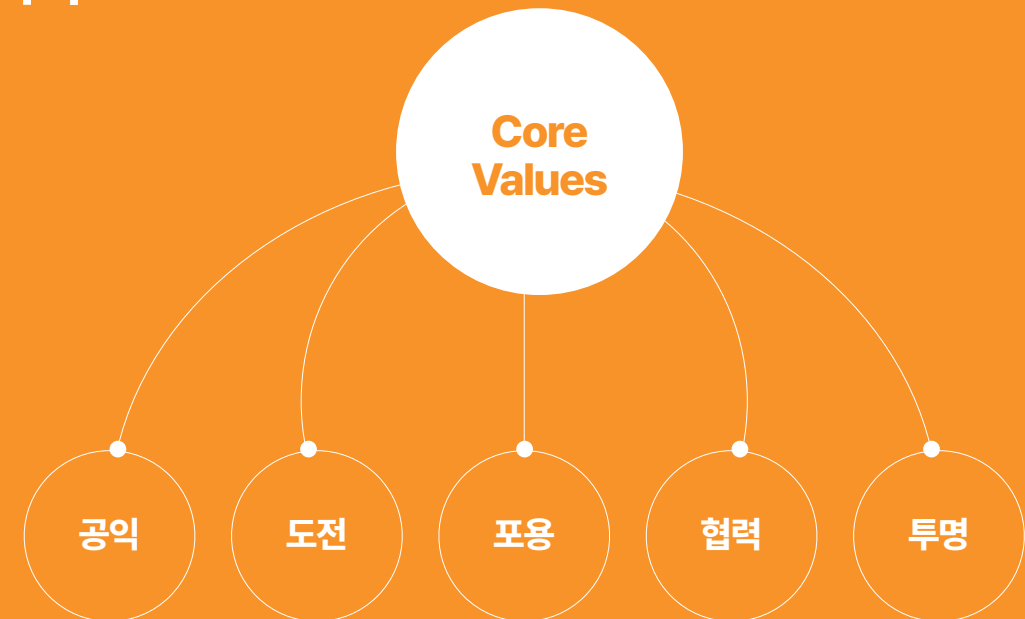
변화란,
우리는 허황된 변화를 꿈꾸지 않습
니다. 당장의 변화보다 본질적인 변
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
터 시작해 정책과 제도까지 차근차
근, 끈기 있게 나아가는 방법을 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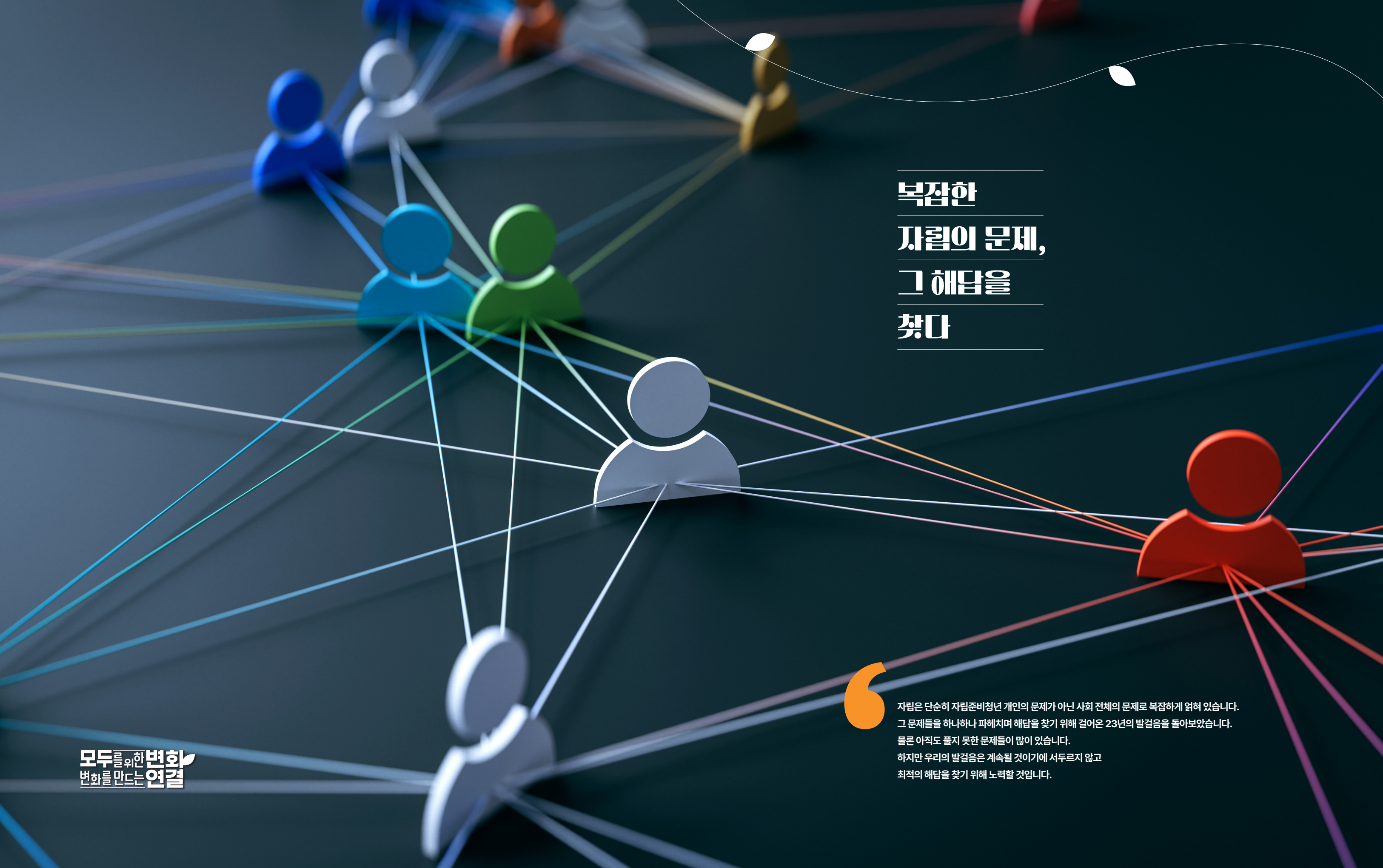
연결이란,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연결자’입니다. 개인
과 단체, 사회가 지닌 선의를 연결해
협력할 아젠다를 만들어냅니다.

비전



핵심가치





복잡한 자립의 문제, 그 해답을 찾다

“

자립은 단순히 자립준비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해답을 찾기 위해 걸어온 23년의 발걸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6

지리정보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사업 23년

(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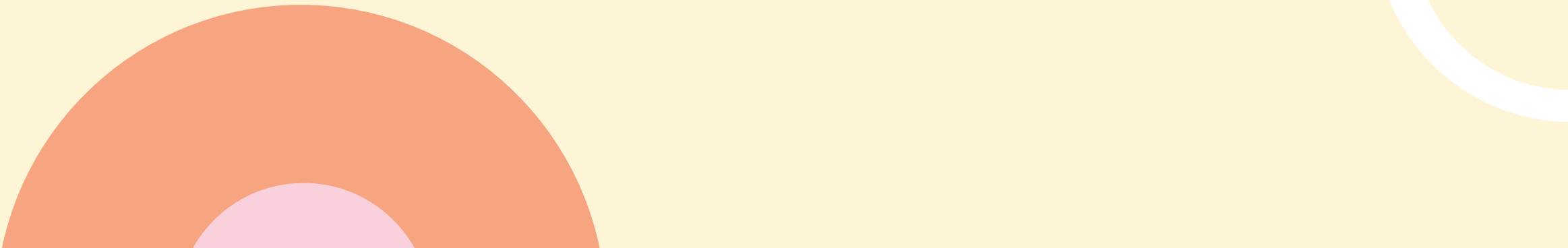
이영주,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청년파트 지원사업)

조운아, 전서영, 임주현, 서지희

(아름다운재단 청년파트 캠페인사업)

김성식, 서지원, 유화영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1	
자립준비청년사업 히스토리	22	
결국 남는 것은 사람 : 지원사업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30
	2. 주거안정지원사업	32
	3.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32
	4. 청년배움사업	33
	5.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34
	6.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35
	7. 통신비지원사업	36
	8.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36
	9.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36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말하다, 나의 권리를 : ‘열여덟 어른’ 캠페인사업	1.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39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39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41
	4.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42
자립준비청년사업 시기별 주요 특성	1. 정책변화	46
	1) 히스토리	
	2) 연도별 지원내용	
	2. 민간지원	49
	1) 히스토리	
	2) 연도별 지원내용	
	3.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경향	52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년간 자립준비청년¹⁾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지원사업을 견인해 왔다. 2000년 8월 재단 설립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1호기금 故 김군자 기부자의 뜻에 따라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해왔고 현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간 비영리 섹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의한 주요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보호종료 후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 이내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는데 2019년 최소 500만 원, 2022년 8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권고되었다. 2019년에 처음 신설된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3년에는 월 40만 원이고 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립준비를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등 시설마다 배치되어 분절적으로 보호아동 자립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에는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만을 전담하여 사례관리하는 자립전담인력이 120명 배치되었다. 이렇듯 발 빠른 정책 변화는 바로 민간 섹터에서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인데,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행되어왔다.

재단의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재단 1호 기금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가난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배울 기회만이라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故김군자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계되었다. 2001년 ‘보육시설퇴소및소년소녀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거쳐 2014년 이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정비되었다. 이후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욕구를 발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진학 관련 교육지원 외에도 시설 밖에서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인 생활비, 주거비 등 기본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지원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왔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의 지원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자립에 대한 의미와 접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 영역의 노력과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공공 영역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1) 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자 명칭은 ‘보육시설퇴소아동’, ‘아동양육시설퇴소대학생’, ‘보호종료청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사업 수행의 방향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용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다만, 사업명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 명칭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3년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인상, 지원정책이 없던 지역의 지원 개시(2015)
- 이후 2019년 자립정착금 최소 500만 원 권고 등으로 확대됨

- 연극 <열여덟 어른> 클라우드펀딩 및 초연
- 유튜브 <열여덟 어른TV> 개설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개설
- ‘어쩌다 사막’ 일러스트 굿즈 출시 및 판매
- 런웨이백 출시 및 펀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출간
- 연극 <열여덟 어른> 6개 도시 전국투어
- 이진명 디지털싱글 ‘토이스토리’ 발매
- 책 《안녕, 열여덟 어른》출간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이진명, 힙합 음원 발매
 - 신선, 1:1 방문교육
 - 허진이, 고민 팟캐스트
 - 손자영,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 조규환, 땡큐 버스킹
 - 박강빈, 자립100days
 - 강영아, 일촌 파도타기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전개 및 당사자 캠페이너 활동 시작
 - 신선, 당사자인터뷰
 - 전안수, 굿즈제작
 - 박도령, 연극 <열여덟 어른>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신선, 당사자 미디어 채널 운영
 - 허진이, 보육원 방문 강연
 - 손자영, 미디어패러디
 - 주경민, 캐릭터 디자인 및 웹툰 연재
 - 박한수, 패션제품 디자인
 - 안연주, 동화책 제작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개최
- 국무총리 제38차 목요대화, 한찬희 이사장과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 참여
- 열여덟 어른 신선, 박강빈 캠페이너 청와대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여
- ‘열여덟 어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행사 개최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행사 개최
- 《안녕, 열여덟 어른》북콘서트 10회 개최
- ‘열여덟 어른’ 캠페인 브랜딩 영상, 에피어워드 광고제 최고상 수상
- 열여덟 어른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특위 정책지원단 참여

2019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시작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복지시설퇴소경계선지능 청소년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개최

2020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심리/정서지원
-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통신비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2021

- 청년배움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교육지원
-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2022

-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 심리/정서지원

2023

- 청소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노숙위기청년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및 캠페인 임팩트 연구 실행

23년

정부 정책의 변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2019.04)
- 정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작(2019.07)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021.07)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차 발표(2022.11)
- 정부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함께서기 위원회’ 출범(2023.04)

결국 남는 것은 사람 :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은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보호종료 이후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재단의 사업 분류인 8대 영역²⁾ 중 교육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영역의 목표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통합 교육 환경이 보장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학습을 위한 기초 자원을 보장하여 사회로부터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물적, 사회적 자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움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도 설계하였다. 또한 주거지원사업도 시작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정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23년 기준으로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자립준비청년은 아니지만 이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 중 가장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왔다. 시설퇴소 이후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과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업 지원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자립에 주거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6년 사업기획 당시 실질적 주거비 지원 및 안정적인 주거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첫째, 주거비 지원과 재무상담 등을 통해 자립능력 강화 및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현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며 셋째, 주거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대학 진학 청년뿐 아니라 비진학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부분 취업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더불어 시설 보호 유형과 경험에 따라 주무 부처 및 지원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쉼터 퇴소 청년의 경우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 등 최소한의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개발되었다.

청년배움지원사업은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진로 선택권이 확장되고 참여자 간의 관계망이 지지체계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직업적 진로는 물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인 '자기 주도'의 활동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을 정의하여 사업을 개발하였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중도 퇴소자뿐 아니라 생

2) 아름다운재단은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안전, 주거, 환경, 사회참여 총 8개 영역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계를 위해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진학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재단의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이들의 경험 격차를 줄이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까지 배움의 개념을 확장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1년 시작되었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시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활해야하는 청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주거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자립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경험, 그리고 관계망 형성에 이르는 전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과 달리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사업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종자돈을 지원하여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 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생성하고 건강한 재무 습관과 주도적 생애 설계를 정리하여 스스로 성취감과 완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통신비지원사업은 기부처인 기업의 역량에 근거하여 개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된다. 즉 통신회사와 연계하여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2년간 휴대폰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개발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현실뿐 아니라 시설퇴소 예정 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휴대폰 개통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요금체납에 대한 부모 혹은 후견인 동의서 요구)을 확인하게 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은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재단에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 수준에서 확장하여 좀더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려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물품으로 구성하여 물품지원의 내용을 확대하였다. 사업은 총 1년간 진행되었다.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기본 지원 수준을 넓혀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권리로 확장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관계망 확장과 지지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 지원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망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망 확장 및 지지망 형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은 이러한 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재단 사업 안에서 녹여내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명	목적	지원인원(명) 2023 기준	사업 수행 기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자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모	991	2001년 ~ 현재
주거안정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	236	2016년 ~ 2018년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쉼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비진학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활동 및 신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정착 기반 지원	100	2020년 ~ 현재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경험 격차 축소 및 선택권 보장,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45	2021년 ~ 현재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146	2021년 ~ 현재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대상 종잣돈과 경제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운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150	2021년 ~ 현재
통신비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39	2021년 ~ 2023년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 지원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의 경험 제공	385	2022년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100	2022년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비, 주거비, 문화활동비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명	구분	내용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교육비 : 대학 등록금 및 자기계발비 •학업생활 보조비 : 생활비 등 학업 생활 중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해외 어학연수(별도 선발)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홈커밍데이, 모니터링 •작은변화 프로젝트 : 주제별 팀 활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주거관리 교육, 재무 교육 및 주거 전문 사례 관리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쉼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진로 활동비 지원	•진로 활동비 : 희망 진로 관련 직접적인 활동 지원 •활동 보조비 : 공과금, 교통비, 식대 등 진로 활동을 위한 기본 생계비 및 간접비 •리더십 지원비 : 그룹 리더 활동 보조비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희망별프로젝트 : 문화 체험 •취업 교육 및 특강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배움 활동비 지원	•재정 컨설팅을 통한 개별 맞춤형 배움 활동비 지원 •배움 활동비 :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한 교육비 및 배움 활동 보조비 지원 •기초 자립비 :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기초 자립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또래 활동,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1:1상담 :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활 안정금 지원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종잣돈 지원	•상장지수펀드(ETF) 지원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 역량 강화	•경제 교육, 1:1 재무 컨설팅 지원 •OT, 결과 공유회
통신비지원사업	통신비 지원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통신비 1년, 휴대폰 수리비 지원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자립 키트 지원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선택형 키트 지원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커뮤니티 활동 지원	•팀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OT, MT, 네트워킹 파티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김군자할머니기금’에서 출발하여 2000년 당시 만 18세가 되면 정부 정착금 2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이후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고액 개인 기부자의 기부가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지원사업은 확대되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특정 지역 및 전공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기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전무하였던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는 그간 진행해 온 장학사업의 진단과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 목적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되어 오는 수많은 장학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교육 기회의 지원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단의 배분 철학을 반영한 사업과 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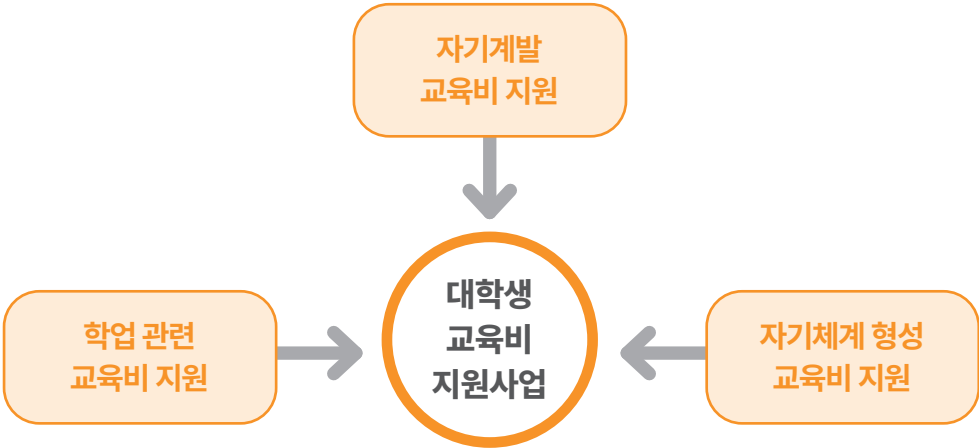
<표 2> 2012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개편 내용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대상	• 아동 양육 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기존 지역 및 계열 관련 대상 통합) • 기존 신입생 및 재학생	•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대학생 (기존 지역 및 전공학과 관련 대상 통합) • 기존 신입생 및 재학생에서 재학생만 지원 (첫 학기 등록금·지자체 지원)
지원기간	• 1년 지원	• 최대 2년 지원(기간 연장하여 지원대상자의 학업 안정성 도모)
지원내용	• 대학교 등록금	• 대학교 등록금,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 - 등록금 지원 이외 학원비, 독서실비 등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개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 기회 제공 • 해외어학연수 지원(2013) - 재단이 별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 작은변화프로젝트(2019) - 선/후배 장학생간 프로젝트 팀 활동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재단 직접 사업에서 2013년부터는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직접 사업에서 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은 지원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함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협력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의 확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력 사업을 통해 ① 신규 지원자를 발굴하고 ② 전국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③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④ 교육비 지원 이외 생계비 지원, 해외어학연수, 온라인 모임,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자립준비청년 역량 강화 및 졸업 이후 자립 준비까지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형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 내용에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사업 대상과 운영에 변화를 거듭하였다. 2023년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구조



교육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 내용의 확대를 이끌어 온 부분은 큰 임팩트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협력 사업의 수행에 있어 재단의 사업방향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한 아름다운재단만의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서 자기 계발과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까지 확대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20년 또한 현 사업 내용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표 3>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자 또는 연장 보호 대학생	교육비 지원	• 교육비: 대학 등록금 및 자기계발비 • 학업생활보조비: 생활비 등 학업 생활 중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 해외 어학연수(별도 선발)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 OT, MT, 홈커밍데이, 체계적 모니터링 • 작은변화 프로젝트: 주제별 팀 활동

2. 주거안정지원사업

본 사업은 재단의 기획의제 사업으로 2016년 당시 자립준비청년이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이후 주거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현장을 통해 확인한 후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아동자립지원단과 협력하여 총 3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도별 지원 대상자 수는 변동이 있거나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주거비(보증금, 월세) 지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1인당 5회), 주거환경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선진국의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사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현실을 알리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기준 23.2%로 전체 대학 진학률 73.7%에 비해 크게 낮다. 즉, 보호종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졸자에 비해 불안정한 직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온전히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연평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438만 원, 월평균 123만 원임에 비해 월평균 지출액은 138만 원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약 15만 원 부족하여 자산 형성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³⁾ 결국 생계를 위해 부채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적 지원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지망 형성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비진학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활동 및 신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 정착 기반 지원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이라는 키워드 하에 교육비와 생활안정 지원 이라는 실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 당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설계하였다.⁴⁾ 대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기회 제공에서 벗어나 대학 비진학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적 방향성에 있어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의미가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 체험 및 여가 활동을 도구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2016 자립 지원 포럼 보호 종결 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4) Ibid.

<표 4>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쉼터 포함 보호종료 청년 (만18세~만25세)	진로 활동비 지원	• 진로 활동비 : 희망 진로 관련 직접적인 활동 지원 • 활동 보조비 : 공과금, 교통비, 식대 등 진로 활동을 위한 기본 생계비 및 간접비 • 리더십 지원비 : 그룹 리더 활동 보조비
	자립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 OT, MT, 결과공유회, 모니터링 • 희망별프로젝트 : 문화체험 • 취업교육 및 특강

본 사업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에서 출발하여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었으나 대학 진학이 아니라도 삶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개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면에서 쉽지는 않은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향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 역시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경제적 지원 위주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시작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따라⁵⁾ 사회적 관계망 확립과 내면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다. 사업의 대상은 보호종료 청년뿐 아니라 종로 연령 이전에 퇴소한 조기 퇴소자를 포함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청년”을 넘어 “보호경험청년”을 지원한다는 설명에서 그 차별성이 보인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배움과 선택권을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및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3년 청년배움지원사업의 특징, 지원 내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5> 청년배움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보호경험 청년 (만18세~만29세) 중 비진학 또는 취업 준비중인 청년	배움활동비 지원	• 재정 컨설팅을 통한 개별맞춤형 배움 활동비 지원 • 배움 활동비 :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한 교육비 및 배움 활동 보조비 지원 • 기초 자립비 :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기초 자립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 OT, 또래활동, 결과공유회, 모니터링 • 1:1상담 :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5) 이혜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청년배움지원사업의 사업적 의미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기 계발을 위한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이다.

5.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1년 ‘보호종료아동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위기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요구조사’⁶⁾에 따르면 자립 후 겪는 문제점 중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 문제(24.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0년 조사⁷⁾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월평균 소득이 2019년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 179만 원 보다 52만 원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있었고 빚을 낸 이유는 생활비 총당이 6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현황 조사 결과 보호종료 이후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지원하여 적어도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21년 사업 시작 당시 지원 대상은 전국 시설(아동 복지 시설 및 쉼터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 결식 노출, 실업(3개월 이상)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
- 월세, 관리비 등 2회 이상 체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청년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체납이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청년
- 화재, 가옥 붕괴 등으로 긴급 주거 이전이 필요한 청년 등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에 있어 앞서 살펴본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과 달리 ‘만 18세 ~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으로 두고 아무런 지지망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한 생계유지에 관한 것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임차 보증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사채 상환 등이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본 사업의 방향이 ‘긴급한 생계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사업 운영에 있어 함께하는 기관은 크게 협력기관과 수행기관으로 나누어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6)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7)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 &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요구조사.

<표 6>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청년(만18세~만28세) • 소득기준: 수급 및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생활안정금 지원	•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변화로 보호 연장 연령이 만 24세까지 확대되었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자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초기 논의 배경을 볼 때 생활비 및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4명 중 1명이며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6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 ‘자립’이라는 키워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펴 공공 및 민간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6.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야기한 주거난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 준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14,830명 중 ‘돈 기술 관리’에 참여한 대상자는 1,753명으로 11.8%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에 제대로 된 재정 관리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한 경제생활을 도와 재무적으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과 욕구에 따라 재무 설계를 하여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에 사업적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만 18세~29세로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의 특징은 종잣돈 지원에서 출발하여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교육만으로 경제적 환경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은 종잣돈을 지원하고 이를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7>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만18세~만29세)	종잣돈 지원	• 상장지수펀드(ETF)지원
	자립역량 강화	• 경제교육, 1:1 재무 컨설팅 지원 • OT, 결과 공유회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특화된 사업이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수행되었다면 본 사업은 종잣돈을 통한 씨앗에서 출발하여 교육으로 하나의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 통신비지원사업

통신비지원사업은 전국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통신비 지원을 통해 생활편의를 돕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원내용은 필요시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지원, 통신비 1년 지원, 그리고 휴대폰 수리비 지원이다. 휴대폰은 기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높고, 통신비의 경우 고정비용으로 전체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보호종료 이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지원함으로써 심리 정서적인 지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총 3개 종류의 선택형 스타트 키트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컨셉으로 한다. 청년의 취향을 반영해 구성된 선택형 키트 외에 모두에게 제공한 공통기본형 키트는 무드등, 상비약, 화분을 담은 상자에 새로운 시작과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넣어 자립을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 참여 청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89%, 그렇다 11%로 높은 지원 만족도를 나타냈다. 현물지원에 있어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따라 피드백과 만족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현물지원의 경우 세심한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9.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할 권리로서의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확장하고 지지망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3인 이상 10인 이하가 팀을 이루어 ‘커뮤니티활동’을 하였다. 본 사업은 ‘쉽’과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구체화 등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였다.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은 이후 2023년부터 보호대상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은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호종료청년 및 일반 만 19~28세 청년 대상 삶과 가치관 중심 연구’에 따르면, 자립이 우선인 20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여가의 중요도가 비슷한 일반 20대와 달리 일, 학업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으며 자기 스스로 미래를 설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여가 시간도 진로와 관련된 활동 위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자립준비청년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반 20대에 비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자아 만족도도 일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지원 대상은 전국 29세 이하 아동 복지 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 청년 100명이다. 활동 내용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공유하기, 플로깅, 여행, 영화나 경기 관람 등 다양하다.

<표 8>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만 18세~만29세)	커뮤니티활동 지원	• 팀별 커뮤니티활동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 OT, MT, 네트워킹파티

본 사업은 목표는 1) 행복할 권리로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을 통한 긍정적 효과 경험 2) 자립준비청년 간 관계 확장 및 지지망 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안전망 마련이다. 사업 결과 참여자들은 다양한 삶, 여가의 형태에 접하여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소원해진 기존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 설립과 함께 수행되어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및 방향성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 제공에서 출발하였으나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사회 안에서 관계망 확장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관한 역량을 키우는 네트워크 활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시설을 떠나기 전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이란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기 충족성,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독립성,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립 준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립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⁹⁾

이런 차원에서 재단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충족에서 관계망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에게 ‘사람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사회 자본에 대한 투여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8)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2020). 보호종료 20대의 삶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보고서.
9)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말하다, 나의 권리를 : ‘열여덟 어른’ 캠페인사업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시작은 보호종료 후 자립해야하는 청년의 현실을 다룬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이다. 재단은 2001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왔는데, 보호종료 이후 청년들이 자립의 현실을 마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적 지원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2013년 진행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이하 자립정착금)은 이후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의 모티브가 되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2019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22년 시즌 3까지 약 4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이슈를 알렸다.

‘자립정착금’과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캠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캠페인의 소통 방식이다. 두 캠페인의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방식에 있어 ‘자립정착금’은 재단의 캠페인 사업단위에서 직접 기획과 수행을 했다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사업단위와 이슈 당사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협업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캠페인을 수행해왔다. 이슈와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였는데,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룬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특별히 긴 호흡으로 캠페인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임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캠페인

시기	캠페인명	사업
2013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	• 연구조사 • 시범지원사업 • 다이어리 제작 판매 : 판매 – 이벤트 – 참여프로그램
2019-202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3	• 당사자의 개별 프로젝트 수행 • 시즌별 당사자 프로젝트의 목적 - 시즌 1: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삶을 알리다 - 시즌 2: 자립준비청년으로 겪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영향을 미디어에서 찾아 - 시즌 3: 자립준비청년 이슈 스테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와 방향을 보여주다

1.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이후의 현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린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열여덟 어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양육시설의 보호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퇴소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존을 위한 자립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기부와 참여로 자립계획에 시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본 캠페인의 배경이다.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은 첫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둘째,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변화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캠페인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 인식 개선 및 모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 세부 프로그램은 다이어리 제작 및 판매를 통한 모금캠페인, 자립정착금 기준 상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표 2>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 수행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다이어리 제작 및 판매	• 유명인사 100인의 메시지를 담은 다이어리 판매와 이벤트 수행 • 전시행사 이벤트로 시민 참여 독려 및 다이어리 배포
연구조사	• 연구명 : 자립정착금 기준 산출 및 지원방안 연구
시범사업	• 사업명 :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 • 목적 : 선행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범지원.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활용방안에 기반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사각지대 아동(약 30명)에게 정착금을 지원, 효과성 분석 • 대상 : ①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10명 ② 가정(일반)위탁 종결아동 15명 ③ 양육시설 퇴소자 중 정착금 활용실패경험자 5명(제2정착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캠페인은 10년 전 진행을 하며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자립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적, 정책적으로 요구한 캠페인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캠페인은 이후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구간이 되어 재단이 자립준비청년이슈를 다룬 캠페인을 선점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아름다운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19년은 총 5개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이 시작되었다.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

다. 본 캠페인의 핵심은 바로 ‘당사자 참여’이다. 물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당사자의 사례를 소개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끄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기존 캠페인의 당사자 사례 소개는 사례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반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좀 더 부각시켜 제도 및 인식 변화의 ‘주체자’로서 당사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컨셉을 통해 본 캠페인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의 컨셉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 아름다운재단의 입장에서 기관의 언어로 보호종료아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대중이 보호종료아동 이슈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다, 나의 권리를

- 보호종료아동을 도움을 받는 복지의 대상으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당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가는 주체자로 권리를 보장한다.

캠페인 시즌 1은 당사자 인터뷰, 캠페인 리워드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 연극 공연 등 캠페이너 각자가 기획한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표 4>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 당사자 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 한겨레21 연재
전안수 프로젝트	• 원배지 디자인 • 원배지, 에코백 해피빈 펀딩 진행 • 디자인 과정 웹툰 연재
박도령 프로젝트	• 연극 [열여덟 어른] 시나리오 집필 • 연극 텀블벅 펀딩 진행 • 연극 행사 기획, 진행

캠페이너 각자의 색깔이 담긴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사자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은 이후 아름다운재단 자체 마케팅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확산되었으며, 캠페이너가 직접 참여하는 언론과의 연계도 시작되었다.¹⁰⁾

10)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확산임팩트는 이후 캠페인 임팩트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다.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는 시즌 1의 ‘나’의 이야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으로 확대한 이야기이다. 시즌 1이 각 캠페이너의 스토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였다면, 시즌 2는 자립준비청년 이슈에 대해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기반으로 캠페이너들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시즌 1과 비교하였을 때 본 이슈에 대한 어드보커시 활동을 좀 더 부각시켰다. ‘고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등 자립준비청년 이 겪는 생활 속 차별과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대주제 아래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시즌 2 역시 캠페이너가 각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인식개선의 메시지 전달을 좀 더 강화하였다.

<표 5>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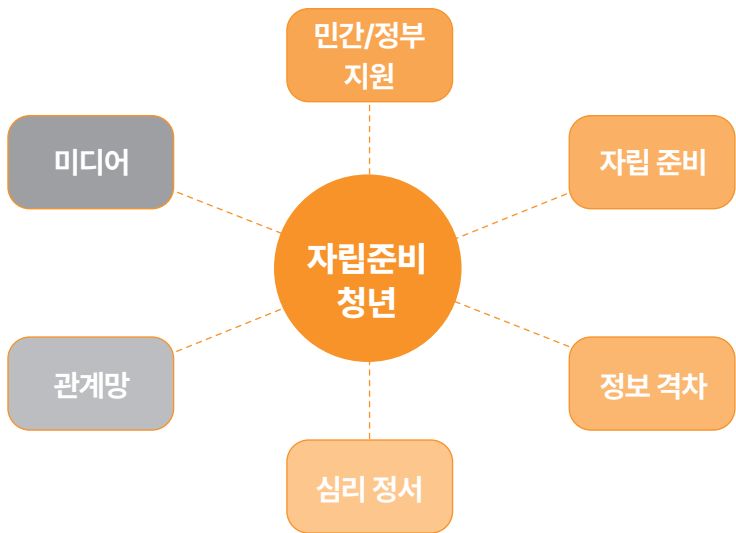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기획,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우리는 열여덟어른이다] 개설, 운영
손자영 프로젝트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애드보커시, 경향 인터랙티브 협업 진행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당사자 모집, 진행
허진이 프로젝트	• 보육원 강연 위한 당사자 모집, 교육 • 전국 보육원 강연 진행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진행
주경민 프로젝트	• 캐릭터 굿즈(머그컵, 폰케이스) 기획, 제작 • 카카오톡메이커스 협업 펀딩 • 웹툰 ‘어쩌다 사막’ 연재
안연주 프로젝트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판, 유통 • 동화책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써니 협업 진행 • 오디오북 출판
박한수 프로젝트	• 런제품 ‘런웨이백’ 기획, 제작 • SM엔터테인먼트, 모델 송해나 협업 진행 • ‘런웨이백’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시즌 2 캠페인은 6개의 당사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열여덟 어른 TV’ 채널을 개설하고, 미디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2개의 기획 영상과 당사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토리인 ‘열여덟, 내 인생’을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당사자 프로젝트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전방위적인 메시지 전달은 시즌 1보다 더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기업의 협업도 이끌어 냈다.

4.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알렸고 2020년 시즌 2 캠페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미디어의 편향적인 ‘고아 캐릭터’ 사용에 대해 알렸다. 특히 시즌 2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 당사자 프로젝트의 강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캠페이너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시즌 3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은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시금 우리 사회에 알려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시즌 1-2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례를 통해 대중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시즌 3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편견을 이야기 하는 것을 넘어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지 당사자의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나아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림 2] 프로젝트 주제



시즌 3의 총 7인의 캠페이너 프로젝트가 약 1년 반 동안 수행되었다. 시즌 3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캠페이너와 함께 신임 캠페이너의 합류도 동시에 이루어져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좀더 이끌어 냈다.

<표 6>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우리는 열여덟어른이다] 운영 • 그룹홈, 위탁가정 1:1 대면 교육 진행

하진이 프로젝트	• 고민 팟캐스트 기획, 제작 • [열여덟 어른]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 운영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진행
강영아 프로젝트	• 일촌 브이로그 영상 제작 • 당사자 관계망 설문조사 진행
조규환 프로젝트	• 옥상 버스킹 행사 진행 • 광주역 버스킹 행사 진행 • 땡큐 버스킹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박강빈 프로젝트	• 백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100일간의 자립 경험 공유) • 당사자 자립 경험 인터뷰 진행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손자영 프로젝트	•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패러디 일러스트 협업 • 온라인 전시회 영상 제작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진행 • ‘MZ세대, 열여덟 어른의 내일을 말하다’ 청년 토론회 진행
이진명 프로젝트	• 음원 기획, 제작 총괄 • 음원 ‘토이스토리’ 제작 •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유통(카카오 엔터테인먼트)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공연

시즌 1, 2에서 캠페이너의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이 구성되었다면 시즌 3에서는 특별히 그룹 프로젝트도 기획되었다. 캠페이너가 함께 모여 각 이슈별 당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하기 위해 ‘이슈 스터디’를 기획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캠페이너로서의 활동을 2~3차례 수행한 2인의 캠페이너가 2개의 팀을 이루어 ‘맞춤형 정보 프로그램’ 및 ‘자립 보드 게임’ 등 2개의 프로젝트도 기획하였다. 2개의 팀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과 시기적 한계로 진행까지 이루어 지지 못했다. 그러나 1) 캠페이너의 역량 확대 2) 캠페이너 간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시너지 강화 등 이후 캠페이너 활동에 있어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별 캠페이너의 단일 프로젝트 수행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캠페이너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이후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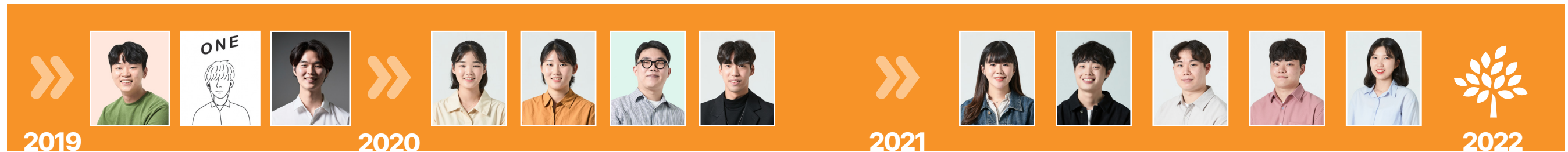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이슈를 다룬 2013년 ‘자립정착의꿈’ 캠페인에서 2019-2022년 진행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까지 살펴보았다. 캠페인은 사회 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¹¹⁾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룬 캠페인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자립준비청년을 ‘보통의 청춘’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 보통의 청춘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캠페인의 메시지는 첫해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열여덟에 어른이 될 수 밖에 없는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동정과 편견으로 보지 말고 ‘보통의 청춘’으로 봐달라는 메시지였다.¹²⁾

<안녕, 열여덟 어른, 김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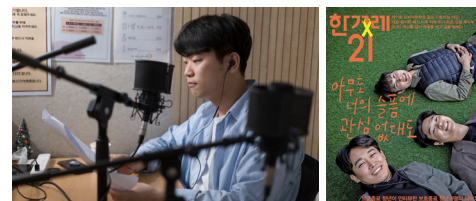
11)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2) 김성식.(2022). 안녕, 열여덟 어른. 파지트

아름다운재단은 201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체계화를 요구하는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2019년부터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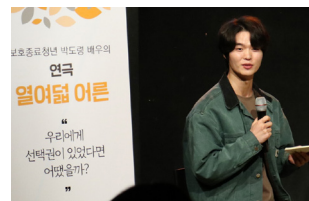
왼쪽부터 신선 전안수 박도령 허진이 손자영 주경민 박한수 안연주 이진명 조규환 박강빈 강영아

당사자 프로젝트



신선 캠페이너

- **기간: 2019~현재(시즌 1~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당사자 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한겨레21 연재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기획,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운영
 - 그룹홈, 위탁가정 1:1 대면 교육 진행



박도령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 1)
- 주요 활동 내용
 - 연극 [열여덟아름] 시나리오 집필
 - 연극 텀블벅 펀딩 진행
 - 연극 행사 기획, 진행



전안수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 1)
- 주요 활동 내용
 - 원배지 디자인
 - 원배지, 에코백 해피빈 펀딩 진행
 - 디자인 과정 웹툰 연재



박한수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런웨이 가장 기획, 제작
 - SM엔터테인먼트, 모델 송해나 협업
 - 런웨이백 네이비 해피빈 펀딩 진행



주경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캐릭터 굿즈(머그컵, 폰케이스) 기획, 제작
 - 카카오메이커스 협업 펀딩
 - 웹툰 ‘어쩌다 사막’ 연재



이진명 캠페이너

- **기간: 2021(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음원 기획, 제작 총괄
 - 음원, 토이스토리 제작
 -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유통(카카오 엔터테인먼트)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공연



허진이 캠페이너

- **기간 : 2020~현재(시즌 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보육원 강연 위한 당사자 모집, 교육
 - 전국 보육원 강연 진행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진행
 - 고민 팟캐스트 기획, 제작
 - 인스타 채널 운영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진행



손자영 캠페이너

- **기간 : 2020~현재(시즌 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애드보커시, 경향 인터랙티브 협업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패러디 일러스트 협업
 - 온라인 전시회 진행 및 영상 제작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진행
 - 청년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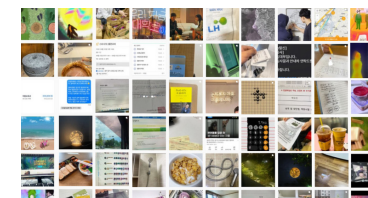
안연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판, 유통
 - 동화책 네이머 해피빈 펀딩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써니 협업 진행
 - 오디오북 출판



조규환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옥상 버스킹 행사 진행
 - 광주역 버스킹 행사 진행
 - 땡큐 버스킹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박강빈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백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100일간의 자립 경험 공유)
 - 당사자 자립 경험 인터뷰 진행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강영아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일촌 브이로그 영상 제작
 - 당사자 관계망 설문조사 진행

자립준비청년사업 시기별 주요 특성

1. 정책변화

1) 히스토리¹³⁾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의 근거는 2012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¹⁴⁾ 그 이전에는 1993년 자립지원센터 7개소 운영, 2006년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2007년 아동복지시설 자립전담요원 배치,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등 자립을 위한 정책이 일부 시행되어 왔다.

2012년의 법 개정으로 가정 외 보호 체계 내의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과 전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의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7개의 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자립준비의 시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보호 중에 있는 아동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과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함하고 있다.¹⁵⁾

2019년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강화되어 분야별 세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등의 실질적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도 자립정착금 지급되어왔지만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상이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퇴소시 최소 5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정하고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신설되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1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고 자립준비 수당 지급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생활과 주거지원을 확대하였다. 명칭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정부는 2022년 11월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내놓게 된다.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3)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14)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 달성 시 퇴소한다는 내용만 있음
15) 이상정, 유령화,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아동복지법 요약 표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립지원	제38조(자립 지원) • 시행 주체: 국가 및 지자체 • 지원 대상: 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18세 이전 퇴소자 중 자립지원 필요 인정된 자 • 지원내용: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38조(자립 지원) • 기타 지원 내용: 자립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 지원 대상: 대리 양육·가정위탁 보호·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자립지원 계획	제39조(자립 지원 계획의 수립 등) • 시행 주체: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 지원 대상: 15세 이상 아동 • 지원 내용: 개별 아동에 대해 매년 수립, 종사자 대상 교육		제18조(자립 지원 계획의 수립) • 자립 지원 계획 항목: 아동의 적성·육구, 사회성 발달 정도·자립능력·수준 등 아동 상태 평가, 정기 진로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 주거·취업·자산 형성·정서 지원 등 공적 서비스,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 비교: 아동의 의견 존중, 전문가 의견 청취
자립지원 전담기관	제40조(자립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시행 주체: 국가 및 지자체 • 주요 내용: 자립 지원 관련DB 구축·운영,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례 관리 등 업무 위탁 • 운영 방식: 법인 위탁		
협의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 협의회 구성 등) • 구성: 위원장 1명, 11명 이내 • 위원장: 복지부 고위 공무원 중 장관 지명 • 위원: 국무조정실 포함 11개 중앙행정기관 3,4급 공무원 • 협의·조정 사항: 주거·생활·교육 지원 사항 등 자립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자산형성 사업지원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시행주체: 국가 및 지자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 운영 방식: 법인 위탁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 운영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은행 통장 개설 후 아동에게 인계) •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대리 양육·전문 치료 기관, 요양소 입소 등 보호 조치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수급자 가정 아동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한 아동 • 운영 방식: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 금액 매월 지원 • 비교: 원가정 귀가 후 희망 시 계속 지원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운영 업무: 아동 관리, 후원자 발굴 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평가 등		제2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업무 범위: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 아동 사후 관리 포함

<출처: 이상정 외. (20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2021년 이후 개정사항 반영>

2) 연도별 지원내용¹⁶⁾

항목	2019 이전	2019	2021	2022	2023
명칭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연령		만 18세+α	만 24세+α		
보호 연장	사유 대학 이하 학교 재학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 중지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폐지,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 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전달 체계 사후 관리	기관	자립지원센터 위탁사 업 7개소 운영(1993)	자립지원전담기관 8개 시·도에 운영	자립지원전담 기관 17개 시·도에 운영	
	인력	아동복지시설 자립전담 요원 배치(200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전담요원 배치 (2012)	전담요원은 시설마다 배치되어 분절적으로 보호아동 자립을 지원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신규 자립지원전담 인력 120명*	자립지원전담 인력 180명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 개설
기본 생활	자립정착금	최대 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최소 500만 원	800만 원 권고	1,000만 원 권고 (분할 지급)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 (시범운영)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40만 원
	디딤씨앗 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2007)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4만 원)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5만 원) 보호종료 2년→ 3년 이내(2020)	정부매칭비율 1:2 (최대 10만 원)
주거	지원 대상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관리		7개 시도	17개 시도 1,000명	
	주택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원룸형 주택 무상임대기간 만 20세 이하까지	중형주택 추가 (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 확대(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2,000호 공급 무상임대기간 만 22세 이하까지
의료	의료급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혜택
전문 취업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간 : 1년 지원규모 : 최대 960만 원	지원기간 : 2년 지원규모 : 최대 1,200만 원

* 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됨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자립지원전담인력으로 명명함. 기존에 시설마다 배치된 자립
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로 업무를 분담함.

*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청년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희망하우징에 지원대상자로 포함.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관계부처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 2022.11.17.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2. 민간지원

1) 히스토리

본 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비영리 공익재단, 기업재단이나 기업사회공헌 등의 재원 또는 서비스 지원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원의 주체는 비영리 공익재단과 기업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본 사업과 이슈에 관심을 가
지고 기여하고 있는 자금제공자와 수행조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직접사업을 하지 않지만 모금과 배분을 통해 자금과 실행을 기획, 연결하는 ‘중간지원기관’, 그
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주체’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다만 사업의 비중이 큰 아동자립지원단이나 중앙아동 · 청
소년 자립통합사업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의 상시
지원과 연계된 사업은 제외하였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민간지원은 저소득, 요보호 아동을 지원사업 내 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행되다 201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사업’은 2004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학등록금 사
업을 해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그 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는데, 현재는 장학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첫 번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1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1박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 시기의 지원은 주로 장학금 지원
과 교육 및 기술 지원, 취업 알선 등 비현금성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지원은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으로, 삼성전자에서 임직원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
여 지자체 협력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 사업이다.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국가 보호체계
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며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5년에 개소
해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총 494억 원이 투입되었다.¹⁷⁾

기업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주로 아동자립지원단과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력을 맺어 수행했고, 2019년 아동
자립지원단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전한 후에 일부 사업은 종료되거나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속
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당사자 캠페이너를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알리는 ‘열여덟어른 캠페인’으로 이슈
가 본격화되었다. 당사자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 인터뷰와 언론기사는 이들의 힘겨운 자립 현실을 인식시키고 현 정책에 대한
문제의를식을 확산시키게 되었다.이 시기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지원사업 등도 주목을 받게 된다. 브
라더스키퍼의 창업자는 보육원 출신 당사자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17) 삼성전자 사회공헌 홈페이지.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sustainability/corporate-citizenship/community-engagement/
giving-hope-for-our-next-generation-to-stand-independent/](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sustainability/corporate-citizenship/community-engagement/giving-hope-for-our-next-generation-to-stand-independent/)

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조정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거지원, 일상생활 기술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소이프는 양말, 모자 등 디자인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인데, ‘보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디자인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창업자가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해오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 수익금은 보육시설 청소년 디자인 교육,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운영, 주거지원, 장학금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변화를 타고 2019년을 기점으로 관련 기금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조직 내 사업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가게 등은 서로 다른 출처의 기부금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부처가 다양해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영역도 세분화되면서 수행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동명인 사업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기도 한다. 2023년까지 가장 규모가 큰 기부처는 두나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잡’에 향후 5년간 510명을 3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머스는 2020년 10주년 기념으로 아름다운재단에 총 1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 장학금 외 생활비와 주거 지원, 특히 금융과 재무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자립준비청년 이슈레이징에 성공하면서 사업수행과 모금에 있어 동형화 현상을 보인다. 당사자 캠페인 또는 당사자를 모금요청 전면에 내세우는 곳은 기아대책, 아름다운가게, 월드비전 등이 있다. 관련 이슈가 이목을 끌고 공감을 얻게 되면서 ‘자립준비청년’ 키워드 광고 비용은 3년 전 몇원 단위에서 2022년에는 3만 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한편으로 기부처에서는 이들을 위해 기업 전략 또는 업과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나 적절한 수행기관을 찾기 어려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2) 연도별 지원내용

2019년 이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	삼성전자	생활관, 자립체험관	한국형 자립생활모델	2014~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숲속힐링교실 온드림 청사진	산림치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거, 자기개발, 어학연수, 서포터즈 역량	2014~ 2017~2019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장학사업	대학 등록금(저소득층 가정 포함)	2004~
아동자립지원단	YBM	어학교육프로그램	YBMNET 어학 수강권	2018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지원사업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채용	2016~2017
	신세계 면세점	정규직 지원사업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정규직 채용	2018
	서울경제직업전문학교	디지털디자인어 양성과정	UX 디자이너 교육	2018
	SKT	선한올타리 퇴소아동지원사업	정규직 취업 연계, 멘토 연결, 숙소 제공	2017
	에쓰오일	S-Oil Dream 장학금	장학금, 기술 자격 교육(연간 1~3억원)	2016~
한국아동복지협회	현대차증권	찾아가는 경제교육	찾아가는 금융 코칭	2018~
	포스코1%나눔재단	두드림(Do Dream) ACT	진로, 생활 지원금, 취업 성공 수당, 면접 교육	2019~
서울시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메트라이프재단	자립에 날개달기	자립준비 교육비, 금융 진로 교육	201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화생명	함께 멀리 기부특약	의료비보장 보험 지원	2017~
홀트아동복지회	현대백화점	파랑새, 꿈꾸는 날갯짓	진로 장학금, 교육비, 정서 지원	2018~
사회투자지원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터무니있는집	주거 지원, 금융 교육	2018~
사회연대은행	한화생명	맘스케어DREAM 비상금 사업	자금 지원, 교육 상담	2018~
	한화생명	청년꿈 지원사업 ‘청년 비상금’	꿈 지원금, 재무·진로 및 비전 교육	2018~

2019년 이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사회연대은행	HSBC코리아	청소년비전지원사업 ‘하이파이브’	자립 지원금, 재무 및 금융코칭	2019
	서민주택금융재단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주택 무이자 대출, 주택 지원	2020~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진로·생활·적금지원금, 멘토링, 취업 컨설팅	2021~
아름다운가게	두나무	두나무 NEXT JOB 자립준비청년 창업지원	창업지원,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 지원	2023~
	아름다운가게	보육원퇴소 자립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교육비 등	2010~
	아모레퍼시픽	아침의 릴레이	간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2019~
	아름다운가게	청년인턴십	인턴십	2020~2021
이랜드복지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장학지원	생활비, 맞춤형 교육비	2021~2022
	이랜드복지재단	국력굿잡 캠페인	면접복 키트 지원	2019
	이랜드복지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2020
한국아동복지협회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자립지원 및 취업연계사업	중공업 분야 기술 교육	2020~
	드림텍, 유니퀘스트	드림텍·유니퀘스트 이공계열 지원사업	이공계열 지원사업	2022~202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KB손해보험	희망의장검다리	세어하우스, 월세 및 자립정착금	2020~2021
	KRX국민행복재단	드림나래	교육비, 생활 안정 지원금	2022~
홀트아동복지회	KB손해보험	런런 챌린지	기술 교육, 컨설팅, 생계비	2021
	사회연대은행	네 꿈을 응원해	예체능 분야 멘토링 지원	2021
KSD나눔재단	한국예탁결제원	마음이음지원사업	복지지원	2022
기아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입주지원금	LH 입주자 생필품, 가재도구 지원	2023
아이들과미래	카카오뱅크	모두의자립	금융 교육	2023

* 아름다운재단. (2019).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 Ibid. 2023년 기사 검색 요약.

3.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경향

앞에서 2019년 전후의 민간지원사업 히스토리와 경향을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지원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3년 개설된 플랫폼인 자립정보ON 사이트에 게시된 지원사업 게시글을 분석해보았다. 자립준비ON이 개설된 지 채 1년이 안되었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주 구분이 모호하거나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회수는 게시글이 게재된 기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자립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사업은 거의 전수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원사업>은 소득, 주거, 금융, 진학, 취업, 건강, 법률, 기타 8개의 범주에 총 264개의 자립 준비를 위한 정보 게시글이 있다. 게시글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별 자립전담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영리재단, 기업 등의 민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볼 수 있다.

지원사업 게시글은 총 264개, 게시글 개당 평균 조회수는 150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비율은 공공이 57%, 민간이 43%로 공공 지원사업이 조금 더 많이 게시되어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73%로 많았다. 조회수는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118)보다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162)이, 공공기관(134)보다 민간기관(150)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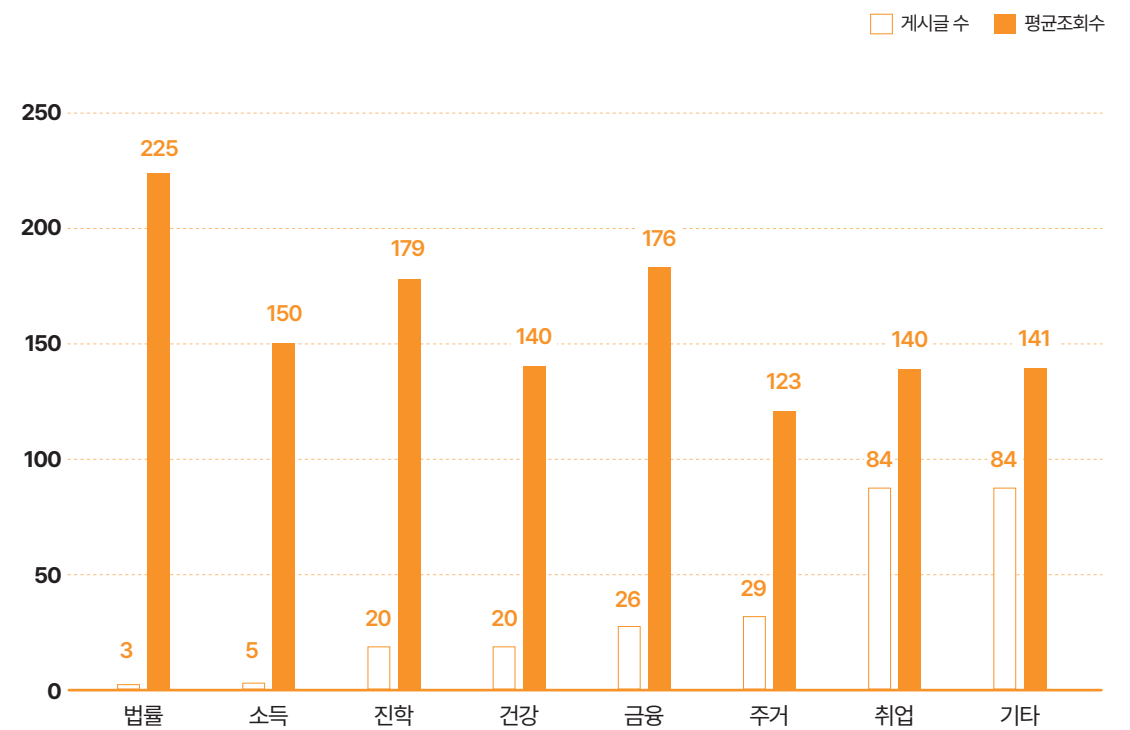
[그림 1] 지원사업 게시글 종류 및 주체



분야별 게시글 수는 취업 84, 주거 29, 금융 26, 건강과 진학 20, 소득 5, 법률 3개 순으로 취업 지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법률과 소득을 제외한 진학, 건강, 금융, 주거가 20여 개인 것에 비해 취업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취업지원의 내용을 보면 취업을 위한 교육, 인턴십이나 계약직 또는 정규직 등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또한 취업과 같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은 행사참여, 자립을 위한 생활 교육이나 체험,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는데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과 중복되는 지원사업도 있다.

지원사업 게시글이 공급 측면이라면 당사자 수요는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조회수를 살펴보았다. 분야별 평균 조회수는 법률 225, 진학 179, 금융 176, 소득 150, 취업과 건강이 각각 140, 기타 141, 주거 123 순이다. 게시글 총수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야별 조회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면 마감 기한이 끝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게시물을 클릭해 본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법률 지원은 게시글이 3건에 불과한데 이중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노동, 대학 경제 분야 각종 정부지원 복지 제도 및 신청방법 소개 및 생활법률 지식 법교육’ 1건이 조회수 439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부 지원 및 복지 제도와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그 수요는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8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조회수를 보인 것은 주거분야다. 사업 중 지원자 부족으로 모집 연장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3인이 함께 생활하는 세어하우스 지원의 경우 60만 원 상당의 월세와 만기시 임대주택 우선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추가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림 2] 지원사업 게시글 수 및 평균조회수



조회수가 높은 상위 40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비, 장학금, 저축 매칭 지원 등의 현금 직접 지원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는 취업연계로, 교육이나 인턴십 기간 중에 급여가 제공되고 이후 특정 기업이나 직종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사업에 관심이 높았다. 건강검진이나 생활꾸러미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도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낮은 사업은 단순 행사 참여, 문화나 취미 교육,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다. 현금지원의 경우 적금매칭은 2만~2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인턴십 급여지원은 50~70만 원 가량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단위의 일시지원은 장학금이었으며 긴급 생계나 위기지원을 위해 목돈을 지원하는 곳은 3개 사례 정도이다.

<표 4> 상위 40위 지원사업

분류	사업명	사업주체	최대금액	지원내용
진학	한국관광공사 호텔분야취업연계 추가모집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급여	현장실습
금융	금융지원프로그램 우리가 WON하는데로	청년의 뜰	2,000,000	저축시 매칭
취업	희망디딤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		직무교육, 취업
취업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CJ도너스캠프	2,000,000	교육,계열사 취업 연계
기타	2023 청년생활안전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관협회	3,000,000	긴급생활비
진학	IBK 희망나래	IBK행복나눔재단	5,000,000	장학금,경제교육,취업컨설팅
법률	세발자전거(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자립지원 교육
기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사업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주거	자립준비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480,000	청약저축통장 납입액 지원
진학	skylife 자격증 장학사업	kt그룹 희망나눔재단	2,500,000	자격증 지원
기타	[여행]하나로 하나 된 청춘 나래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5,000,000	여행 한팀당 500만 원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3,000,000	프로그램 참여/참여수당
기타	자립준비청년 “드림캐쳐”페스티벌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행사
취업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모집	(사)함께만드는세상	실습급여	소셜섹터 인턴십
취업	자립준비청년 취업연계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타이어,호텔 취업연계
취업	마커스 인공지능 아카데미 1기 수강생	Marcus AI Academy		
금융	신한 쏘(SOL) 금융자립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5,400,000	적금 매칭
기타	“같이가치”비전장학금 지원사업	지파운데이션	1,000,000	장학금
진학	IBK자립준비청년 장학금취업지원	IBK기업은행	5,000,000	장학금
주거	삼성희망디딤돌 센터 입주자 모집	삼성	현물	입주
금융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긴급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500,000	긴급생활비
건강	장바구니집사들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KBS강태원복지재단	현물	식재료
건강	현대차정몽구재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중앙사회서비스원	현물	건강검진
기타	나의 첫 살림 사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500,000	살림구매
기타	김장훈의 키다리아저씨 콘서트 초청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콘서트 참여
건강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한국아동복지협회	5,000,000	의료비
기타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톨칭파티 청년 검은	기아대책		행사 참여
주거	(충북)청년월세특별지원	청주시	2,400,000	임차료
취업	자립준비청년 취업연계교육	삼성전자	1,200,000	제빵,기능사.교육훈련비
건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건강검진)	중앙사회서비스원		건강검진
금융	두나무 넥스트 JOB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20,000,000	대출, 경영컨설팅
진학	미래내일경험사업	고용노동부	1,000,000	탐방, 인턴, 인턴급여
기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주)에스티아이		자격증취득
취업	드림아카데미 자격취득 교육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700,000	멘토활동비. 문화체험 자조모임
금융	카카오뱅크 모두의 자립	아이들과미래	700,000	진로설계, 멘토지원
진학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진로로드’	공무원연금공단&진로숲재단		진로설계, 멘토지원
취업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인턴십. 급여지원
기타	보호연장아동 프로그램 자립 오락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2,000,000	여행 1인 최대 200만

이상과 같이 자립정보ON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23년 지원사업의 내용, 유형, 대상 등을 개괄하였다. 이전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지원 정보를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정 정도 데이터의 한계에 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설계가 전체 지원사업의 그림 안에서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자립을 위해 실제 취업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보존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취업의 문턱을 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사업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지원의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다수인데, 큰 위기를 대응할 만한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드물다. 이런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대출 사업을 민간에서 시도해 볼만 한다. 현장이나 전문가들이 종합적 지원과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는 이런 종류의 사업에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사업이 작동하려면 어떤 조 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자립정보ON에 게시된 사업의 내용과 실제 모집 정도, 사업 성과 그리 고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중요도가 높은 지원 영역이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통과 지지 위에 나를 드려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주체가 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
이로 인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민간 지원까지 하나되어
함께해온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의 당사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우리의 목소리를 공명하게 하다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던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이제 보편적인 모두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지원사업과 캠페인사업의 결실을
들어다보았습니다.

* 캠페인 영상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 중. 캠페이너들의 용기가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임팩트

책임연구원

조소연(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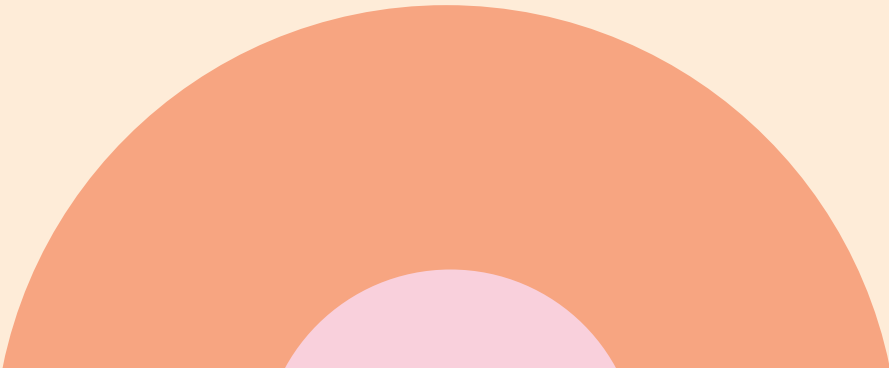
공동연구원

김수영(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손선옥(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 수행 기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은 '마음을 나누는 실천을 고민하고 나누는 실천가이자 연구자 모임'입니다.
마:실에서는 강점관점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현장 수퍼비전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http://blog.naver.com/2015masil>)



지원사업 임팩트	63
1. 연구 배경과 목적	63
2. 연구 방법과 절차	64
3.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특성	65
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65
2) 자립준비청년의 수	66
3)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67
4.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69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69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76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78
5.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	82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82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84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84
6.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86
1) 연구 개요	86
2) 연구 결과	86
7.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방향 제안	104
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104
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104
3) 경계를 넘나들기	106

지원사업 임팩트

1. 연구 배경과 목적

아동복지 영역에서 자립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은 주제다. ‘보호종료아동’, ‘시설보호퇴소아동’ 등으로 불리던 이들은 최근 자립의 주체성을 반영하고, 시설퇴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으로 재명명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면서 자립준비를 ‘혼자 버티는’ 시간에서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특히 과거에는 자립지원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공의 지원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근래 발생한 시설퇴소 청년의 자살 사건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의 증가, 정서적인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자립지원에 대한 합의가 모색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민간의 활동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즉,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민간의 꾸준한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은 민간에서조차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2000년부터 가정외보호아동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당시의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는 가정외보호아동 문제에 거의 초점을 두지 않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법 목표에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명시하였지만, 이 법의 개정 목적은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고, 법의 내용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규정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법에서 자립에 대한 언급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자립지원시설을 정의한 것 외에는 없었으며, 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서비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시작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사업은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한 사업이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임팩트를 살펴보는 것은 단지 재단 자체의 성과를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전반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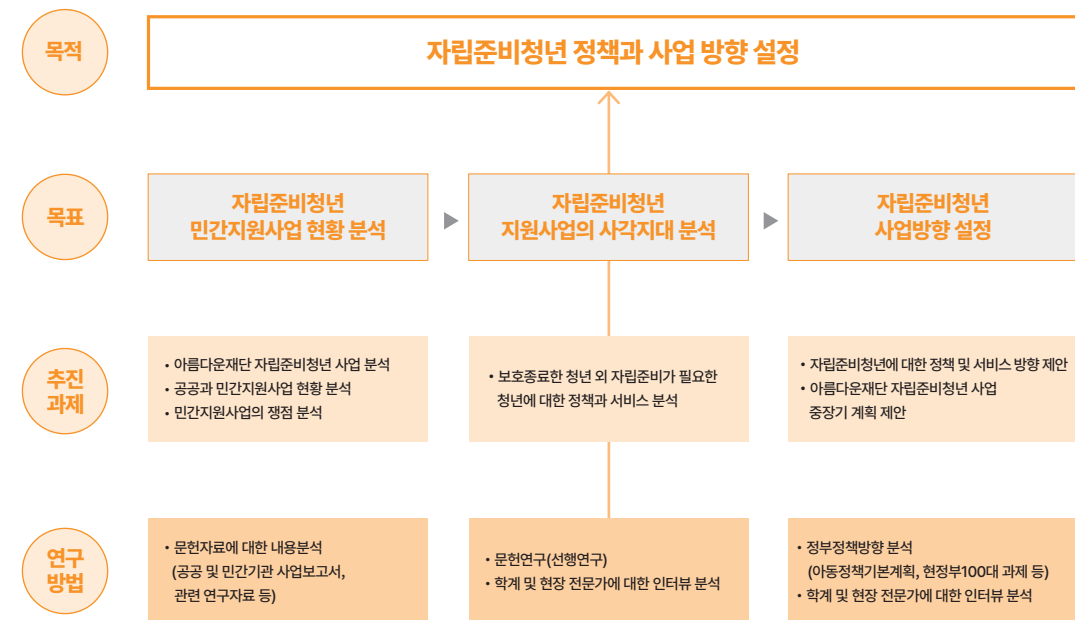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 변화와 민간 지원 변화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임팩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자립지원사업의 제도적, 실천적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의 위치와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PartI과 PartII가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었다면, 본 장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유형과 방법, 지원 대상, 지원주체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즉,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중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위치를 점검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자립준비청년 정책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 자립지원의 역동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탐색하여 양자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기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자립에 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자립지원의 유형과 방법, 지원 대상, 지원주체별 특성과 쟁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과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포함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사업 방향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와 자립지원사업을 실천해 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체계와 소년보호체계 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세 영역에서 자립연구와 실천을 해온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질적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서 기술하였다. 셋째, 문헌연구와 질적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와 방법



3.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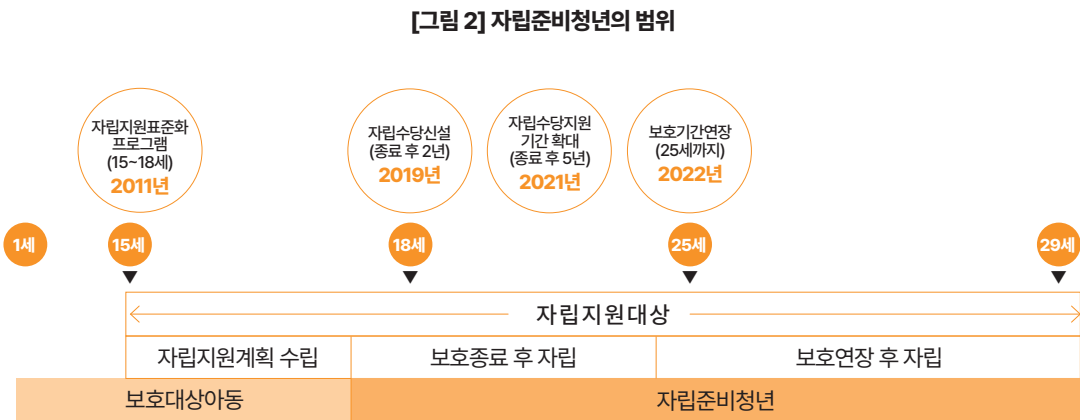
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3조).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의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에는 제38조 ‘자립지원’,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이 있으며, 보호가 종결된 자에 대한 지원은 이 규정을 따른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또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 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보호기간 연장은 장애, 질병, 지적 능력의 부족, 고등교육기관 재학, 취업준비 등 시행령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아동복지법시행령」제22조).

그리고 법률상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다(「아동복지법」제39조). 따라서 자립지원의 공식적 대상은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의 보호대상아동과 18세가 지나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보호연장된 사람의 자립지원은 보호연장이 종결된 시점에서 시작하므로, 24세까지 보호연장을 하고 25세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자립지원의 최대 기한은 15세부터 29세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를 ‘보호종료아동’, ‘자립아동’ 등으로 불렀으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아동’ 호칭이 부적절하므로 최근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칭하고 자립지원사업 안내나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자립준비청년은 18세부터 29세까지이며, 기간으로는 보호종결 후 5년간을 뜻한다.

시대별로 자립지원 대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에 국한하여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2019년 보호종료된 자에 대한 자립수당을 신설하면서 자립지원의 대상이 보호종결 후 2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립수당’의 지원 연한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의 연령 범위도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자립수당의 지급기간은 2020년 3년에서 2021년 5년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대상의 호칭을 변경하였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6조의3).



자립지원대상의 연령 범위 확대는 실질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2023년 9월 22일 공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지원’과 ‘청년정책’,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을 명시한 바, 이에 따른 개념과 지원책의 중복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자립준비청년의 수

연평균 약 2,000명의 청년이 보호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람은 11,403명이며, 보호유형별로는 가정위탁이 6,263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 4,327명, 공동생활가정 813명 순이다. 이 수치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단순 산출한 숫자이며, 실제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가정외보호아동의 퇴소 후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였고,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된 현 상황에서도 자립 이행을 확인할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보호종결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관여하고 있고¹⁾, 보호종결 후 자립은 시군구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보호종결 전 거주지와 종결 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자립수당 수급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가 종결된 청년들 중에는 자립수당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역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수(연령도래에 따른 보호종결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 수의 감소, 보호대상 아동의 감소와 연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생각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향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국회입법처, 2023), 원가정 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도 18세 연령 도래 전 중간 퇴소하는 아동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는 양적 확대보다 ‘질’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그룹홈의 경우에는 그룹홈 종사자가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표 1> 자립준비청년의 수 (2018~2022년)

연도	(단위: 명)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보호종료 5년 이내	11,403	4,327	813	6,263

출처: 국회입법처, 2023.

한편,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논의와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보호의 사례는 많지 않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연장보호율이 77.8%에 이르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된 경우 전체의 33.9%, 그룹홈의 경우 28.7%에 불과하다(사회보장정보원, 2022).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서라기보다, 성년이 되어 시설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 원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차원의 ‘청년 친화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2021년 자립준비청년 연장종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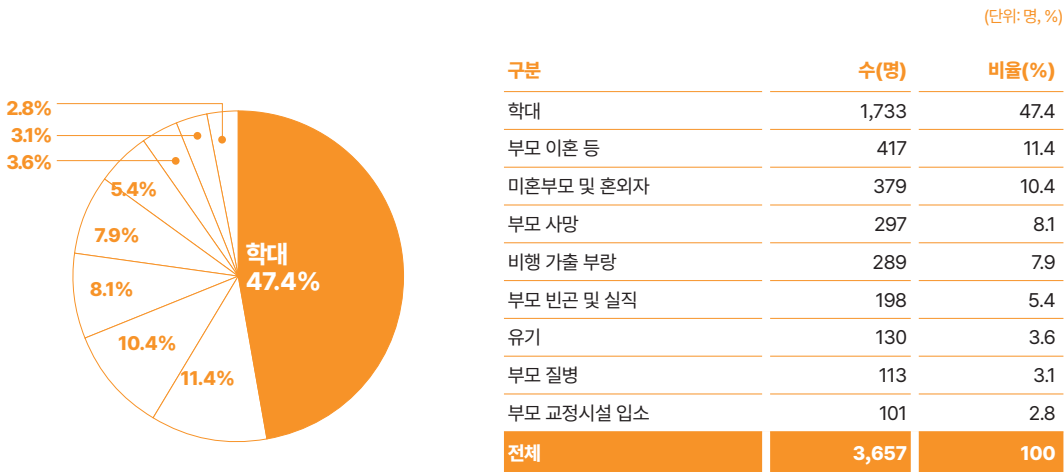
종료사유	(단위: 명, %)			
	전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만기퇴소	863(41.1)	271(22.2)	480(66.1)	112(71.3)
연장종료	1,239(58.9)	948(77.8)	246(33.9)	45(28.7)
전체	2,102(100)	1,219(100)	726(100)	157(100)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3)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아동의 보호조치 발생 원인을 살펴볼 때, 전체 인원의 약 47%가 아동학대로 보호조치되었으며, 다음은 부모의 이혼(11.4%), 미혼부모 및 혼외자(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로 유추해 볼 때, 부모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립준비청년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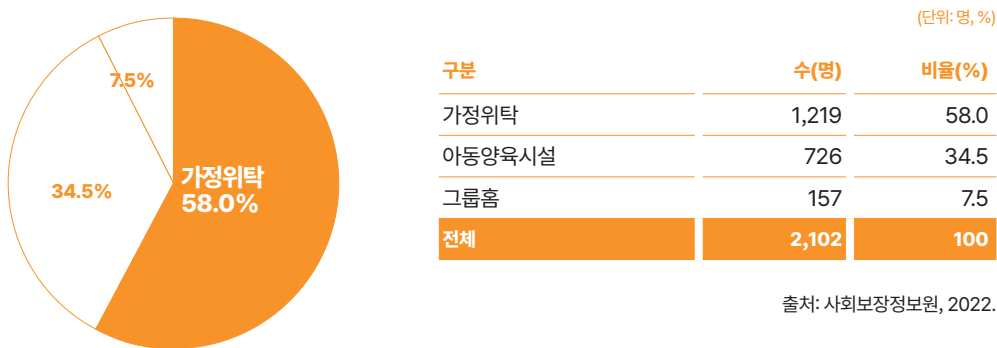
<표 3>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발생 원인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한 경우가 있으며,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다.

<표 4> 2021년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수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 중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자립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원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원가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 기간부터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과 원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김선숙 외, 2020; 사회보장정보원, 2022).

한편, 보호조치아동의 발생원인 중 부모 사망이나 유기로 친생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 유기아동은 주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 자기 뿌리를 알 수 없음에 따른 정체성 혼란과 유전적 정보의 상실, 사적 자원의 부재로 원가족이 있는 아동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민간에 의해 설치된 2009년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중 중학생이 된 경우가 있으며, 이제 자립지원 대상으로 진입할 베이비박스 아동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쟁점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지원, 사회적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 지원

먼저 공공의 생계지원을 살펴보면, 보호종료 후 일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 일시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과 보호기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수령한다. 자립정착금은 과거에는 약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정부는 1,0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최근 서울, 대전, 경기, 제주는 1천5백만 원까지 증액하고 그 외 지역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보호기간에 적립 금액에 따라 국가에서 후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통장으로, 개별 적립액과 국가 후원금을 1:2 비율(국가적립금 최대 10만 원)로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5만 원을 적립한다면 10만 원을 지원하여 월 15만 원씩 적립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18세부터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며, 만 24세가 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적립금도 아동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자립수당이 있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시범적 운영 후, 지급 기간과 금액이 지속해서 확대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월 30만 원으로 시작된 지급액은 2023년 1월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시 소득과 재산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자격을 완화하였다. 보호종료 후 5년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공제(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수급권을 얻게 되면, 2023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6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생계지원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고, 자립정착금과 같이 일시로 목돈을 지원하는 것과 대응자금을 하는 적금이 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는 2021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청년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활 안정금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지원금은 별도의 선별 체계를 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지원기관 간에 지원 대상에 관한 정보 교환이 어려우므로 지원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의 최대 금액을 계산하면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만 5년간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산출된다. 이는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의 최대 금액 2,500만 원, 1세부터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약 3,200만 원(15만 원×216개월), 월별 자립수당 3,000만 원(2024년부터 증액분 50만 원×60개월), 수급권 대상이 되었을 경우 1인가구 생계비 약 3,900만 원(2023년 기준 약 65만 원×60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물론, 이는 잠재적으로 수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기계적으로 환산한 것일 뿐이며, 자립준비청년이 이 금액을 모두 받기는 현

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가 자립준비청년에게 현금 지원이 충분하므로 지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어떤 청년은 5년간 1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청년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도가 있어도 여러 조건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지원 신청이 되지 못하는 때도 있다.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찾는 정보력과 지원서 작성 역량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아서, 정보를 알아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도 있다. 이와 관련한 사각지대와 지원 한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얻으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대상이 아닐지라도 보호종료 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²⁾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비 보장도 일부 확인이 된다. 일례로 한화생명의 함께멀리 기부특약은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는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3) 주거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은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희망디딤돌센터’,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LH전세임대 무상 지원 기간을 2023년 하반기부터 20세에서 22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LH상담센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 주거 상담 서비스인 ‘유스타트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한편, 청소년쉼터의 퇴소 청년은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18세 이상인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명된 청년 외의 사람은 대부분 주거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법령을 살펴보다라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러나 이 법률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은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는 셰어하우스나 자립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월세나 주택임주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를 확보한 후에 필요한 부분이라 주거 자체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여전히 노숙 위기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4) 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국가의 교육 지원은 주로 대학 진학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먼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은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약국 이용 500원 수준이다.

교육 지원은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다양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도 대학생교육지원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한정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국가는 장학금 제공 외에 자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 14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개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호와 진로를 먼저 탐색하고 그에 맞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어학이나 예체능,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사업이나 생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교육인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자산 형성과 지출관리, 투자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5)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창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도다(정선욱 외, 2019).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개월의 도약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민간 영역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규직 채용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SKT나 스위트코리아 신세계 면세점 등은 정규직 채용을 연계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만드는세상 등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6) 심리 지원

심리 지원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3개월간 10회기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총 8회기 이루어진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마음건강지원사업의 1순위로 선발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는 보편적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이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우울함이나 자살 시도, 자살 생각 등 심리적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심리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매우 적은 편이다.

(7)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정부는 20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였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자립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본적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연 1회 상담을 실시하여 자립 수준과 생활 상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며,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 주거, 진학, 취업,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하지만,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약 70명 정도로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는 자립전담인력을 2023년 180명까지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에 대한 방문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역별로 조직, 운영한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멘토링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임별로 20명 내외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³⁾

민간에서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사업들은 보통 자조모임 자체를 지원하기보다 생계지원이나 취업지원,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모임을 구축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현대차정몽구재단의 경우 ‘온드림 청년사회진출(청사진)’이라는 통합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자립 교육과 자기 계발 지원으로 구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해 자립선배 및 전문가를 연계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강현주·홍나미·박주혜, 2019). 아름다운재단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모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모임인 ‘자립준비청년협회’에서도 자립교육과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표 5> 국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

	공공영역	민간영역 ⁴⁾	아름다운재단
생계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월10만 원 한도 추가적립)	• [대한적십자사] 청약저축통장 납입액 지원 • [신한은행] 적금 매칭 펀드 • [아름다운가게] 적금지원금 • [청년의뜰] 저축 시 매칭 펀드	
	• 자립정착금 (1,000~1,500만 원)	• [KB손해보험] 희망의장검다리(자립정착금) • [KRX국민행복재단] 생활안정지원금 • [기아대책] 자립키트 지원, 사랑의 김장나눔 • [아름다운가게] 자립지원금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살림구매 지원 • [현대중공업1%나눔재단] 보호종료준비아동 자립준비지원금	
	• 아동보호종료 후 자립수당 (월 40만 원)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수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약 60만 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	• [KBS강태원복지재단] 식재료 지원 • [KB손해보험] 런챌런지(생계비) • [아모레퍼시픽] 아침의릴레이(긴급생계비) • [우체국공익재단] 청년밥심스타트온(식비) • [포스코1%나눔재단] DoDream (생활지원금) • [한화생명] 긴급생활비, 비상금 사업	•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

3)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청년모임’,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청하)’와 ‘그린나래(보호대상아동)’,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찬솔(보호대상아동)’ 등이 있다(박주혜·홍나미·강현주, 2022).

4) 본 표에서 공공 영역은 국가의 자립지원 제도와 정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영역은 국가지원이 없는 비영리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정의함. 이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이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기관은 본래의 정의상 ‘민간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 영역에 포함하였음. 민간 영역의 경우 자금 지원처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자금 지원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를 명시하였음.

	공공영역	민간영역 ⁴⁾	아름다운재단
의료 지원	• 의료급여 :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 [한국아동복지협회] 의료비 지원 • [한화생명] 함께멀리기부특약 (의료비보장보험 지원) •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 (건강검진 지원, 실비보험가입)	
주거 지원	• 공공임대(무상임대 및 우선공급) * 청소년쉼터 퇴소 후 5년 이내 • (지자체별) 셰어하우스 및 자립지원주택 제공 사업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환경조성, 사례관리)	• [KB손해보험] 셰어하우스, 월세지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주거지원 • [삼성전자] 생활관 및 자립체험관 •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무이자대출, 주택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입주지원금 • [이랜드복지재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거안정지원사업 • 청소년부모주거 지원사업 • 노숙위기청년주거 지원사업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권장 및 우선선발 • 대학특례입학(2024년~)	• [IBK기업은행] 장학금 • [IBK행복나눔재단] IBK희망나래 장학금 • [S-Oil] S-Oil Dream장학금 •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장학금 • [지파운데이션] 같이가치 비전장학금 •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사업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 [현대백화점] 파랑새꿈꾸는날개짓 (교육비, 진로장학금) •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장학금)	• 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 • 청년배움지원사업 (대학비진학 또는 진학 후 중단 청년)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 [HSBC코리아] 청소년비전지원사업 • [Marcus AI Academy] 인공지능 교육 • [YBM] 어학수강권 지원 • [공무원연금공단] 멘토링 지원사업 • [나눔과이음] 자립지원 법교육 • [사회연대은행] 예체능분야 멘토링 지원 • [사회연대은행] 자산형성지원(저축+보험), 하이투자챌린지 • [지오이드] LIFE 금융교육 • [카카오뱅크] 금융교육 • [한화생명] 청년꿈 지원사업 • [현대차증권] 찾아가는 경제교육	• 청년자립정착꿈 지원사업 • 청년배움지원사업 • 청년경제교육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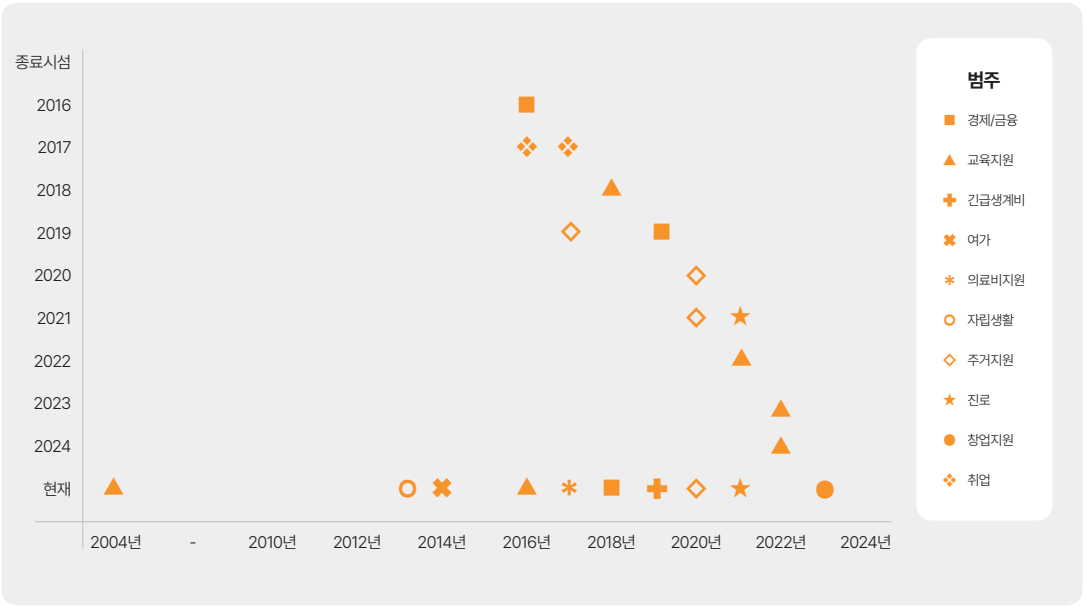
	공공영역	민간영역 ⁴⁾	아름다운재단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	• [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 • [KB손해보험] 기술교육 및 컨설팅 • [KT그룹희망나눔재단] 자격증 지원 • [SKT] 정규직 취업 연계 • [두나무] 창업지원, 자립준비청년 고용기업지원 • [드림텍, 유니퀘스트] 이공계열 지원사업 • [매트라이프재단] 자립준비 교육비 • [삼성전자] 취업연계 교육 •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취업 연계 • [신세계면세점] 정규직 취업 연계 • [아름다운가게] 청년인턴십사업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스무살함께서기 (취업컨설팅, 일경험) • [이랜드복지재단] 면접복 키트 지원 • [포스코1%나눔재단] 취업성공수당 • [한국관광공사] 호텔분야 취업연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입문과정 교육 • [한국타이어] 호텔분야 취업연계 • [함께만드는세상] 인턴십 프로그램 • [함께일하는재단] 희망디딤돌청년 직무교육 • [현대중공업1%나눔재단] 중공업 기술교육 및 취업연계사업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지원	•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 (숲속힐링교실, 멘토링)	
심리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조모임	•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운영 • [청년재단] 새싹청년의 꿈을 이루는 멘토링 •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청사진(멘토링)	• 청소년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
사회적 (정보) 지원			
	• 자립지원 플랫폼 운영: 자립정보ON(보건복지부), 자립해냄 모바일 앱(여성가족부)		

* 본 자료는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자립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및 자립지원활동가이드북(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정보ON(아동권리보장원) 게시물, 한국아동복지협회 게시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음.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영역의 경우 과거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거나 절대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양적으로 지원 규모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지원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만 머물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 외에도 교육과 멘토링, 문화 활동,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지원사업 시작 연도를 살펴보면(그림3), 2001년 아름다운재단에서 대학생교육비지원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교보장학재단에서 장학금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 삼성전자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자립청년에 대한 주거지원(희망디딤돌)과 여가지원사업(온드림숲속힐링교실)을 운영하였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민간의 자립준비청년사업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동자립지원단과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등 아동보호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 기업의 후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9년은 자립지원 사업에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보호종료 후 홀로 지내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⁵⁾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자립지원금과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다.⁶⁾

[그림 3] 연도별 민간 지원 영역



민간의 사업은 단발성으로 진행되거나 주제나 내용이 바뀌는 등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민간은 늘 공공보다 한발 앞서서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립준비청년사업을 견인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 포스코1%나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은 단일 사업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합 사업을 오랜 기간 제공해왔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방향을 선도해 온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단이나 후원 기업 고유의 특성에 맞춘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업도 사업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저축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YBM은 어학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저축과 보험, 투자 등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카카오뱅크는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

5)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은 13명이었다(국민일보, 2022.12.4.).
6) <그림3>은 앞 장 ‘자립지원 시기별 주요 특성’ 파트에서 제시한 34개 민간지원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형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원책이 마련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각 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승작용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즉, 생계 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교육의 연계,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 교육이나 취업 지원 사업과 멘토링, 자조모임을 연결하여 심리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사업의 안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선택과 실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원체계 마련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상당수이다. 202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2,102명이며, 조기 종료된 아동은 연 733명이고 이 중 원가정 복귀가 708명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체계에서 18세 이후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연 1,100명 수준이다. 법무부 감독 하의 소년원 퇴소 인원은 연 1,588명이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정원은 연 180여 명 수준이다.

이들의 입소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아동기에 가정 밖에서 보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원가정의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들은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도 많은 편이다(조소연 · 황혜신, 2023). 2019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이른바 ‘생존형 가출’이었으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임형’과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이전한 ‘시설형’이 뒤를 이었다(허민숙, 2022). 가정 밖 청소년과 비행이나 범죄연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이정민 · 김수혜, 2020).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볼 때(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 이들이 매우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다가 ‘통고’되었을 경우,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다가 법무부 산하의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도 있다.⁷⁾ 소년법상 통고란,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금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김희진, 2020), 일반 통고 대상은 주로 보호관찰 처분(4호, 5호)을 받았으나, 시설장이 통고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장기 보호관찰 처분(5호)이나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이형섭 · 정선욱, 2016). 또한, 소년법상 처분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재 복귀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는데(경향신문, 2019.7.22.; 최정규 외, 2018),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체계에서 보호되었든 이들의 환경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 전 상황뿐 아니라, 보호종료된 청년의 대부분은 자립 기반과 역량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국가의 자립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채무 비율만을 살

7) 「소년법」상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1~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하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재판 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경우, 지역 내 개방된 시설에 수용해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면서도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6·7호 처우를 ‘중간처우’라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 11개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7곳을 6호 처분 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다. 즉,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치료와 보호의 중복 목적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을 수용하는 법무부 관할 시설이기도 하다.

펴보아도 일반 청년의 14.7%가 채무가 있지만, 시설퇴소청년은 36.2% 수준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대학 진학률도 일반 청년이 75.8%, 시설퇴소청년이 61.2%로 낮은 수준이었다(김지연 외, 2022).

그러나 자립지원의 수준은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이 나머지 두 체계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 지원되지만,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이 거의 없다. 2021년의 경우 약 17명 정도가 수당을 받은 것을 보면, 기준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전민경, 2021). 자립수당은 18세 이후 퇴소하고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청소년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지급 기간도 3년간으로 짧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이는 청소년쉼터의 경우 가정 복귀, 소년원의 경우를 선도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즉, 청소년쉼터와 소년원을 벗어나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허민숙, 2022). 이마저도 중도에 타 시설로 전원되거나 보호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에 시설 거주 경험이 없이 18세 이후에 발굴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출소 후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었으나 원가정복귀나 타법에 의한 시설에 입소하는 등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는 대표적 사각지대이다(허민숙, 2018). 이 경우, 2023년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립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지만(「아동복지법」제38조), 아직 구체적인 자립지원 대상 인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자립에 관한 전반적 지원 역할을 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배치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에는 없다.⁸⁾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도에 한두 명만 배치되어 있어,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을 뿐 아니라, 자립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아동은 서비스를 차이 없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을 입·퇴소 이력과 관계없이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립지원의 기간도 문제다. 현재 자립지원은 대부분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보호기간에 지원하는 내용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에 따른 자립 계획 수립과 생활, 진로 교육이 유일하다.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기간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 욕구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생활 문제, 자금 관리 문제, 범죄 노출 등이 증가하지만 이에 맞춘 연속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는 보호기간부터 개입이 시작되어 보호종료 후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8) 서울과 부산의 경우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지역별로 자립 준비 환경은 매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과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곳의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자립지원 관련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것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과거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보건복지부, 2017), 2022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⁹⁾ 자립전담기관은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연1회 자립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학업, 취업,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자립지원의 질은 인력의 수와 전문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자립지원에서는 생애 초기 경험한 트라우마 감각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립준비를 지원할 전담인력의 충분한 배치는 중요하다(이상정 외, 2020b).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자립준비청년 수와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요원 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820명) 서울시(1,508명), 전라남도(1,094명) 순이며, 경기도(26명)와 서울시(24명)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자립준비청년 수는 많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전담요원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요원 1인당 청년 수는 전남(136.8명), 제주(110.0명), 충북(94.6명) 순이었다. 한편, 통합사례관리 인원은 경기도(365명), 서울시(310명)와 부산시(175명) 순으로 많았다.

<표 6>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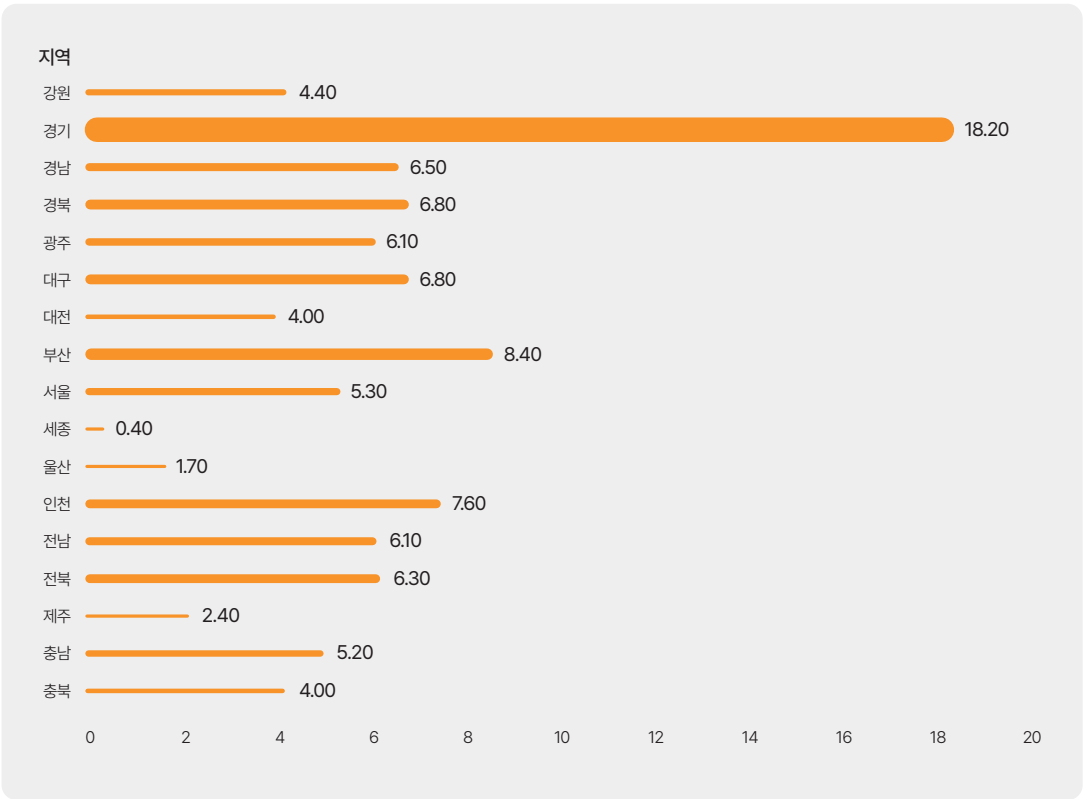
시도	정원	배치 현황	자립준비청년 수	통합사례관리 인원	(단위: 명)	
					인력 1인당 청년 수	
서울	24	24	1,508	310		62.8
부산	16	14	910	175		65.0
대구	8	8	406	85		50.8
인천	10	10	487	105		48.7
광주	10	10	379	105		37.9
대전	7	6	307	80		51.2
울산	2	2	142	25		71.0
세종	2	1	13	5		13.0
경기	32	26	1,820	365		70.0
강원	10	8	757	110		94.6
충북	7	4	475	75		67.9
충남	8	6	512	85		85.3
전북	9	9	721	100		80.1
전남	11	8	1,094	115		136.8
경북	9	9	764	100		84.9
경남	12	11	888	125		80.7
제주	3	2	220	35		110.0
계	180	161	11,403	2,000		70.8

출처: 국회입법처(2023)

9)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비율은 <그림4>와 같이 경기, 부산, 인천의 순으로 높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디딤씨앗통장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도 안 되는 비율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17개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비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22.

지역별 자립지원의 격차는 당장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지역별 차이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차이도 문제가 된다. 즉, 공공과 민간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얻지 못하는 어려움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된 후 살던 시설이나 시설의 종사자, 지인 등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서비스가 개인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자립전담요원이 서비스 안내 또는 홍보를 해도 개인과 접촉되지 않을 때는 공급이 어려운 것이다. 민간의 자원을 획득하기는 더 어렵다. 민간의 자원이 다양하지만, 자원 자체를 찾기 어렵고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크게 드러내야만 지원받기가 쉽다. 또한, 대부분 지원 결정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서류를 잘 작성하기 어렵거나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쉽지 않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년 자립정보ON을 개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자립정보ON에 등록된 사업은 총 271개였으며, 이 게시물의 대상과 주체,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정보ON에 게시된 사업의 73%는 자립준비청년에 특정되어 있으며, 27%는 모든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정보도 포

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은 134개(53%), 민간기관의 사업은 150개(47%)이며, 사업의 내용은 법률, 소득, 진학, 건강, 금융, 주거, 취업 등 다양했다.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84건, 31.0%)과 기타 영역(84건, 31.0%)이었는데, 기타 영역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모든 게시글에서 지원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은 23개(8.5%)로 파악되었다. 조회수를 살펴보면 법률 정보에 대한 조회수가 225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진학(179건, 14.0%), 금융(176건, 13.8%)에 관한 것이 뒤를 이었다.

자립정보ON은 아직 개설 초기이지만,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상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플랫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표 7> 2023년 자립정보ON 게시글 현황

(단위: 건, %)

분류	게시글 수	조회 수
법률	3(1.1)	225(17.7)
소득	5(1.8)	150(11.8)
진학	20(7.4)	179(14.1)
건강	20(7.4)	140(11.0)
금융	26(9.6)	176(13.8)
주거	29(10.7)	123(9.7)
취업	84(31.0)	140(11.0)
기타	84(31.0)	141(11.1)
계	271(100)	1,274(100)

5. 아름다운재단 자립지원사업 성과 분석

아름다운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선정 인원이 총 770명이고, 총지원금은 3,334,893,633원에 이른다. 이후 십여 년간 등록금 지원 중심으로 사업하던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2014년부터 대학 생교육비지원사업을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최대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등록금뿐 아니라 학업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배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 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자립준비청년 모임을 발 전시켜 선배 장학생이 길잡이(멘토)가 되어 후배 장학생과 교류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교육비지 원사업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 8> 아름다운재단 연도별 교육 지원 내용

구분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
2001년~2013년	•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2014년~2016년	•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1인 1,000만 원 한도) • 학업생활보조비 1인 100만 원 지원(학기당 50만 원) • 장학생 특전 : - 해외어학연수(1인 700만 원 지원) - 자기주도성 자기 계발 프로젝트(1인 최대 500만 원 한도) ※ 별도 선발(각 5명)
2017년~현재	• 최대 2년간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1인 320만 원 지원 • 학업생활보조비 180만 원 지원 • 작은변화프로젝트 : 전체 장학생 대상 주제별 팀모임 지원 • 장학생 특전 : 해외어학연수(1인 약 1천 만원 지원) ※ 별도선발

또한, 재단은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1년에는 ‘청년배움지원사업’과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2년의 ‘청년커뮤니티활동지 원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외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업의 범위를 확 장해,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에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한 사건은 재단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계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마주하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추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열여덟어른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성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발전시켜, 2021년부터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선진국 사례 조사를 통한 보

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단은 2019년부터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과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를 노숙위기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의 성과를 사업의 내용과 범위, 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1) 선도적 자립지원 모델의 견인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당시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 밖 보호아동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시작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사업은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림 5] 공공과 민간의 주요 자립지원사업

연도	민간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사업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포스코1% 나눔재단		두나무 NEXT JOB	
	자립지원 센터 운영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1993	자립지원 센터 운영											
2001												
2004												
2007												
2011												
2012												
2014												
2016												
2019												
2021												
2023												

특히, 장학금지원사업은 대학생의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의 효과가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지원사업은 학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기 계발을 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상정하고 추진해 왔다.

“여유가 생겼죠. ‘아 한숨 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빠빽했거든요. 계속 일과 학교를 반복하니까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오면 엄마랑 자주 싸웠어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 나서 한숨 놓게 되니까 부딪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서도 잘할 자신이 생겼어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5)

“돈 모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책 한 권 사는 것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강의도 1년짜리는 사본 적 없고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구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2)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일찍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자 팀별 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1:1 모니터링 등 참여 청년 간 소통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왔다. 이는 서로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자신만 겪는 슬픔과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는 외딴섬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이내 위로와 격려로 승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3) 자립 역량의 강화

자립청년 선후배가 만나 모임과 활동을 함께하는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청년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사업,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비·생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의 사소한 지침과 팁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였다.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팀별로 스스로 선정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활동의 결과가 지식과 기술 습득이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계획과 결과 보고를 하게 하였는데, 청년들은 운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다(김선숙·조소연·이정애·권지성·안재진·정선욱, 2020).

(4)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자립 보장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교통비와 독서실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학업 수행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하였다.

2)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범위

(1) 지원 연령과 범위의 확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초창기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 법 제도가 갖춰지기 전부터 청년기를 포괄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초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장학금과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비진학 및 취업 준비 청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후 생계를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호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법적으로 규정된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당시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시설 중도 퇴소자’와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퇴소자’도 포함하여 사각지대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이 역시 공공 영역의 정책이 개선되기 전 선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다.

(2) 청년 권리의 확장으로 관점 전환

아름다운재단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 활동, 취미 및 문화 활동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청년의 관심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며 이루어졌다. 이는 생존권과 보호권 중심의 지원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청년의 권리를 확장하여 접근한 것이었으며, 기본적 생계유지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서비스의 시각을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으로 전환한 시도였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1) 선정 기준의 융통성

아름다운재단은 등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발할 때도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였다.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이 드러났으며, 이는 타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 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거 같은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2)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실천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요시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지하였다.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성적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듯이, 프로그램 성과 측정과 결과 보고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지지하고 응원하였다.

(3) 나눔의 선순환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지원이 끝난 후에도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 자신의 자립 노하우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자립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6. 자립준비청년사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 연구 개요

자립준비청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그룹과 학계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11월 9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각각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는 총 8명이었다. 현장 전문가 그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아동보호치료시설, 공공기관 종사자로 총 4명이었고, 학계 전문가 그룹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재단법인 연구 부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자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총 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의 코딩(coding), 범주화(categorization)를 포함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 연구 결과

(1) 현행 자립지원의 문제

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가. 보호체계 간의 차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자립지원 수준의 차별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였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아동보호체계 속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 수준에 비해 청소년쉼터 등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수준에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각각의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자립지원의 필요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단지 어느 보호체계에 속해 있느냐로 지원 수준이 달라져 이후 자립 과정에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이게 그리고 가정위탁 3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자립에 대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호치료시설 같은 경우나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부분인 거죠. (현장 전문가A)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에 2천만 원까지 자립 정착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쉼터로 간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로 간 청소년이 이 자립하는 시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략)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고 이진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근데 청소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부처 안에서의 이런 칸막이 정책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좀 통합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거든요.

우리 쉼터를 퇴소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그룹홈 퇴소하는 아이들 저희가 범인에 있으니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 퇴소한 아이들은 집이 딱 제공이 되고 일단 주거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는 살아가면서 자립하면서의 그 차이는 굉장히 꽤 급격한 개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장 전문가B)

아직도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있던 친구들을 지금 어떤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중략) 회복 지원 시설도 있어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회복 지원 시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면서 거기는 저희는 6호라는 처분을 받지만 거기는 1호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보호자들이 열악하고 보호자들이 아예 안 돌보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현장 전문가D)

나. 보호체계 안에서의 편차: 전담인력의 부재와 자립정보의 격차

같은 보호체계라고 해도 자립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에는 없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립준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중략) 보호 중일 때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양육시설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있어요. 그룹홈에는 없어요. (중략) 25%에 있는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이 그냥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이 자립을 준비해야 돼요. (학계 전문가G)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정보에 대한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손가족처럼 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자립수당이나 교육과 서비스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가정위탁의 특성상 아동양육시설처럼 자립관련 선후배도 없고 전담인력이 밀착해 있는 형태도 아니다보니 결국 자립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보호 체계별로 또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손가족인 가정위탁 아이들에 대한 정보 격차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굉장히 대책을 만나면서 아이들 한 몇백 명을 만났는데 아이들 중에 이제 제가 1억 원, 몇 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까지도 봤어요. 근데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의지가 없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중략)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냥 수당으로 버티는 이런 상황들도 봤고 노숙까지 가는 경우도 나와서. (현장 전문가A)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문제는 이제 접근성인 거죠. 후원금이 많은 애들은 막 수천만 원

단위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없는 아이들은 무슨 몇만 원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거 이게 좀 형편이 다 다양한 이 친구들 중에서도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민간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학계 전문가H)

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으로 공공영역에서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 이전에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연락두절 등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담기관에서는 지금 그전에 퇴소한 아이들은 사실은 상태를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이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 한지, 아니면 정말 무슨 전화를 계속 돌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제 가정 위탁 같은 경우... (현장 전문가A)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자립지원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자립지원관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만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지원 서비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한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현장 전문가B)

다. 보호체계 밖에 있는 아이들: 탈시설, 탈가정 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립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가정이나 시설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이었다. 특히 비행, 범죄 등으로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의 경우, 약 10%의 아이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지나 퇴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비행으로 문제를 일으켜 시설을 나온 경우 본인이 돌아가길 원해도 시설에서 원치 않아서 양육시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령대가 16, 17인데도 불구하고, 양육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본인도 양육시설로 안 돌아가겠다. 그리고 양육시설에도 절대로 안 받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중략) 그중에 1년에 한 10% 이상 지금도 5명 정도 아이들이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퇴소 후에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현장 전문가D)

소년원 가서 6개월 혹은 9호 받아서 6개월, 1호 받아서 2년 있다가 애가 양육시설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돌다가 청소년쉼터 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G)

청소년들이 시설에 돌아가고 싶어도 시설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략) 특히 아동 저희가 만났

던 청소년들 아동 양육시설에서 이제 중도 퇴소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비행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한 경우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쉼터로 가는 경우들이 꽤 대다수였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현장 전문가C)

때로는 본인이 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설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탈시설 후 시설로 복귀하려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했다. 이들이 시설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잠시라도 경험해 봤는데 모든 시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청소년들도 각자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설에서의 이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이 청소년 한 명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사실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소하는 상황들도... (현장 전문가C)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쉼터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쉼터나 탈시설 이후에 다시 시설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정말 복귀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해서 더 이상 어디도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현장 전문가C)

자립지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대상은 가정이나 시설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와 제도 안에 있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고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경우 보호조치를 받아 시설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어서 애가 그냥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우리 보호 체계에서 아이를 지원을 하고 애가 그냥 집으로 뛰쳐나오면 이 아이는 그냥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이 이렇게 약간 편차가 발생을 하는 건가. (현장 전문가A)

사실은 어떤 아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고되어 있거나, 분리했을 경우는 부모님이 있지만 쉼터로 갈 수 있고 그룹홈으로 갈 수 있고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안 좋고 이러면은 가출 그냥 쉽게 해요. (현장 전문가D)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나이가 16~17세 등으로 어리고 원가정도 이들을 감당하기엔 어렵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특히 법원에서 범죄나 비행으로 처분 받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경우 가정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법적인 보호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어떤 자립준비청년보다도 도움이 절실하지만 자립지원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희들도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아이들하고 그거를 우선시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13살 14살 때 노출 돼 있고 가출하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시설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쉼터도 있을 수 있죠. 있다가 집으로 가고 이러겠죠. 그러다가 집으로 가면은 집에서 그거를 감당하느냐 아니죠. 또 그게 반복인 거죠. 그거는 13살부터 14살 요 아이들이 어떤 가출이 시작해서 노출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은 열일곱 열여덟 될 때까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현장 전문가D)

이제 아동청소년기에 사실 2년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나온 아이가, 부모가 이 친구를 흔쾌히 이렇게 자립지원을 할 만한 그런 보호력이 있는 가정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낙인의 대상이 되고. (학계 전문가G)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봤을 때 지금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의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17세에 요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17세 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만 16세 청소년들의 이제 지원도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만 16세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C)

② 지원서비스 작동 메커니즘의 문제

가. 정책 네이밍(naming) 문제: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규정

연구 참여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자립지원 서비스 작동 방식이었다.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정의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제 존재하는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대상으로 어느 집단을 규정하려면 그것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대상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단순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규정하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경우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것이 되므로 공공과 민간지원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삼성에서 희망디딤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민간이잖아요. 삼성 임직원 50억씩 만들었는데, 민간이니까 잘 몰랐어요. 민간은 그래서 정의를 그냥 국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상이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는 잘 모를 때의 세팅을 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했으면, 아마 아동복지시설이든, 청소년복지시설이든, 법무부 시설이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 취약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돈이 들어가고 계약서가 서로 왔다갔다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딱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정의는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고 너무 안타까워요. (학계 전문가G)

자립준비청년과 이렇게 네이밍을 달리하다 보니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역으로 보면, 이 네이밍이라는 게 매우 파괴력이 이렇게 파급력이 대단하구나! 정책 대상을 이렇게 딱 네이밍한 순간 자원이 모이고 전달 체계가 정비되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하면서도 딱 자립준비청년 이외의 아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공공과 민간의 지

원에서 이제 누락이 돼버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학계 전문가F)

나.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양산하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처한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기준을 일괄 적용해 경직된 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작동 방식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실제 자립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였다. 한 예로 쉼터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경우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실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6개월을 한 쉼터에서 머물러야만 받는 조건의 경우, 자립수당을 위해 원치 않아도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조건은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양산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호종료아동들에서 이 자립수당을 하니까 또 여가부도 이제 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동안 쉼터를 거주해야지만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1년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돼. 그제 지금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6개월로 줄었지만 그걸 저는 그거 단적으로 하나 그 비용을 보자면 이제 정말 정책 중심의 사업이지 이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거 20년도가 서울에서 한 명 받았어요. 한 명. 서울에서는 이게 정말 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저는 이거 받는 아이들이 계속 우리 시청에서 연락 와요. 빨리 올려라, 올려라 2년 동안 쉼터를, 그 아이들 정말 찾기 힘들어요. (현장 전문가B)

6개월을 한 쉼터에 오래 머물러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고 이런 서비스는 좀 저는 정책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B)

쉼터 퇴소 청소년이나 보호종료아동들이 갈 수 있지만 보호종료여야 되고 쉼터 퇴소 2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현장 전문가C)

저희가 노숙위기 청년지역 주거지원사업을 저희 청소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 청소년이 보호종단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해서 탈락이 됐는데 이런 이렇게 뭔가 지금 현재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애쓰는 것에 대한 인정과 노력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 현재의 모습만으로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려고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현장 전문가C)

다. 과거에 메인 지원조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해보여야 지원받는 구조

민간영역 자립지원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보통 자립준비청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드러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방식을 내켜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비스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자립준비청년이 살아온 기간 내내 이루어진 방식으로, 당사자 스스로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 존재인지 강조하고 증명해 보여야 지원받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외부 펀드를 받을 때에 자소서 쓰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이것으로서 어떻게 나아가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자꾸 강조해 만드는 그 자소서 그런 계획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학계 전문가G)

저희의 계속 고민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그들이 살아온 기간 동안 계속해온 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점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안 하고 말지 내가 나를 더 얼마만큼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냥 내가 돈 벌고 말지 내가 뭐 다른 일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발생해서... (현장 전문가C)

③ 지원서비스의 한계

가. 보호종료 이후로 집중된 지원

현행 자립지원 대부분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립과정에서 부딪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사실 보호 중일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보호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보호종료 이후부터 지원하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립이라는 것이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립지원은 이미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한계가 뭐냐 현재 지원의 한계가. 저는 먼저 우선 들었던 게, 보호종료 이후에 각종 지원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보호 단계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보호 체계에 유입됐을 때 그 상황 이걸 고려하면 정신건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보호 단계에 참여다보지를 못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지 못하고 마치 이제 계속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자립지원을 시작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학계 전문가F)

저희가 딱 6개월만 아이들 취업을 시켜서 이제 하는데 방역이나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편의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 이제 선생님 사장님들은 다 너무나 힘들다고 아주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갑자기 다음 날 연락 안하고 그냥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하고. 그래도 6개월을 버티고 좀 시간이 지냈더니 그 아이가 그 직업으로 커피를 배웠던 애들은 바리스타로 재취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사회에서 부조를 받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밥벌이를 하느냐는 보호 중일 때부터 꾸준한 자립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보호 중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A)

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서비스의 미흡

개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자립지원을 넘어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에서는 이런 자립준비청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스퍼거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개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했다.

가장 힘든 케이스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자립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발달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 이런 친구들에 대한 자립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저희한테로 몰려오다 보니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여가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지금 현재 없는 거고. 계속 저희한테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현장 전문가B)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경계선 아동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는 이제 ADHD 아동도 있고, 공격성이 심한 아이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키우기가. 근데 그러니까 애는 그냥 좀 공부 못하는 아이. 학교 초기에는 그러다가 사춘기를 겪고 자립을 준비하고 나갈 쯤이 되면, 이 경계선 아동들이 이제 큰 사고들을 좀 치신다는 거죠. 사기나 이런 데 가고, 자립정착금이나 수당, 용돈이나 후원금 다 없애고, 아니면 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 갑자기 임신을 해서 나타난다던가, 이러니까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너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시점에 아이들을 내보내기는 너무나 불안하신 거죠. (현장 전문가A)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특히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임에도 발굴이 쉽지 않고, 발굴 이후에도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자산을 탕진하고 또 여러 부채의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노출되면서 그다음에 별 이유 없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부채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채를 한꺼번에 이제 가진다든지, 이자를 못 내서 이렇게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현장에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다중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개네들이 또 발굴이 또 안 되거든요. (학계 전문가F)

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대책

현재 자립지원정책이 자립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자립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자립을 통합한 주체적 자립’이라고 했다. 수당지급에 의존하는 방식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며, 통합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체계와 인력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제도가 자립준비청년 특히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이제 너무 확장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당도 이제는 사후관리 5년에 맞춰서 50만 원, 지금 저희는 절대 그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부처에. 근데 지금 이제 당정협의

에서도 일단 수당이 갑자기 또 증액이 돼서 이 이게 긍정적인 부분만 자꾸 지원이 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 또 약간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없고 대상자에게 이게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현금 지원에 있어서의 장점과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학계 전문가F)

사실 이제 저희가 경제적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 아이들 지금보다도 더 훨씬 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2가 되고 내년에 자립수당이 50이 되면 그것만 3천,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이 5만 원씩 15만 원씩 1년에 180 18년이면 그것도 4,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립정착금을 2,500까지 주는 데도 있고 서울은 2천이지만 시군구 하면 2,500까지 주면 1억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1억을 넘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만큼 보호 체계 보호 대상 아동들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갈 때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도와야 되는 거에 대한 이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현장 전문가A)

근데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그 도움을 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뭐 자기를 계획은 다 ‘알바 할래요.’ 이래서 너희들이 알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나름대로 아이들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개별적으로 연계도 하면서 그 자립을 돕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하지만, 이곳에서 1~2년 훈련받아서 아이들이 정말 혼자 나가서 있을 때 거기서 잘 견디냐 하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현장 전문가D)

청소년 쉼터에서 자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청소년들에게 좀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자립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체적 자립은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모든 자립을 통합한 자립인데 경제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립이 자기들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당사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현장 전문가C)

특히 무기력하고 꿈이 없는 아이들의 자립역량을 기르도록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하기에 공동생활가정이나 청소년쉼터 등 현재 보호체계 안에 있는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기력하고 뭐가 변화가 없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청소년 쉼터에 있는 친구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보호 체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저희 시설장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도 아동 청소년 본인들도 그렇고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어떤 꿈이... 꿈이 뭐예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인 이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 쉼터나 보호체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가장 밀접하게 뭔가 주 양육자는 보호체계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쉼터 선생님도 지금 매번 바뀌고 있고 보호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룹홈도 그렇고(중략) 어쨌든 아동이 변화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의지가 없어. 근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옆에서 자꾸 누군가가 같이 뭘 해줘야 돼. 근데 그 옆에 누군가는 어쨌든 인력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인력은? 결론은 너무 부족해. (학계 전문가G)

(2) 자립지원에서 중요한 것

① 살면서 쌓아가는 일상생활 훈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 있을 때도 온전한 보호나 돌봄을 받기 어렵다보니 머리 감기, 손톱 자르기, 청소하고 정리하기 등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부터 새롭게 배워나가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말로 교육해서 될’ 것이 아니며 함께 살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며 ‘쌓아지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탈가정 이전의 삶에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들이 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략)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돌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도 그 이전에 가정 원가정에서 제대로 흔히 얘기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또 배워나가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전문가C)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돕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일일이 다 데리고 살아야만 되니까 쌓여지지 않고는 그거는 말로 교육해서 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현장 전문가D)

② 자립의 기초, 안전한 주거와 괜찮은 일자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답했다. 집은 자립의 기초이며, 이후 자립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보호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일명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보통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주거 비용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혼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저는 이제 무조건 1차적으로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립은 어쨌든 본인 자의든 타의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저는 집이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1차적으로 접하는 그런 거주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 옥상, 그다음에 고시원. 이 세 가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 전문가C)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거라고 생각이.. 주거가 확실하냐 주거가 불분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좀 저는 가장 좀 큰 과제. (현장 전문가B)

충분한 돌봄과 보호 없이 자립을 해야만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단순 노동 위주의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계속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들의 자신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취업 너무 중요한데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1차적인 노동 현장에 단순 노동 현장에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단계의 노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 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③ 관계의 힘

연구 참여자들이 자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측면은 친밀한 관계였다. 가정외보호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가족을 대신해 이들과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나누는 친밀한 존재는 이들이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음에도 못 견디는 이유를 ‘자신과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보호시설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가 이들의 자립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 참여자도 가정 밖 청소년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이라도 또 좌절하고, 또 거기서조차도 또 이탈을 해요. 자립을 옆에서 돕고 있는데도. 그러니까는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계속 관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못 견디는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없을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또래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에 다시 범죄하고 비행하고 했을 때 그 친구들하고 다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현장 전문가D)

사실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고요. 친해진다는 게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거부터 저희는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장 전문가C)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친밀한 관계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면 상담치료 등의 방식이 아니어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계라는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성취와 적응행동의 증가가 뒤따른다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이 부실하고 애들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접근보다는 네트워크와 관계망 속에서 이제 뭔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학계 전문가F)

그렇지만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낸 청소년의 경우 어른들과 관계 경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같은 관계에 있었고, 가정 밖을 나와서 마주한 사회의 어른들은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에 이들에게 어른은 신뢰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싫어하는’ 존재인 것이다. 아이들은 주위 사람과 관계를 잘 하면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우선은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어른들을 우리 특히 000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싫어해요.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여전히 계속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너를 소중히 생각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무한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글썽요 그게 어떤 제도나 어떤 말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000에 있던 친구들은 좋은 어른들을 만나기보다는 자기를 이용하고 나쁘게 했던 이웃 친구들이 어른들이 많아서... (현장 전문가D)

아이들 스스로가 관계 맺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취업을 해도 거기서 못 견디고 또 알바를 가더라도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에이 이렇게 하고 또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는 아이들이 삶 속에서 서로 관계 맺는 거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 아이들이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전문가D)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 중에 만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망이 시설 보호 중에서도부터 형성되어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지 못한다면 자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얘기했다.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선생님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 다음에 또 다른 성인이든 또래든 어떤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좀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저희는 그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다른 지원들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선생님이 옆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어떻게 지냈니? 관심 갖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자립할 때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 전문가D)

(3) 앞으로의 자립지원 방향

① 사각지대 해소

가. 제도가 규정하는 기준 벗어나기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자립지원의 개선 방안 중 첫 번째는 사각지대 해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제도권에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지원 대상 규정을 탈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나 정책의 개선과 함께 제도권에서 배제된 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벗어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학계 전문가H)

(청년기본법)법적인 개념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년 이렇게 돼 있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딱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이렇게 네이밍 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극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취약계층 청년으로 일단 관점을 좀 전향하실 그러니까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인 거죠. (학계 전문가F)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획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청년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리시면 좀 아동청소년기에 정말 시설 경험을 했던, 시설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생활 시설이죠. 생활시설 경험이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좀 지원 이렇게 좀 대상을 좀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좀 시도되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딱 꼭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대상을 좁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계 전문가G)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앞서 이제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자립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립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전문가C)

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유입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이나, 중도 퇴소한 청년, 자립지원단과 연락조차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청소년부모와 같은 새로운 지원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호 기간 중간에 중단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발굴이 될 거라고 저 들었어요. 조금 더 나라에서 이제 신경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걸러지는 친구들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만 먹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들은 시스템에서도 안 나오고요.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프라에서도 컨택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홍보와 엄청 많은 다양한 정말 지역의 활동으로서밖에 이렇게 발굴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차라리 아름다운재단이 조금 더 활동을 하시는 게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뭔가 또 뿌듯도 하실 테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계 전문가G)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 연락 두절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 (중략) 전담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전화하시고 그 때 뉴얼에 따라서 세 번까지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면 일단 종결 이렇게 하는데, 민간이 만약에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 계속 해보실 수 있거든요. 또는 주소지에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와달라는 방법, 지금의 그 방법 밖에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학계 전문가H)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대상은 청소년부모도 사실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굴이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지역에서 알음알음 거의 스노우 샘플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중략) 청소년 10대, 20대 아주 어린 청소년부모가 어쨌든 혼자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케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계 전문가G)

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접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확장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세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하거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한참 경제선 지능 말씀 많이 하시다가 현장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이게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서 사례관리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 하는 그 기간 안에 이게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여기서 끝나고 자립지원이 끝나면 다시 읍면동에서 다시 보통 수급대상 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 체계로 그냥 넘어가는 게 그냥 눈에 다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스페셜한 니즈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학계 전문가E)

② 서비스 신청방식의 개선

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과정이 일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신청과정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했다. 가정 내 보호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자립준비청년들이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배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기존의 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는 넘쳐나는데 서비스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다 보니 청소년이 정말 뭘 원하는지, 무엇을 지원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상황들, 우리 서비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 지원받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조금 더 이전보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자립에서의 성공이라는 걸 얘기한다보다 저는 자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들 어떤 성공, 성과, 이런 것들에 좀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성과를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이런 것에 자꾸 저희들도 그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판을 깨는 그런 작업들 좀 아름다운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현장 전문가C)

나.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원 과정

자립준비청년 지원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드러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것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과거에 니가 어땠는지를 보지 않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너의 기회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계 전문가G)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았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C)

③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연결하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 등 주변의 자연적인 관계를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될 때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자신이 원하는 자립선배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피붙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족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으니까, 가족을 좀 살리는, 가족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사업들을 그 자립준비청년을 뚝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게 가족이 없으면 친구 환경이라도 같이 살려주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환경을 같이 살려주는. 혹은 직장이면 직장인 동료들과의 관계를 살려주는. 이렇게 관계를 폭넓게 살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괜찮다고 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게끔 자신에 처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살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어떨까? 그게 보통의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계 전문가E)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꼭, 굳이, 정말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의 선후배, 예를 들자면 청소년 쉽터를 나온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든, 당신이 원하는 누군가는 매칭해 줄 수 있는 빅브라더? 시스터? 아니면 멘토링 어떤 이름을 사용하시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아름다운재단이 너무나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제한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계 전문가G)

나. 보호종료 이전부터 연속적인 관계 구축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시설 퇴소 이전부터 자립 후 자립준비청년의 관계망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탄탄하게 관계를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깊게 연관되고 지속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지역이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계망으로 작동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이리이러한 건데 그것이 딱 18세, 24세 종료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과정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 (중략) 오랜 시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중일 때부터 그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게 그리고 보통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시설 보호 아동은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막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보호 중일 때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매칭이 되면 그렇게 막 지역을 넘나드는 엄청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또는 친구가, 아니면 친인척이든, 말씀하신 그 누군가가 된다면 저는 이 애는 충분히 여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학계 전문가G)

이제 봉사자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고 아이들의 상황을 좀 지원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자조 모임에 초대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허물없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통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 되기 전에 공동의 시간에서 그런 그 만남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런 걸 좀 시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잡자기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검증한 이제 신뢰를 좀 쌓았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원하면 멘토도 해드리고 이랬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 전문가B)

다.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적인 접근 필요

자립준비청년 개개인별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했다. 멘토 연결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도 있는 욕구 파악과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관계를 주선하고 이후 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성장 과정을 꼭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말 멘토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았는데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많이 잘 안 됐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어른은 우리의 기준의 어른과 조금 달라요. (현장 전문가A)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욕구를 정말 되게 오랫동안 잘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은 그런 세팅이 없는 거죠. (중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 브라더, 시스터나 멘토링 같은 거 할 때 매칭해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그 자료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학계 전문가G)

현재 막 하고 있는 멘토링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자립 준비 청년 당사자들한테 들어보면 정말 자립전담기관에서 부탁해서 그냥 참여한 거지 자기는 너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000 박사님 멘토링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성장의 과정을 꼭 같이 하는. 진짜 관계 맺기에 그 지점 그렇게 하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약간 사회적 가족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인 거죠. (학계 전문가F)

아름다운재단은 이 사업 담당하시는 이 한 명밖에 없거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채길 수 있는 구조가 또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새로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또 정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기도 보니까 축진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학계 전문가E)

라. 자립선배 등 당사자 네트워크의 적극적 양성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자립선배로 양성하여 그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보았다. 자립준비청년끼리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활성화하되,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청년들의 특성이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느슨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관계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만드는 시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핵심은 지원을 해주고 몇 년 지원하고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을 약간 키우고 양성하는 관점에서 자립선배로 키우는 관점 그러니까 약간 인재로 좀 키워나가는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장기 계획으로 설계가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후배에게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인력으로 혹시 자리가 있으면 재단에서 좀 채용도 해주시고. (학계 전문가F)

또 본인들의 또래들, 본인들의 또래에서 약간 선배들을 저희는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갓집을 가든 무슨 상을 당하든 무슨 좋은 일이 있던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한테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은 본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선배들이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속 가족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계속 만나고 공적인 공간에서도 계속 만나면서 정말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거를 조금 지원하는 방식의 모임들을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게 이제 바람개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주로는 선배 집단들이 제일 효과가 많았습니다. (현장 전문가A)

④ 개별 기관 차원을 넘어선 접근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단위들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초점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자립지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름다운재단에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열여덟 어른 캠페인 덕분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이 돼가지고 종합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촉발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민간의 역할로서 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슈를 확 제기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도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캠페인들이 좀 기획되면 좋겠다. (학계 전문가F)

사회적인 인식이 보호 대상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냥 보호자가 있는 그러니까 아동을 보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보는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략) 쉼터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지원에 대한 것들의 국민적 합의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관심 사회적 관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아동 입장에서 본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좀 보고 그 칸막이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들을 좀 없애는 노력들이 공공이나 민간이나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거든요. (현장 전문가A)

7.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 방향 제안

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착지원금과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장학금, 주거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더불어 이들은 이러한 자원이나 지원 정보가 불충분하고 불공평하게 제공된다고 하였다(박혜지·이정화, 2020; 정익중·김주현, 2019).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경제적 지원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나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선폰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체계별, 보호유형별 자립지원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이상정, 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체계 외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보호유형별로 지원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와 소년원을 퇴소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정선욱 외, 2019).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금지원은 필수적이며, 지원의 양과 기간을 충분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교육 지원이나 심리 지원, 사회적 지원의 결합이 꼭 필요하다(정선욱, 2022).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이들의 자립생활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호체계별로,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장애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일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민간의 역할은 어쩌면 ‘계속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은 앞서 제시한 아동보호체계 외 청소년보호체계나 소년보호체계상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가장 빠르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화하는 일은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면서 지금까지 지속해 온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자립준비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중 이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관계망 부족은 이들의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정 외, 2019; 정선영·김연정, 2020). 이들은 자립지원기관과 같은 공적인 자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선후배와 같은 사적 자원망도 부족한 편이다(김연정·정선영, 2022; 이상정·김지민, 2020).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립에 대한 서비스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립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즉, 관계를 끊어내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반대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확장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단시간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호종료 후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부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며, 당연히 새로운 관계를 발굴해 연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수월하고 효과도 크다. 즉, 연결되고 유지되어야 할 사람은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와 에픽 오하나(Epic Ohana)의 청소년 씨클(Youth Circle) 프로그램의 강점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집단회의는 원가정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지체계가 모여 아동의 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와 복귀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1980년 뉴질랜드에서는 「오랑카 타마리키 법(Oranga Tamariki Act)」과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Well-being Act)」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였다. 가족집단회의는 아동의 가족구성원을 폭넓게 확장하여 아동을 위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아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가족집단회의는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 코디네이터가 소집하여, 이때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절차에 대해 가족과 협의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정보 제공자로 구분하며, 당사자인 아동과 부모, 보호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 아동의 가족구성원, 변호인, 옹호자 등은 결정권자에 포함된다. 회의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어려움과 욕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전문가와 공유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만의 시간으로, 가족집단은 정보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할 초기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에는 가족의 계획을 사회복지사와 전문가 집단에 제시하고, 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회의의 과정은 비밀이 유지되지만, 합의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한다(Merkel-Holguin, Cooke, Evans, & Beck, 2020).

청소년 씨클은 하와이 보호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 호주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념화하고 실천 방식은 해결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보호가 종료되는 14세부터 26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장하고 활용하도록 한다(Epic Ohana 홈페이지, 2023.11.5. 검색). 청소년 씨클에는 청소년 당사자와 다양한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활동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지지자들이 조언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력한다. 이때 이들의 강점과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두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한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모든 지지자가 모여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Epic Ohana, 2021).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 탐색 교육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멘토링의 경우도 학습이나 문화 체험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호기간 중에만 진행되고, 보호종료 후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자립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립 계획 수립 시 생활이나 학업, 취업, 주거, 건강, 지지체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해야 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자립 과정에 당사자의 원가족과 대리보호자, 친구 등 퇴소 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참여시켜 퇴소 후에도 지지체계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상정, 2018).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을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멘토링 사례를 적용한다면, 보호기간부터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멘토를 연결하되 이러한 멘토는 원가정 복귀나 퇴소 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아동의 원가족과 친인척, 동료, 교사 등 지역사회의 인력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담인력이 담당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과 유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사업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두고, 각

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교육·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각 시설 담당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계를 넘나들기

아름다운재단은 현금·현물·서비스 제공을 혼용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지원 주체의 경계 또한 깨는 작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시도하는 차원, 혹은 역할 나누기를 넘어서서 공공의 정보력과 권한, 민간의 자원과 융통성을 모두 활용하는 ‘완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자립지원 사업은 매우 산발적·분절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만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 간의 조율과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는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중복되고 누락된 영역의 확인과 개선, 역할 분담, 현안에 대한 공동 이슈 파이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데 효과적인지 지속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면, 지역에서 자립청년을 돕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 이후 5년이 지난 청년 가운데도 아직도 심리 정서적으로 어렵고 지지체계가 빈약한 청년들을 보살피는 지역 기관들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슈퍼비전 제공 등을 통해 실천가를 지원하는 일도 그중 한 가지일 것이다. 또한, 지원 이후 실천의 효과를 다시 공유함으로써 이 일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자립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아름다운재단이 기여하는 방법이다.

참고 문헌

- 강현주·홍나미·박주혜.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청사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정몽구재단·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민일보. (2022.12.4.). 끝내 극단 선택한 자립준비청년 ‘3년간 최소 13명’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737908>
- 국회입법처. (2023).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전담지원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김범구. (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자료집.
- 김선숙·조소연·이정애·권지성·안재진·정선욱.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아동권리보장원·아름다운재단.
- 김연정·정선영. (2022).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준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1): 93-120.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주혜·홍나미·강현주. (2022).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박혜지·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1), 65-80.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a). 2023년 자립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b). 2023년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북.
- 사회보장정보원. (2022).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5). 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7). 201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4.)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 이상정. (2018). 미국의 아동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7, 94101.
- 이상정. (202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6), 22-36.
- 이상정·김지민. (2020a). 가정외보호 자립준비대상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40(4), 115-148.
- 이상정·김지민·류정희·허은영·박세경·임성은·김지연·황정하. (2020b).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류정희·김지연·김무현·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정민·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형섭·정선욱. (2016).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한국아동복지학(56), 69-99.
- 전민경. (2021).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향신문. (2019.7.22.). “‘우범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죄짓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세워 처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222207005.
- 정선영·김연정. (2020). 인천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0(6), 1-90.
- 정선욱. (2022). 아동보호체계에서 바라본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이슈와 과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료집.
- 정선욱·강현주·정익중·김진숙.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 정익중·김주현. (2019). 가정위탁종결청소년의 자립경험. 한국가족복지학, (64), 131-163.
- 조소연·황혜신. (2023).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현장에 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75(3), 319-348.

- 최정규·강정은·김수정·박보희·전미아·정병수·현소혜. (2018)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사단법인 두루.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2). 쉼터 밖 탈가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해외사례. 청소년쉼터 30주년 맞이 국회토론회 자료집.
- EpicOhana 홈페이지. (2023.11.5. 검색).
<https://www.epicohana.org/ohana-connections>.
- Epic Ohan. (2021). Youth Circle.
<https://www.youtube.com/watch?v=lzZH6z1e9Z4>
- Merkel-Holguin, L., Cooke, A., Evans, D., & Beck, K. L. (2020). The New Zealand family group conference confidentiality protections: lessons learned and an application in US child welfare systems. Family Court Review, 58(1), 109-125.



“쉬는 법을 몰랐어요.
지원사업을 참여하면서 쉼표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 소감 中

“청년들의 실패할 권리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김수진, 김지수, 정필현 심사위원

● 허술하게 쓴 신청서라도 여러 번 읽는 이유는...

Q. 오랫동안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심사에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필현 심사위원(이하 ‘정필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지원사업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심사한다라는 느낌보다 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수 심사위원(이하 ‘김지수’) 여러 해 심사를 했는데, 예전에 만났던 신청자들은 더 많이 우울해했어요. 요즘에는 면접 보면서 웃고 나가기도 하죠. 사실 지원사업 신청자는 대부분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야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사가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해요.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환하게 웃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하곤 해요.

Q.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지수 저도 늘 딜레마에 빠져요. 교육비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것 같은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필현 여러 장에 많은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도 막상 면접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서류는 잘 못 썼어도 면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는 면접자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Q.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만의 장점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김지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라이프스타일과 생각, 욕구가 다양해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런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정필현 아름다운재단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남다르고요.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김수진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봐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심리적 단절감도 커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계속 응원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사람마다 행복한 삶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걸 생각할 기회가 없는데 지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생각해보면 좋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재단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심사과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성적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절차,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희망을 발굴하려는 태도가 재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심사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아름다운재단 심사위원 3명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인간의 존엄을 사 버릴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여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구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도 바뀌고, 이런 지원사업이 사라져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없을 자신의 독특한 삶을 향해 어렵더라도 꼭 나아가시길 바라요.

정필현 오늘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여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희망을 가지면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수진 사실 저도 몇 번 실패나 좌절을 겪고 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연 될까’ 생각했어요. 선뜻 용기가 안 나고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돼?” “왜 꼭 이래야 하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자기자신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그렇게 계속 반문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돕겠지만, 그러려면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이죠.

글. 박효원 | 사진. 이현경



왼쪽부터 정필현, 김지수, 김수진 심사위원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트리플라잇(주) triplelight 

연구수행기관 

트리플라잇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직이 임팩트 관점의 전략을 내재화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임팩트 측정·관리·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www.triplelight.co / impact@triplelight.co)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5
2. 연구 방법 및 절차	116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1) 내부 현황 진단	117
(2) 사업 임팩트 진단	120
(3) 사업 임팩트 분석	127
4. 임팩트 하이라이트	
(1) 분석 종합 및 논리모델	151
(2) 임팩트 내러티브	154
5. 연구 한계 및 제언사항	155
6. Appendix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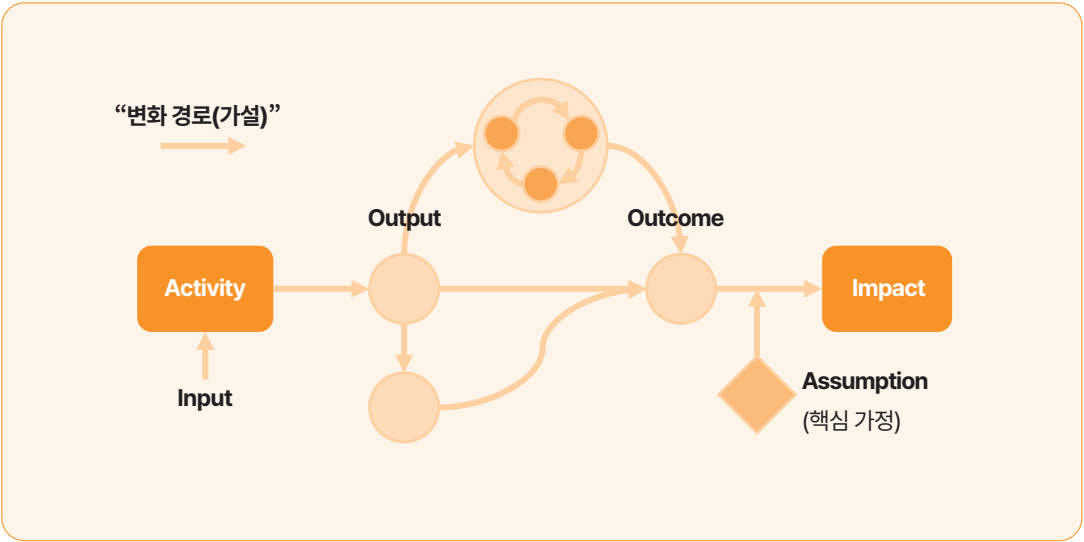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2019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하 캠페인)이 3개 시즌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캠페이너는 물론,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캠페인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는, 캠페이너로 참여한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청년 사업과 달리 달성해야 하는 특정 목표나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캠페이너들이 주제에 맞는 사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방성은 다양한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강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의도한 성과를 넘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까지 함께 분별하여 관리·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향후 사업의 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을 조정하여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높고 유효한 변화를 식별하여 그 임팩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캠페인이 영향을 미친 변화(임팩트)를 개입과 성과의 인과성의 초점을 두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¹⁾을 통해 분별하고 그 과정을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방법론으로 진단하여 향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언하고자 했다.

[그림 1] 변화이론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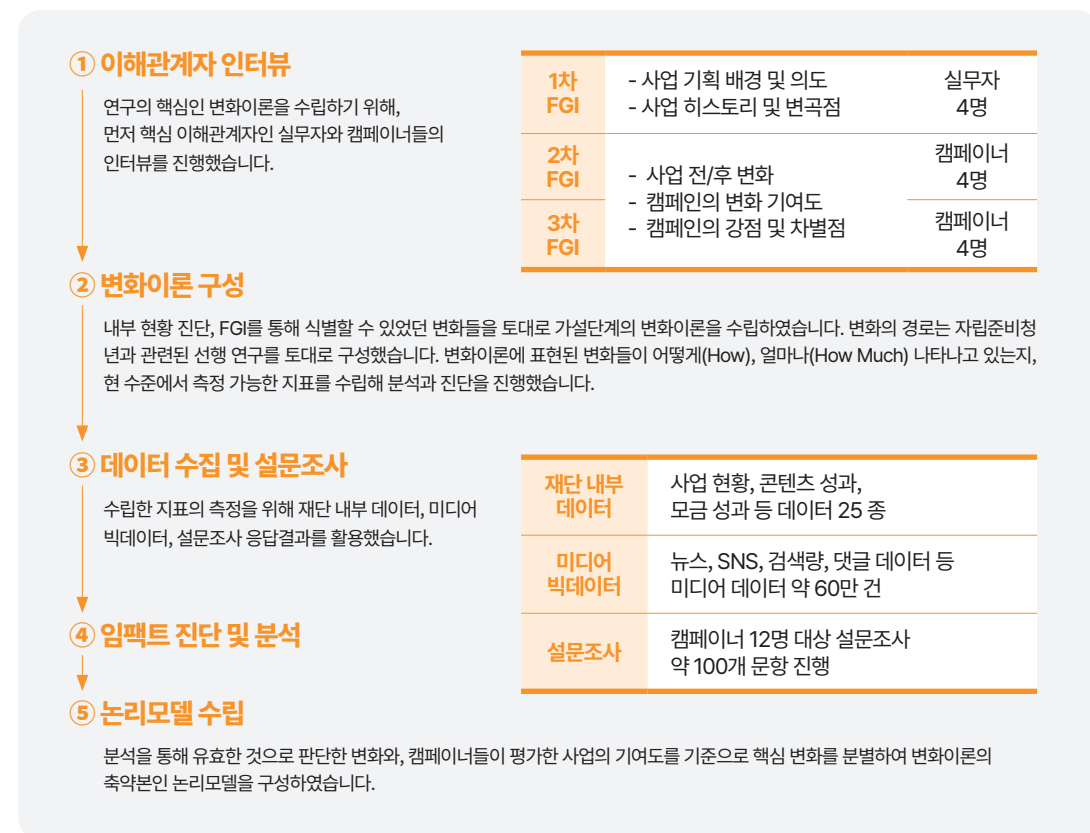
1) 변화이론은 일반적으로 Impact(임팩트), Outcome(장·단기 성과), Output(결과), Activity(활동·사업), Input(자원 투입)의 다섯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임팩트는 변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Outcome은 임팩트가 창출되기 위한 전제조건(Pre-condition)을 설명한다.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정(Key-Assumption) 정의 및 진단이 함께 진행된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분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됐다.

1. **(이해관계자 인터뷰)** 캠페인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구체적인 변화의 경로와 깊이를 확인했다.
2. **(변화이론 구성)** 확인된 변화와 그 경로를 구조화하기 위해 가설 단계의 변화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량·정성적 연구 자료와 FGI 분석 결과를 가설 수립 단계의 논거로 활용했다. 이후, 변화이론에 표현된 가설들이 어떻게(How), 얼마나(How Much) 일어났는지 진단하기 위해 현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범위와 지표를 수립해 분석을 계획했다.
3. **(데이터 수집 및 설문조사)** 각각의 경로와 가설을 진단하기 위해 재단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캠페이너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 **(임팩트 진단 및 분석)** 수집한 정량 데이터와 FGI 응답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의 변화 가설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5. **(논리모델 수립)** 임팩트 진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임팩트 경로를 설정하고, 시점 3까지 진행된 캠페인의 임팩트를 논리모델로 정리했으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연구 개요도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임팩트

(1) 내부 현황 진단

사업 개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당당하게 자신을 공개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난 3개 시즌 동안 13명의 당사자가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페이너’로서, 총 17개의 당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업에 참여한 캠페이너들은 대중 및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재단은 특정 목표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토대로 캠페이너들이 사업 활동과 그 안에 담을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활동

① **당사자 프로젝트** - 캠페이너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로, 본 연구는 특성에 따라 ‘인식 확산 및 개선’, ‘정보 생산 및 확산’, ‘교육 및 멘토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확장’ 등 4가지로 분류했다.

<표 1> 당사자 프로젝트 시즌별 현황			
시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주요 주제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프로젝트 주제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삶을 알리다	자립준비청년으로 겪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영향을 미디어에서 찾다	자립준비청년 이슈 스터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와 방향을 보여주다
참여 캠페이너	3명	6명	7명
프로젝트 주요 내용	[신선 프로젝트] - 당사자 인터뷰	[신선 프로젝트] - 당사자 미디어	[이진명 프로젝트] - 음원 발매
	[전안수 프로젝트] - 굿즈 제작	[허진이 프로젝트] - 보육원 강연	[신선 프로젝트] - 1:1 방문교육
	[박도경 프로젝트] - 연극 시나리오 집필	[손자영 프로젝트]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박강빈 프로젝트] - 자립 100days
		[박한수 프로젝트] - 패션 제품 디자인	[강영아 프로젝트] - 일촌 파도타기
		[주경민 프로젝트] - 캐릭터 디자인	[조규환 프로젝트] - 댕큐 버스킹
		[안연주 프로젝트] - 동화책 제작	[허진이 프로젝트] - 고민 팟캐스트
			[손자영 프로젝트] - 미디어 캐릭터 시상

<표 2> 당사자 프로젝트 특성별 현황

시즌	프로젝트 명	인식 확산 및 개선	정보 생산 및 확산	교육 및 멘토링	커뮤니티/네트워크 확장
Pre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 협업	○			
	당사자 인터뷰	○			
1	원배지 굿즈	○			
	연극 열여덟 어른	○			
	당사자 미디어	○	○		○
2	보육원 강연		○	○	○
	패션 제품 디자인	○			
	캐릭터 디자인	○			
	동화책 제작	○			
	힙합 음원	○			
	1:1 방문 교육	○		○	
	자립 100Days	○			○
	일촌 파도타기	○	○		○
3	땡큐 버스킹	○			
	고민 팟캐스트			○	○
	미디어 캐릭터 시상	○			
계		15	3	3	5

② 애드보커시 콘텐츠 확산 -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당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작된 콘텐츠와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메인 내러티브를 담은 콘텐츠를 재단의 사이트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

<표 3> 콘텐츠 형태별 발행 건수 및 주요 사례

콘텐츠 형태	건수	주요 사례
웹 페이지	22	- 캠페이너 프로젝트 페이지 - 미디어 인식 개선 인포그래픽 - 캠페인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뉴스레터	14	- 재단 자체 뉴스레터
블로그	270	- 재단 네이버 포스트, 카페 등
SNS 게시물	479	- 재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열여덟 어른’, ‘백우리’ 인스타그램
언론 기고문	12	- 캠페이너 기고문
팟캐스트/라디오	231	- 네이버 오디오 클립 - KBS 라디오 출연

영상	80	- ‘열여덟 어른 TV’ 유튜브
웹툰	53	-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네이버 포스트
도서 및 책자	2	- ‘나의 어린, 고래에게(안연주)’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북(손자영)’
음원 발매	1	- ‘토이스토리(이진명)’
굿즈 및 제품	5	- ‘원배지’(전안수)
강연 및 행사	9	- ‘열여덟 어른’ 투자 설명회(허진이)
공연	4	- ‘땡큐 버스킹(조규환)’
기타	3	- 자립정보 리플렛
총합	1,185 개	* 캠페이너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계수

③ 기관/기업 연계 사업 - 정부, 기업, 공공기관, 공영방송, 미디어 등과 협력하여 당사자 프로젝트와 자립준비청년의 삶을 알렸다.

[그림 3] 주요 외부 협업 및 방송 출연



청와대 ‘보호종료아동과의 만찬’ 참여



미디어 <닷페이스>와 협업 콘텐츠 제작



KBS <거리의 만찬> 캠페이너 출연



스타벅스, 가수 ‘선’과 함께하는 두런두런 마라톤

(2) 사업 임팩트 진단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의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및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을 통한 변화의 경로를 확인하고, 공통적인 응답을 항목별로 코딩하여 변화이론에 적용하였다.

사업 실무자 및 캠페이너 그룹 인터뷰(FGI)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실무자 그룹 4인, 캠페이너 13명 중 8명을 FGI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FGI 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실무자, 2~3차는 캠페이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무자들에게는 사업 기획 당 시 의도와 상황, 주안점과 원칙 그리고 사업 진행 중 일어난 히스토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및 운 영한 캠페이너들에게는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본인, 주변 관계, 사회의 변화 등을 물었다.

<표 4> 1차 FGI 대상자(1차, 실무자) 목록

이름 및 직급	이해관계자 분류	질의 내용
이00 파트장	사업 기획 및 운영 담당자	
김00 매니저	사업 총괄 기획자	- 사업 기획 의도
서00 매니저	사업 기획 및 운영 담당자	- 사업의 주안점과 원칙
유00 매니저	사업 기획 및 운영 담당자	- 사업 히스토리 및 변화

<표 5> 2 & 3차 FGI 대상자(캠페이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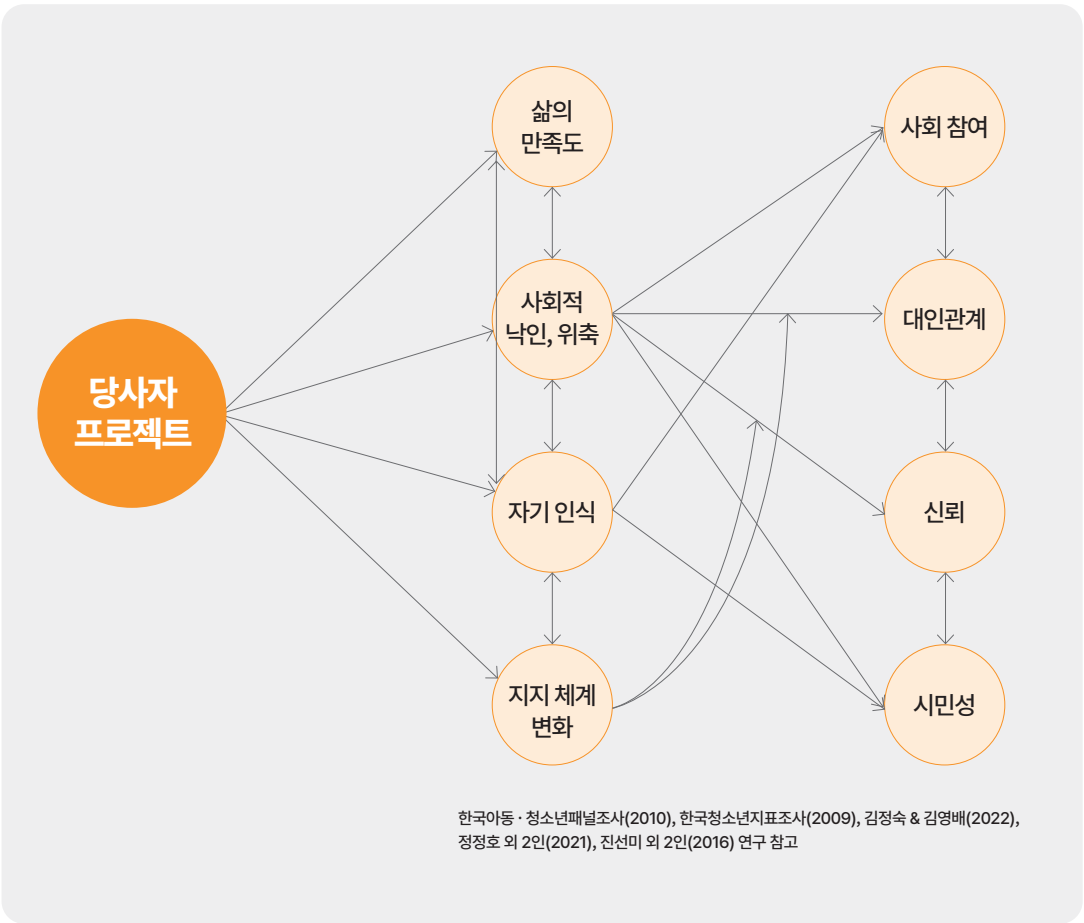
이름	이해관계자 분류	참여 기수	질의 내용
신선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1~3	
전안수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1	
박강빈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3	- 사업 전/후 사회, 본인, 주변 이해관계자의 변화
이진명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3	-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변화 기여도
조규환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3	-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의미
박한수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2	-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차별점 및 강점
안연주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2	
손자영	캠페이너(자립준비청년)	시즌 2~3	

FGI 결과 요약

FGI를 통해 캠페인 사업의 핵심 가치와 변곡점, 원칙 등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 하였다.

첫번째는 ‘캠페이너의 변화’로, 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을 온전히 직면한 캠페이너들에게 나타난 다각적 변화를 말한 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캠페이너들의 변화를 삶의 만족도, 자기 이해,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시민성,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성, 대인 신뢰감 등의 변수를 정의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림 4] ‘캠페이너의 변화’ 연구 구조도



두번째는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로, 이는 캠페이너들의 활동과 대중의 반응이 원동력이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당사자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마지막은 ‘사회의 변화’로, 캠페이너를 비롯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를 통해 대중의 인식이 전환되고, 공감과 참여가 확산 되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한다.

<표 6> 1차 FGI 결과 요약		
주제	항목	주요 응답 내용
사업 기획	문제 의식(배경)	- 기존 애드보커시 방식(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중심의 프로젝트 부재
	사업 목적	- 당사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스스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를 의도하거나 정하지 않고 진행
사업 핵심가치	주안점	- 당사자들이 행복한 캠페인 사업
	원칙	- 당사자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해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물질· 사회적 자본을 최대한 연계
사업 주요 히스토리	주요 변곡점	- 신선 캠페이너가 처음 함께하겠다고 하였을 때 - 2, 3기 모집에 많은 당사자들이 지원하였을 때 - 주요 언론과 방송에 캠페이너들이 출연하여 캠페인이 대중에게 확산되었을 때 - 캠페이너들이 정책위원으로 발탁됐을 때
변화의 종류와 방향 (상위 항목)	캠페이너들의 변화	- 살아오며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게 됐다
	사회의 변화	-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중대하기 다루기 시작했다 - 자립정착금 같은 지원 정책 변화를 더욱 빠르게 앞당겼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동정심을 응원과 지지로 바꿀 수 있었다 -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 정부, 기업, 다른 비영리 등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사업들이 많아졌다
	주변 당사자들의 삶의 변화	- 자립준비청년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졌다 -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표 7> 2~3차 FGI 결과 요약		
주제	항목	주요 응답 내용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차별점	- 정해진 틀 없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속 물어봐 주며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대화가 많았다 - 사업 자체보다 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 그러다 보니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프로젝트가 됐다 - 당사자들이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끝까지 기다려줬다 -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다. 번아웃된 적이 있는데, 연락이 안될 때도 강요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줬다 - 실패와 실수를 포용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 사업을 담당하는 간사님들이 당사자와 당사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다. 그래서 신뢰감, 안정감을 항상 느꼈다 - 당사자들이 용기 내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 아픔을 조명하지 않고, 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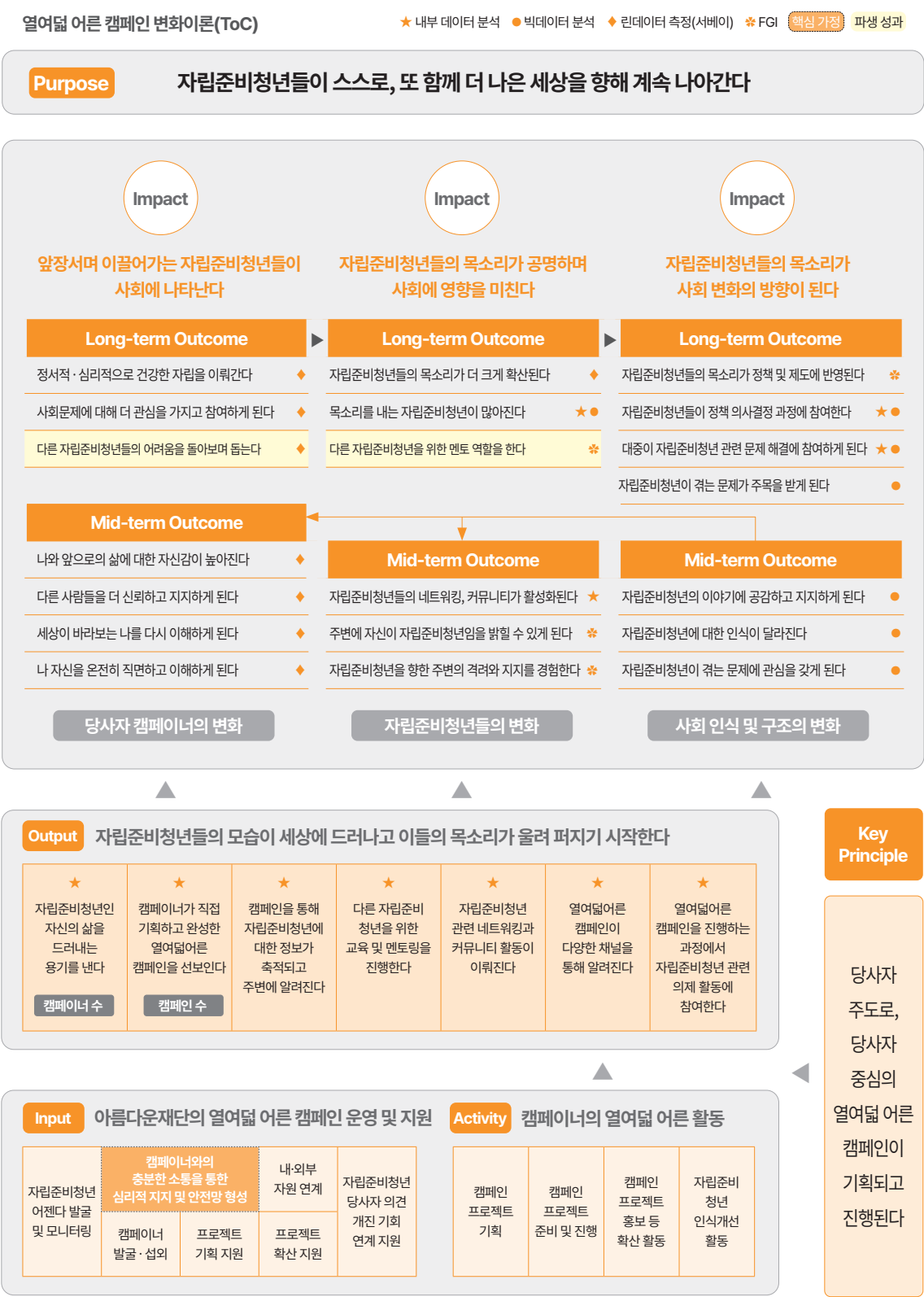
주제	항목	주요 응답 내용
	참여 후기	- 나와 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 -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 - 책임감과 대표성이 생겨 부담이 되기도 한다. 요새도 발언을 조심하게 된다 -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 - 나의 삶의 코어(중심)가 되는 경험이었다
	참여 계기	- 다른 캠페이너들이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 - 앞선 캠페이너들이 캠페인 이후에도 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나를 공개해도 괜찮겠단 생각을 했다 - ‘내 활동으로 인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 어떻게 나를 밝히고 표현할지 고민이었는데, 캠페인을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삶의 변화	자신에 대한 인식	- 내 존재 자체가 가치있는 사람이란 것을 배웠다 - 나의 진짜 욕구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다운 게 무엇인지 찾게 됐다 - 직업도 정할 수 있었다 - 스스로를 직면하게 된다.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를 더 잘 정리하게 됐다. - 나의 상황과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 -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 응원과 격려를 받으니까 오히려 자립준비청년이란 것에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됐다 - 나도 뭔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인적 믿음이 생겼다 - ‘내가 이것도 했는데 뭘 못하겠어’란 생각이 든다
	사회에 대한 인식	-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보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됐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사자로서 더 잘 설명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이 많아 화가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잘 표현하고 풀게 됐다 - 편견으로 인해 불안감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다
	사회적 관계	- 다른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다. 돕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생긴다 -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 -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됐다 -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 - 도움을 청하는 연락이 많이 받게 된다 - 나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역량	- 자기 표현이 자유로워졌다 - 의사소통과 협업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주제	항목	주요 응답 내용
대중의 인식 변화	대중의 인식 변화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용어와 명칭도 많이 바뀌었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 대학생들이 조별과제로 인터뷰를 많이 하러 온다
사회의 변화	주변 당사자들의 삶의 변화	- 응원과 지지를 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 내가 당사자란 것을 몰랐던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거짓말을 모르는 척 넘어가주고 이해해주더라
		- 다른 여러 조직의 사업에서 ‘당사자 인터뷰’가 중요해졌다
정책의 변화	주변 당사자들의 삶의 변화	- 정책이 바뀌는 것은 부수적인 것 같고, 결국 당사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이 크다고 느낀다
		- 캠페이너처럼 사회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자기를 고백하는 주변 당사자들이 많아졌고 연락도 많이 온다.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
정책의 변화	정책의 변화	- 우리의 활동을 보거나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의미와 에너지를 전달한 것 같다
		- ‘나도 도움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졌다
정책의 변화	정책의 변화	-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책이 바뀌고 있다
		- 간담회를 가면 우리를 당사자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마음 아픈 존재로만 봤다면 이제는 한 명의 전문가로 봐준다

주요 변화 가설 수립 및 분석 방안 설정

내부 현황 진단과 FGI를 통해 식별할 수 있었던 변화들을 토대로 가설 단계의 변화이론을 수립하였다. 변화이론에 표현된 성과 (Outcome)가 창출되는 것을 가설로 수립하고 해당 변화들이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나타났는지 진단하기 위해 핵심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제공한 내부 데이터와 미디어 빅데이터,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림 5] ‘열여덟어른’ 캠페인 변화이론



<표 8> 캠페인을 통한 캠페이너의 변화

가설 No.	가설 내용	진단 방안	영향 가설
A-①	[자기 이해,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 나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고 이해하게 된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④, ⑤
A-②	[사회적 낙인, 위축]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⑤
A-③	[대인 관계, 공동체성]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지지하게 된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⑤, ⑥
A-④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⑧
A-⑤	[선순환]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돕는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⑥	[시민성]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설문조사, FGI 결과	
A-⑦	[정서적·심리적 자립] 정서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이뤄간다	설문조사, FGI 결과	

<표 9> 캠페인을 통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

가설 No.	가설 내용	진단 방안	영향 가설
B-①	[인식] 자립준비청년을 향한 주변의 격려와 지지를 경험한다	FGI 결과	B-②,③,④,⑤
B-②	[태도] 주변에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	FGI 결과	
B-③	[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들의 네트워킹,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내부 데이터 분석	
B-④	[Pay it forward] (파생적) 다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한다	FGI 결과	
B-⑤	[자기 고백] 목소리를 내는 자립준비청년이 많아진다	FGI 결과, 빅데이터 분석	B-⑥
B-⑥	[영향력]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확산된다	설문조사	

<표 10> 캠페인을 통한 사회인식 및 구조의 변화

가설 No.	가설 내용	진단 방안	영향 가설
C-①	[관심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C-③
C-②	[공감, 지지]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A-②,③,④ B-①,②
C-③	[간접적 참여]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확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빅데이터 분석	A-②,③,④ B-①,②
C-④	[의제 중대성]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C-⑤	[직접적 관여] 대중이 자립준비청년 관련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내부 데이터 분석	C-⑦
C-⑥	[당사자 중심성]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내부 데이터 분석	
C-⑦	[정책 구조 변화]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내부 데이터 분석	

(3) 사업 임팩트 분석

A. 캠페인을 통한 캠페이너의 변화

캠페인을 통해 나타난 캠페이너의 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캠페이너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한, 캠페이너들과의 FGI를 통해 얻었던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 시 참고했다.

가설 A-① 캠페이너들이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고 이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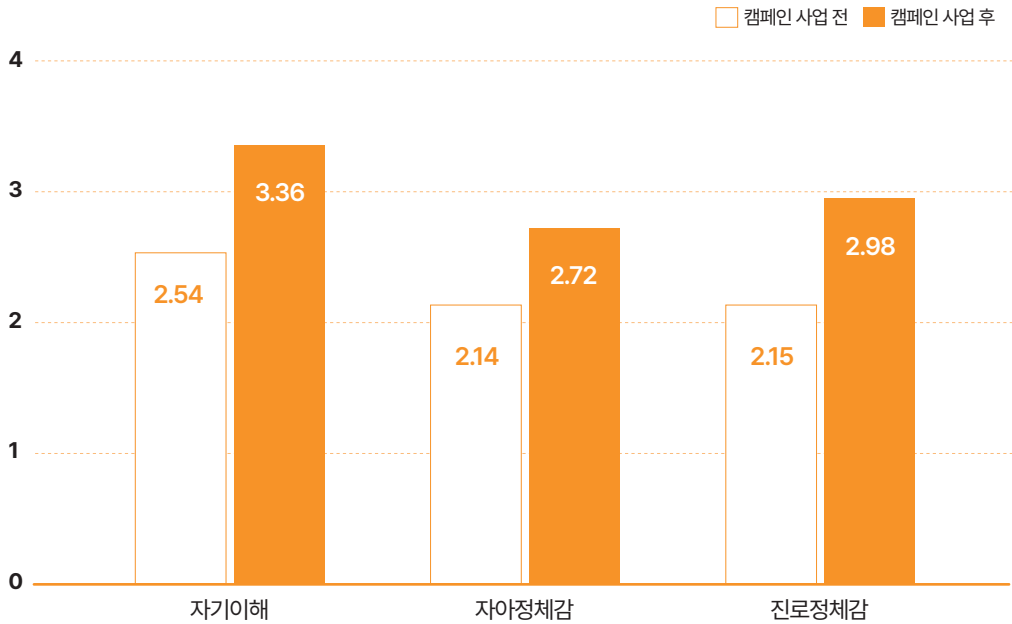
캠페이너들은 FGI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사자 프로젝트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관심사, 취향,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캠페이너들은 진로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캠페인 이후 결정한 진로를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 “캠페인 전보다 저를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는 듯해요. 뭘 좋아 하는지 깊게 물어봐 주니 고민하게 되고...(중략) 그게 프로젝트로 이어졌죠.”

(박강빈) “포장된 모습을 좋아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젠 나다움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직업도 정했고, 그 과정(당사 자 프로젝트)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 연구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캠페이너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된 정도가 증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이해’, ‘자아 정체 감’, ‘진로 정체감’을 지표로 활용²⁾했다.

[그림 6] 캠페인 전, 후 캠페이너의 인식 비교(자기 이해,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



항목	자기 이해(점)	자아 정체감(점)	진로 정체감(점)
캠페인 사업 전	2.54	2.14	2.15
캠페인 사업 후	3.36	2.72	2.98
변화량	0.82	0.58	0.83

2) 김지경, 안선영, 이계오, 이미리, 김성식, 김명희, ... & 오지연. (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KYPs) VII: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5.

캠페이너들의 자기 이해,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은 캠페인 사업 이후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사업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자기 이해(3.36점)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 지 안다’, ‘내가 어떤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안다’와 같은 제시문이 포함되었다. 캠페인 사업 전·후 변화가 가장 컸던 항목은 진로 정체감(0.83점 상승)으로 설문에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정했다’,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 등의 제시문이 포함됐다.

캠페이너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의 역량과 가치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과 기호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미래 진로에 대 한 계획에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A-②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캠페이너들은 캠페인 참여 전, 직접적인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춘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캠페인을 통해 사회의 편견이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립준비청년 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경험한 캠페이너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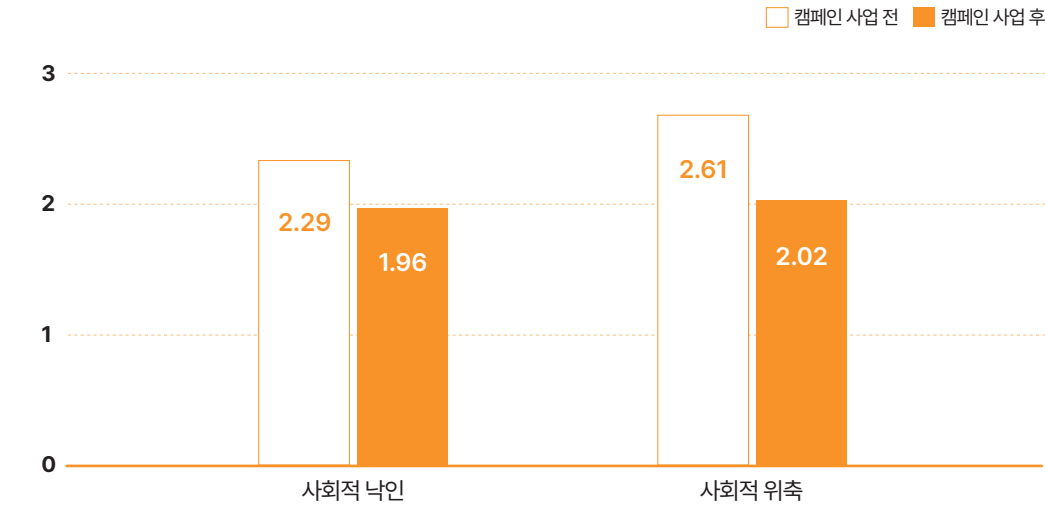
(손자영) “직접적 차별의 경험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해 소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중략)...저도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는데 (캠페인 이후) 멋있다고 이 야기해주니까 안도가 되면서 제 삶이 어느 순간 딱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박한수) “막말로 ‘너 부모 없어서 그래’란 느낌으로 편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닫혀있었어요. 캠페이너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까지도 ‘내가 정말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캠페인 이후) 한 순간에 정체를 오픈하면서 내 자신의 죄책감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봤는데, 제가 한 프로젝트에 대한 응원이 많았던 것 같고...(중략)...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정정호 외(2021)³⁾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정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위축’을 세 우고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세상의 인식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정도를 ‘사회적 낙인’, ‘사회적 위축’ 두 가지 지표로 확인하였다.

3) 정정호, 좌현숙, 김지선. (2021).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1(13), 1-246.

[그림 7] 캠페인 전, 후 캠페이너의 인식 비교(사회적 낙인, 사회적 위축)



항목	사회적 낙인(점)	사회적 위축(점)
캠페인 사업 전	2.29	2.61
캠페인 사업 후	1.96	2.02
변화량	-0.33	-0.59

캠페이너들의 사회적 낙인(‘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 ‘사회는 나에게 대한 편견이 있다’), 사회적 위축(‘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 한다’) 정도는 캠페인 사업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A-③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지지하게 된다

캠페이너들은 캠페인 이후 타인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의 요소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김정숙과 강영배(2017)⁴⁾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일반 청년들에 비해 공동체성(이웃을 위해 개인의 자원 투입 의향)과 대인 신뢰(타인에 대한 신뢰감)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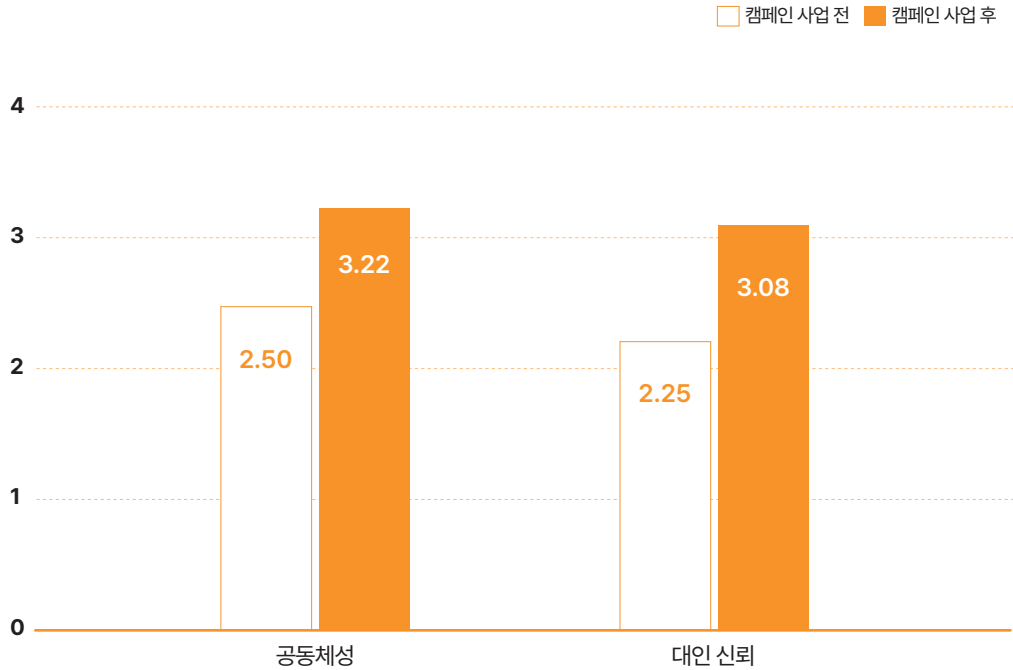
캠페인을 통해 타인을 많이 접하고, 이들을 통해 지지와 공감 그리고 지원을 받은 캠페이너들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자신이 받았던 지지와 지원을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나누면서 만족감을 느꼈으며, 향후에도 이런 선순환을 이어갈 의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4) 김정숙, 강영배. (2017). 20 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48.

(신선) “캠페인을 하면서 좋았던 건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돕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요. 자기 이야길 못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온라인에서 질문에 응답을 좀더 해주며 만나요.”

공동체성과 대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숙과 강영배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도구를 활용하였다. 캠페인 사업 후 점수가 더 높은 항목은 공동체성(3.22점)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와 같은 제시문이 포함되었다. 캠페인 사업 전·후 변화가 더 큰 항목은 대인 신뢰(3.08점, 0.83점 상승)로 설문에는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림 8] 캠페인 전, 후 사회에 대한 인식 비교(공동체성, 대인 신뢰)



항목	공동체성(점)	대인 신뢰(점)
캠페인 사업 전	2.50	2.25
캠페인 사업 후	3.22	3.08
변화량	0.72	0.83

가설 A-④ 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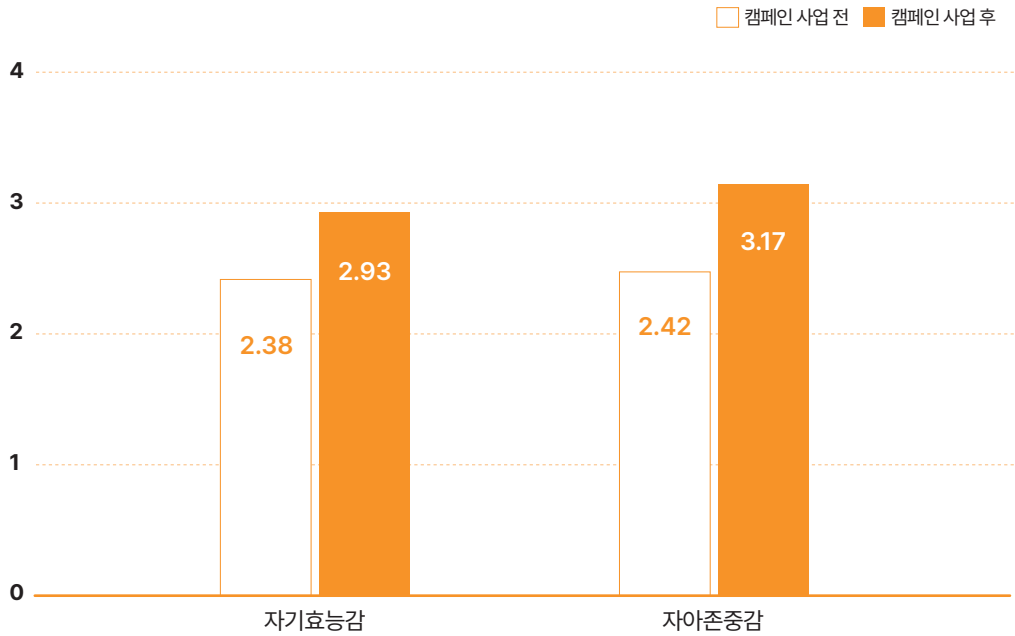
캠페인 이후, 캠페이너들의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FGI 분석 결과, 캠페이너들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1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박한수) “캠페인 하면서 그걸 발판으로 내가 많이 달라지고 프로젝트를 1년간 완성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뭘 못 하겠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손자영)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뭔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인적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정호 외(2021)가 활용한 ‘자기 효능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가 활용한 ‘자아 존중감’을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2.93점)은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와 같은 제문이 포함되었다. 자아 존중감(3.17점, 0.75점 상승)은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설문 항목 중 하나이다. 설문에는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등의 제시문이 포함되었다.

[그림 9] 캠페인 전, 후 사회에 대한 인식 비교(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항목	자기 효능감(점)	자아 존중감(점)
캠페인 사업 전	2.38	2.42
캠페인 사업 후	2.93	3.17
변화량	0.55	0.75

가설 A-⑤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돕는다(파생적)

캠페이너들이 직접 지지체계로서 역할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캠페이너들은 사업 이후 본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당사자들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 이후 실제로 도움을 주었던 주변 자립준비청년의 누적 수가 평균 17명(총 205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순환의 증가는 캠페인 사업의 직접적인 인과성과 의도성이 낮아 핵심 변화가 아닌 파생적 변화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변화이론 내에서 캠페이너의 변화를 통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량적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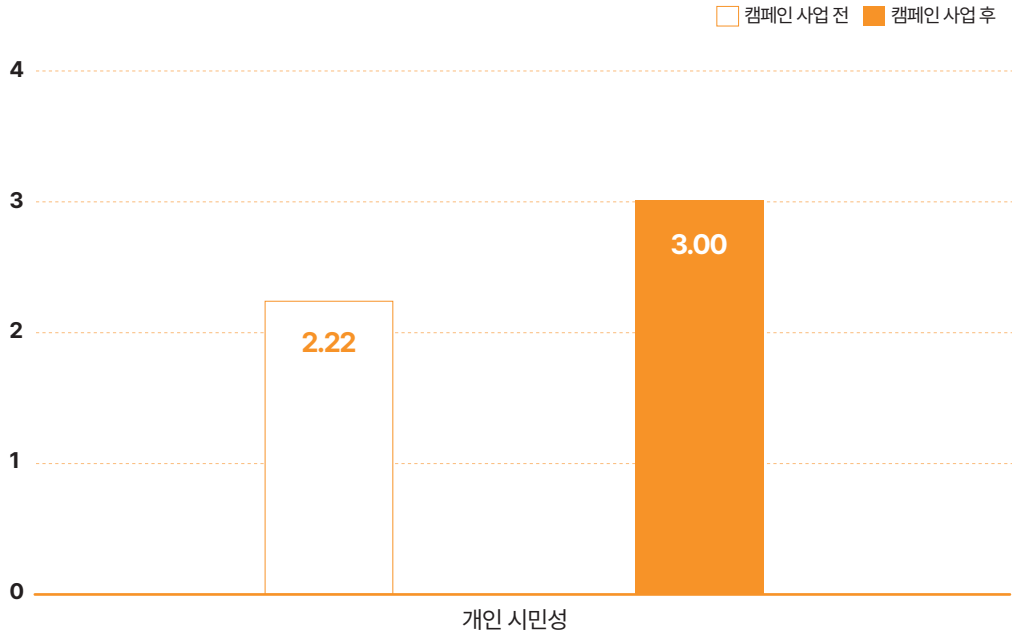
가설 A-⑥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캠페인 사업 이후, 캠페이너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자기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역량”을 의미하며, 민주적 권리 의식과 정치적 이슈를 포함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진명) “혼자만의 생각이나 삶 안에 자립준비청년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만의 시야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손자영) “용기가 안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모두가 내지 않아도 대신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림 10] 캠페인 전, 후 캠페이너의 인식 비교(개인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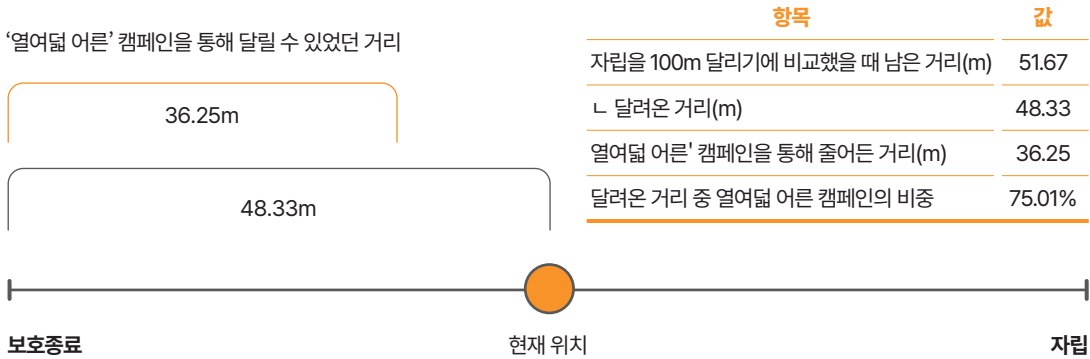
항목	개인 시민성(점)
캠페인 사업 전	2.22
캠페인 사업 후	3.00
변화량	0.78

시민성은 김정숙과 강영배(2017)가 사용한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항상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의 제시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참여도(‘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항상 참여한다’, 0.92점 상승)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가설 A-⑦ 정서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이뤄간다

캠페이너들이 인지한 자립 역량의 증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립으로의 변화를 100m 달리기에 비교하여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리를 물었다. 분석 결과, 캠페이너들은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의 자립을 이룬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여태까지 달린 거리(48.33m)의 75% 수준(36.25m)을 달릴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11] 캠페인 전, 후 캠페이너의 인식 비교(심리·정서적 자립)



B. 캠페인 사업을 통한 자립준비청년의 변화

캠페인을 통해 나타난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캠페이너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 FGI 결과, 재단 내부 데이터(사업 결과 보고서, 캠페인 콘텐츠 확산 채널 목록 등)를 활용했다.

가설 B-① 자립준비청년을 향한 주변의 격려와 지지를 경험한다

캠페이너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다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도 위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이너들은 FGI를 통해 유튜브 댓글을 통한 격려와 지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를 다른 자립준비청년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험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손자영) “저희 영상에 대중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프로젝트에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지니까 그게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가설 B-② 주변에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캠페이너들의 공개적인 활동과 대중의 긍정적 반응을 보며 격려와 지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캠페이너들은 FGI를 통해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임을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얻

게 됐다’고 이야기한 주변 당사자들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본인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자기 고백’의 강력한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적인 검증이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신선) “자립준비청년인 것을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당사자들이 많았어요.”

(손자영) “자기를 고백하는 주변 당사자들이 많아졌고 연락도 많이 와요. 누군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괜찮은 것을 보니까,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아요.”

가설 B-③ 자립준비청년들의 네트워킹,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파생적 변화)

캠페인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캠페이너들은 FGI를 통해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 모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열여덟 어른이다’ 카페 회원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23년 11월 기준 255명). 이러한 변화는 캠페인 사업이 의도한 변화는 아니지만, 캠페이너들이 FGI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 파생적인 변화로 간주하여 결과 해석에 참고하였다.

(안연주)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이 많았나? 하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젠 커뮤니티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걸 당사자들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활동들의 힘이 잘 모이고 있고, 이렇게 모인 힘이 변화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설 B-④ 다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한다(파생적 변화)

캠페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변의 다른 당사자나 후배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 자립을 돕는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캠페인 사업이 의도한 변화는 아니지만, 캠페이너들이 FGI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 파생적인 변화로 간주하여 결과 해석에 참고하였다.

(박한수) “자립준비청년인 것을 숨기고 자랐던 친구들이 느낀 게 많았는지, 시설에 사는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찾아가서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더라고요.”

가설 B-⑤ 목소리를 내는 자립준비청년이 많아진다

캠페인을 통해 인식이 변화하여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캠페이너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 고백’을 하고 당사자로서 공개적인 의견을 내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당사자들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캠페인 관련 콘텐츠의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총 53건(누적)으로 분석됐다. 캠페이너가 진행한 당사자 인터뷰 콘텐츠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자립준비청년도 10명이 넘었으며,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손자영) “처음에 캠페인을 진행할 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지인들이 지금은 조금 더 용기내서 저희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박강빈) “TV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게 가공되어 유튜브에 업로드 됐어요.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려있어서 봤는데, 저에 대한 얘기보다 다른 당사자가 자기 고백하는 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자기 고백을 이어서 남기는 콘텐츠가 된 것 같아서 기뻐어요.”

<표 11> 인터뷰 참여, 댓글을 통해 목소리를 낸 당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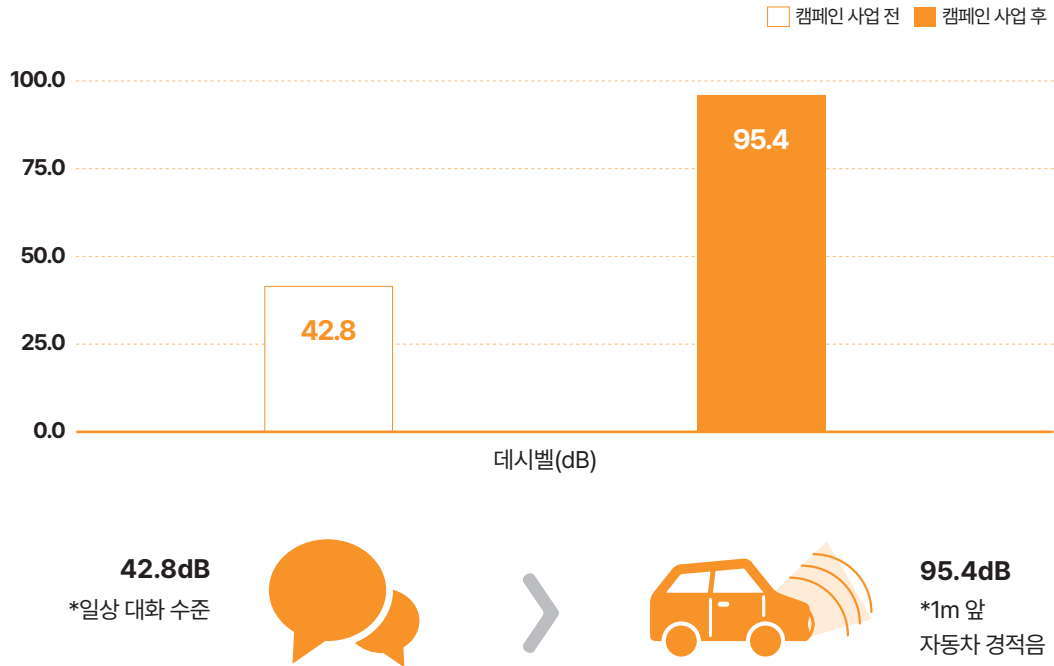
항목	당사자 수(명)
당사자 인터뷰 콘텐츠 참여자	10명
캠페인 관련 콘텐츠 댓글을 통해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임을 밝힌 당사자	53명

가설 B-⑥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확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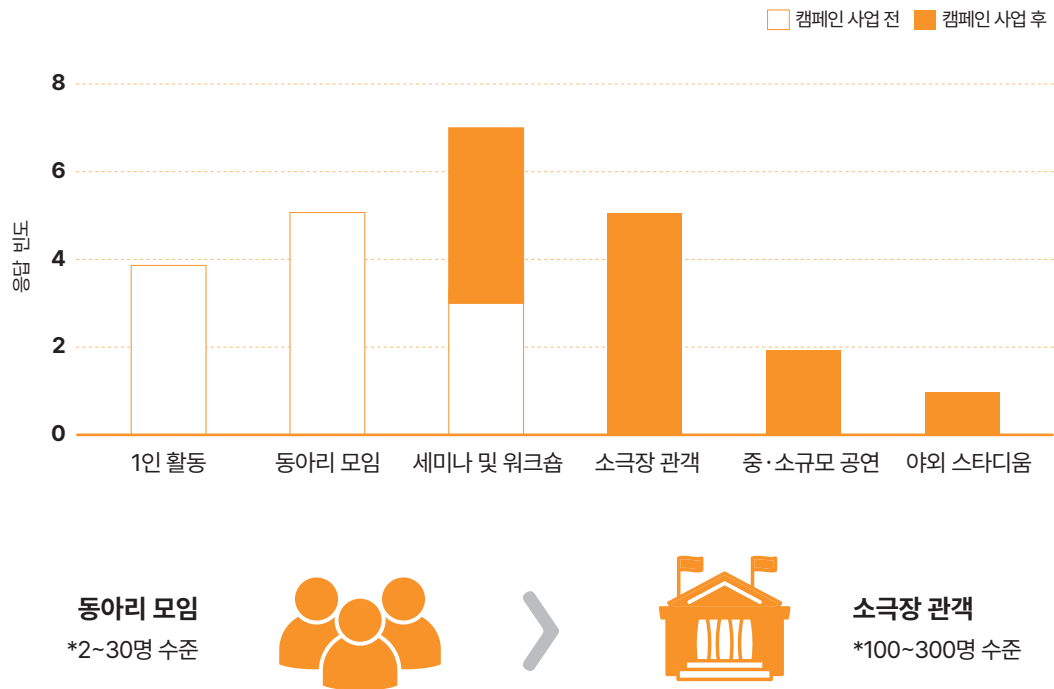
캠페인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사회 속에서 공명하게 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공명의 첫 음’을 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공명을 통해 규모와 크기가 확장되었으며, 캠페이너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캠페이너들은 목소리를 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캠페인 전에는 1인 활동에서 세미나, 워크숍 수준의 규모라 응답하였으나, 캠페인 이후에는 극장, 공연 관객에 이르는 규모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캠페인 사업 전에는 42.75dB(일상 대화 수준) 정도였으나 현재는 95.42dB(1m 앞에서 듣는 자동차 경적음)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12] 캠페이너들이 체감한 당사자 목소리 크기(n=12, 평균값)



[그림 13] 캠페이너들이 체감한 당사자 목소리 규모(n=12, 평균값)



C. 캠페인 사업을 통한 사회의 변화

캠페인을 통해 나타난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재단 내부 데이터(콘텐츠 채널별 성과 데이터, 기부 관련 데이터)와 미디어 빅데이터(뉴스 데이터, SNS 데이터)를 활용했다.

가설 C-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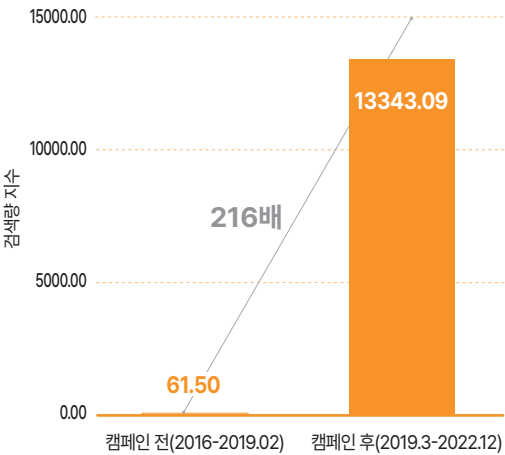
캠페이너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확산되며,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영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키워드의 웹 검색량이 증가하였다. 대부분 공영 방송 프로그램에 당사자들이 출연하거나, 주요 정책 변화, 대통령 발언,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과 같은 촉발기제 사건(Trigger Event)들이 일어났을 때 검색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캠페인 사업은 전체 검색량 증가에 최소 20%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관련 검색량 기준 상위 30일 중 캠페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색은 약 20%에 달하였다.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다룬 공영 방송 프로그램 관련 검색량 기준으로는 61%에 육박해 TV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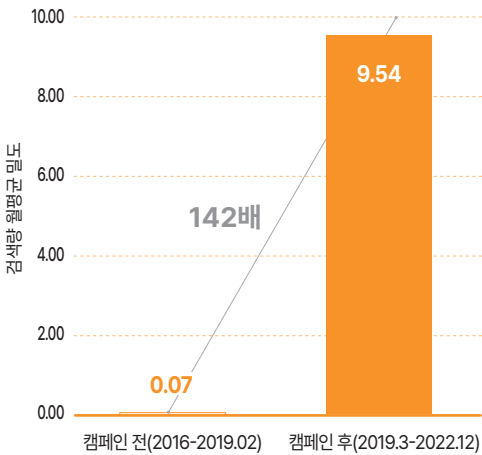
특히 캠페이너들은 대중 사이에서 다뤄지는 당사자에 대한 명칭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관심도 증가를 체감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다.

(조규환) “자립준비청년이란 명칭이 생겨난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뿐 아니라 그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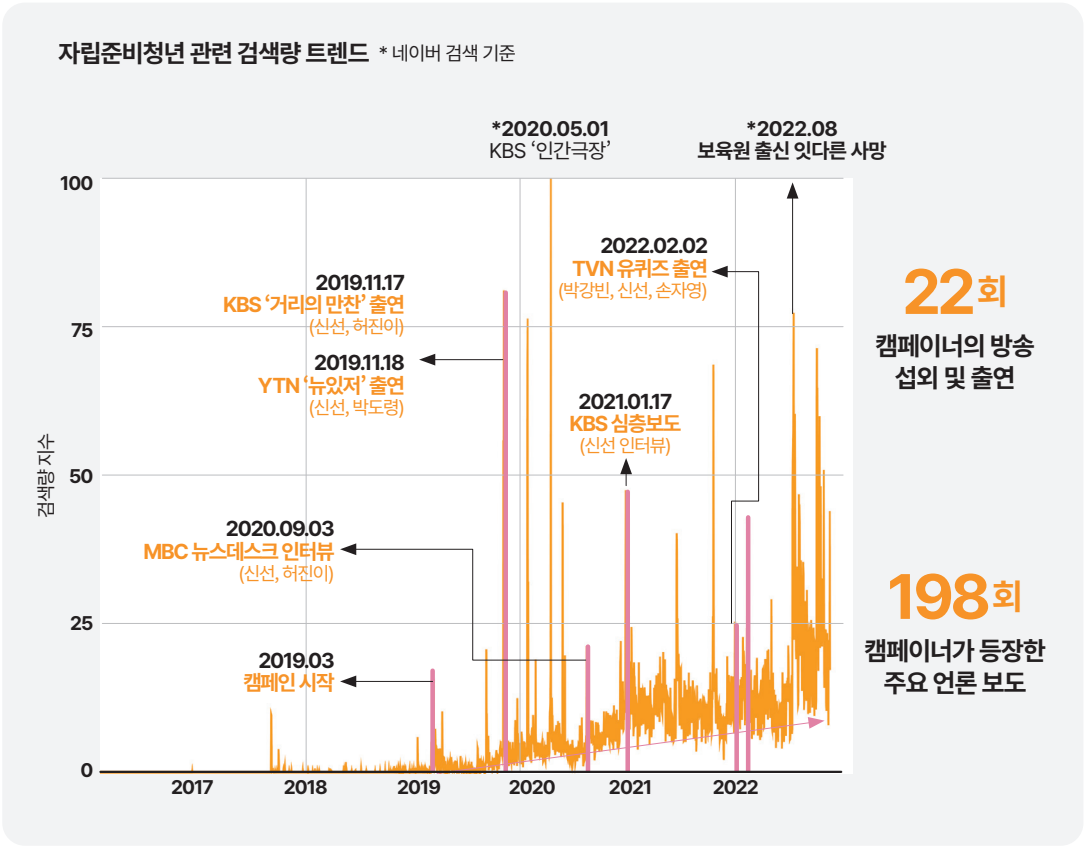
[그림 14] 캠페인 전, 후 검색량 총량 비교



[그림 15] 캠페인 전, 후 월별 검색량 밀도 비교



[그림 16] ‘자립준비청년’ 관련 검색량 트렌드



<표 12> 캠페인 관련 주요 방송 프로그램

연도	캠페인 관련 주요 방송 프로그램(검색량 기준 상위 30개 일자 관련)
2019	(11.17) KBS '거리의 만찬' 출연(신선, 허진아 캠페이너) (11.18)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출연(신선, 박도령 캠페이너)
2020	(09.03)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신선, 허진아 캠페이너)
2021	(01.17) KBS 심층보도 인터뷰(신선 캠페이너)
2022	(02.02)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출연(박강빈,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

가설 B-②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지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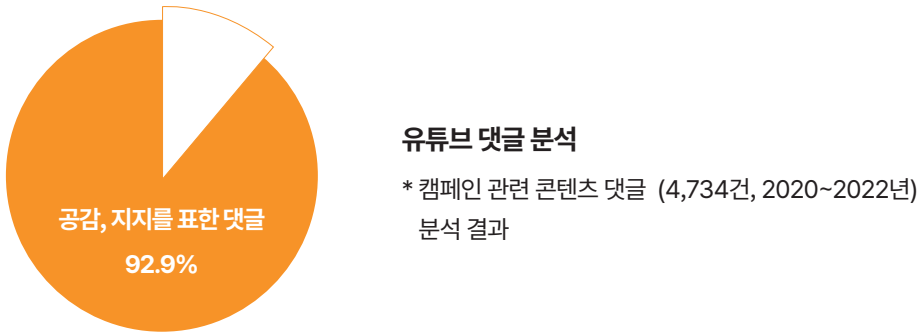
캠페이너들의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대중들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지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에 업로드 된 자립준비청년 관련 콘텐츠 댓글 총 4,734 건을 분석한 결과 공감과 지지를 표한 댓글의 비율이 92.9%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감과 지지는 캠페이너들의 변화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인식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FGI 분석 결과, 캠페이너들은 타인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위로를 느끼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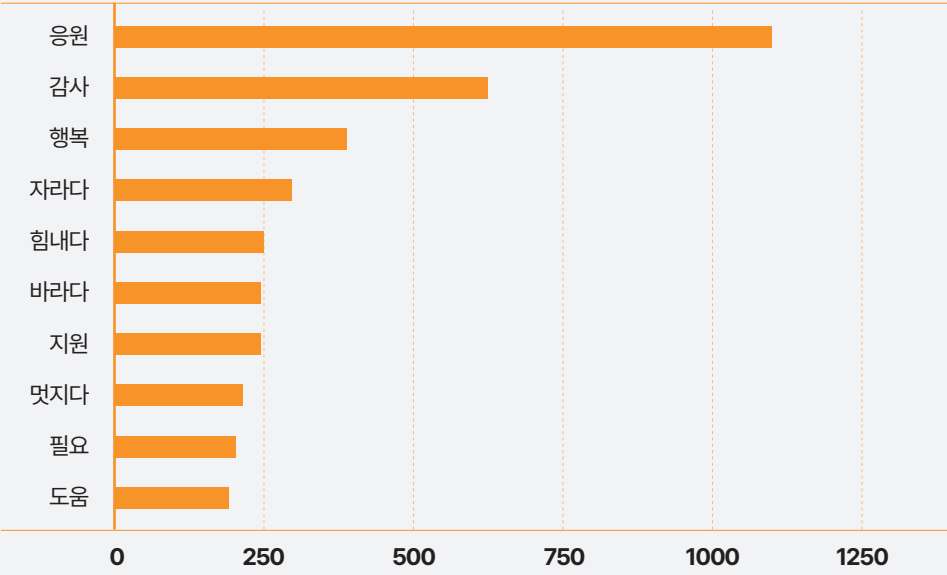
(조규환) “‘내가 너의 아픔을 공감할 순 없지만 넌 너무 대단한 아이’라면서 안아주셨어요. 별로 친하지 않고 말도 많이 안 했던 분이었는데 마음이 뭉클했죠.”

(손자영)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희 영상을 보고 응원해주는 게 신기했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프로젝트나 내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반응들이 보여지니까 훨씬 그게 힘이 됐어요”

[그림 17] 캠페인 콘텐츠 관련 유튜브 댓글 분석 결과



유튜브 댓글 키워드 분석 결과



가설 C-③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주변에 알리고 확산한다

캠페이너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 대중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SNS 게시물 분석 결과, 캠페인 사업 이후 4년(2019년~2022년) 동안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관련 게시글의 양은 캠페인 시작 전 4년(2015년~2018년)과 비교했을 때 약 67배 증가(1,780 건 → 118,770 건)하였다.

SNS상의 자립준비청년 관련 게시물 중 캠페인, 아름다운재단과 관련된 글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게시물 중 캠페인과 아름다운재단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과,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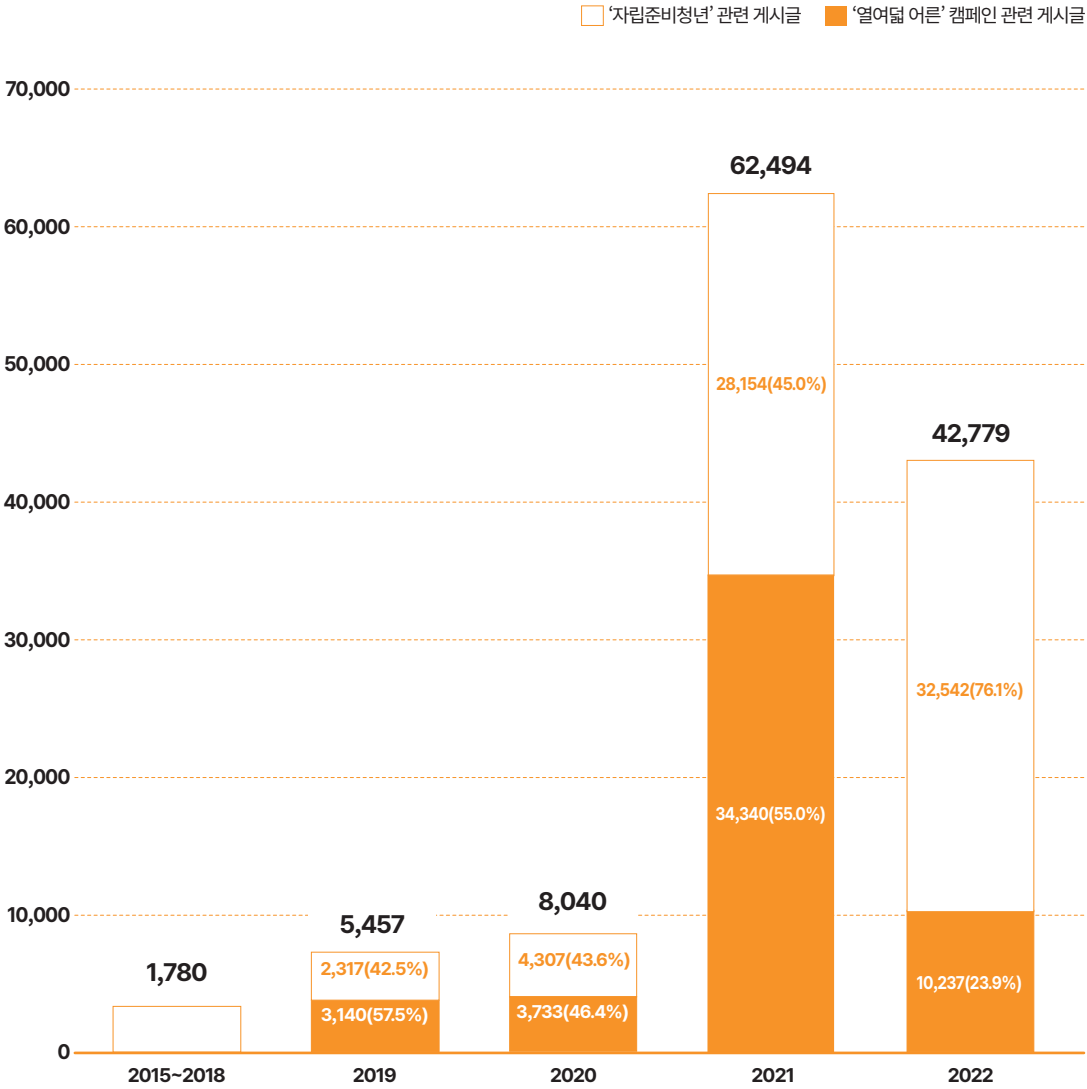
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약 4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초기(2019년~2020년) SNS 게시글은 캠페이너의 활동을 통해 증가세를 이뤘으며, 이후 유명인들이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소식이 주로 언급되면서 트렌드를 주도했다. 연도별 가장 많이 언급된 10개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거리의만찬’(신선, 허진이 캠페이너가 ‘열여덟 어른’을 주제로 방송 출연), 2020년 ‘미디어’, ‘기획기사’(손자영 캠페이너, JTBC가 만든 기획 기사 관련)와 함께 증가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기부금’, ‘아름다운재단’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13> 자립준비청년 관련 주요 SNS 게시물

연도	주요 SNS 게시물(트위터 게시물 수 기준)
2019	(03.14) ‘왜그래풍상씨’ 자립정착꿈 프로젝트 응원 메시지 (11.19) ‘거리의 만찬’ 재방송 감상평
2020	(09.20)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캔디, 야심가, 사이코패스... 고아의 공식. 미디어는 그들을 어떻게 그리는가’ 관련 감상평
2021	(06.25) ‘나의 어린, 고래에게’ 씨니와 함께 해피빈 펀딩 관련 게시물 (11.05)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아름다운재단 기부 관련 게시물
2022	(02.10) 문재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들과 조찬 간담회 관련 게시물 (12.05) 소녀시대 유리, 생일 맞이 기부 관련 게시물

[그림 18] 자립준비청년 관련 SNS 게시물(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연도별 빈도 분석



[그림 19] 자립준비청년 관련 SNS 게시물(트위터 기준) 키워드 분석 결과(TOP 10)

* 캠페인, 아름다운재단 관련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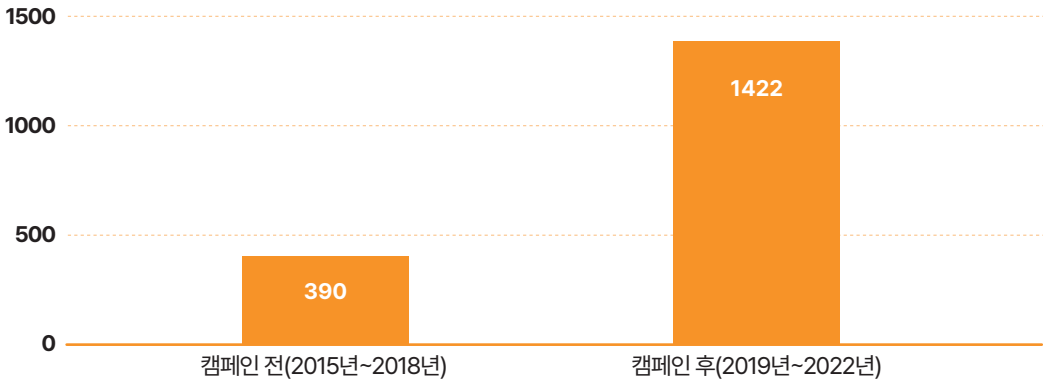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거리의만찬	미디어	기부금	보호종료아동
재방송	기획기사	사회생활	지원
시신	보호종료아동	보이스피싱	김호중
화장	기부	기부	나눔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보호종료아동	나이
주택	보육	눈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	관심	열여덟어른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캠페인	연령	기억
임대주택	준비	아침	생명
방	열여덟어른	아름다운재단	기부

가설 C-④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가 확산되자,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평균 뉴스 보도량은 캠페인 전(2015년~2018년)에 비해 캠페인 후(2019년~2022년)에 약 3.6배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6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했다.

뉴스 보도량의 증가는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의제가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0] 캠페인 전, 후 연평균 뉴스 보도량 비교



가설 C-⑤ 대중이 자립준비청년 관련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

언론 보도량, SNS 게시글의 증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기부와 같은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총 기부 건수는 112,788회로 2019년부터 2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부금 또한 연평균 15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14> 캠페인 기간(2019~2022) 내 기부 성과

항목	값
캠페인 기부 건수	112,788회
캠페인 기부 건수 연평균 증가율	239%
캠페인 기부금 연평균 증가율	155%

가설 C-⑥ 의제에 대한 당사자의 영향력과 참여도가 높아진다

자립준비청년 의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지면서, 캠페이너들의 영향력과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 특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캠페인의 특성으로 인해 대중 미디어에 대한 캠페이너들의 노출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다른 당사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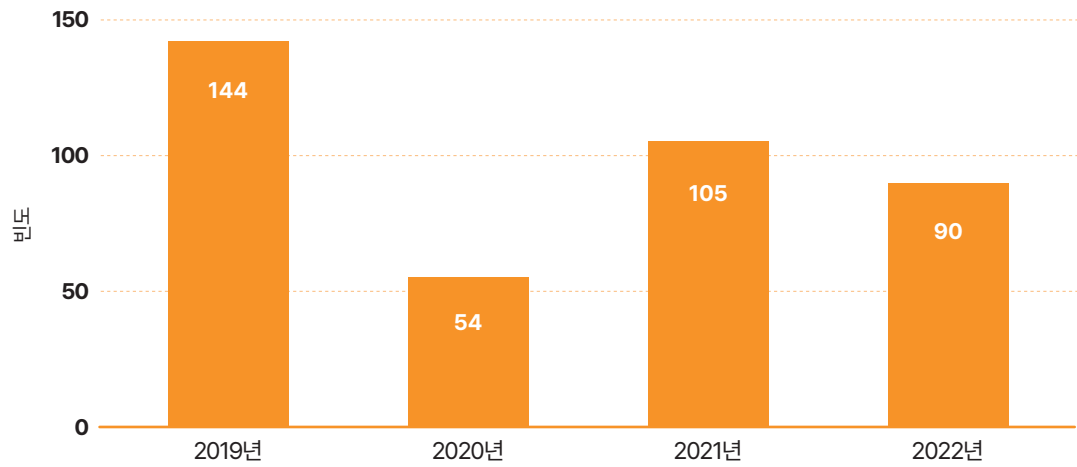
뉴스 보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캠페이너들이 노출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198회, 22회로 나타났으며 그중 정책 토론회 등 정책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9회로 나타났다.

캠페이너들은 캠페인 전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의사결정에서 중요해졌으며, 실제 반영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FGI를 통해 이야기했다.

(신선) “우리의 의견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것이 체감돼요. 정책 제안할 때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조규환) “예전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더 들어보려 하는 것 같아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사회의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림 21] 캠페이너의 뉴스 보도, 방송 출연, 정책 의사결정 참여 연도별 빈도



항목	값	인원(중복 계수)
방송 출연	22회	32명
뉴스 보도	198회	8명
정책 토론회 등 참여	19회	27명

가설 C-⑥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된다

캠페이너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정책 수립의 방향이 되고 있다. FGI 분석 결과,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를 비롯한 많은 당사자들이 국회의원 간담회, 정책 토론회에 총 19회 참여하여 의견을 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대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5개 과제가 캠페이너들이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며, 2022년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캠페이너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구하였다.

캠페인 이후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에 소속되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고 있다.

<표 15> 캠페이너가 참여한 주요 정책 의사결정(2019~2022년 기준)

일시	내용	주요 성과
2020.09.23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캠페이너들이 제안한 5개 내용이 2021년 7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대책의 6대 추진과제에 반영
2021.03.11	국무총리 목요 대화	
2022.08~09	용혜인, 이원욱 의원 간담회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D. 변화 중요도, 기여도 평가

캠페인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변화(임팩트)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캠페인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것을 분별하여 논리모델 수립 과정에 참고하였다. 중요도와 기여도는 설문조사를 통한 캠페이너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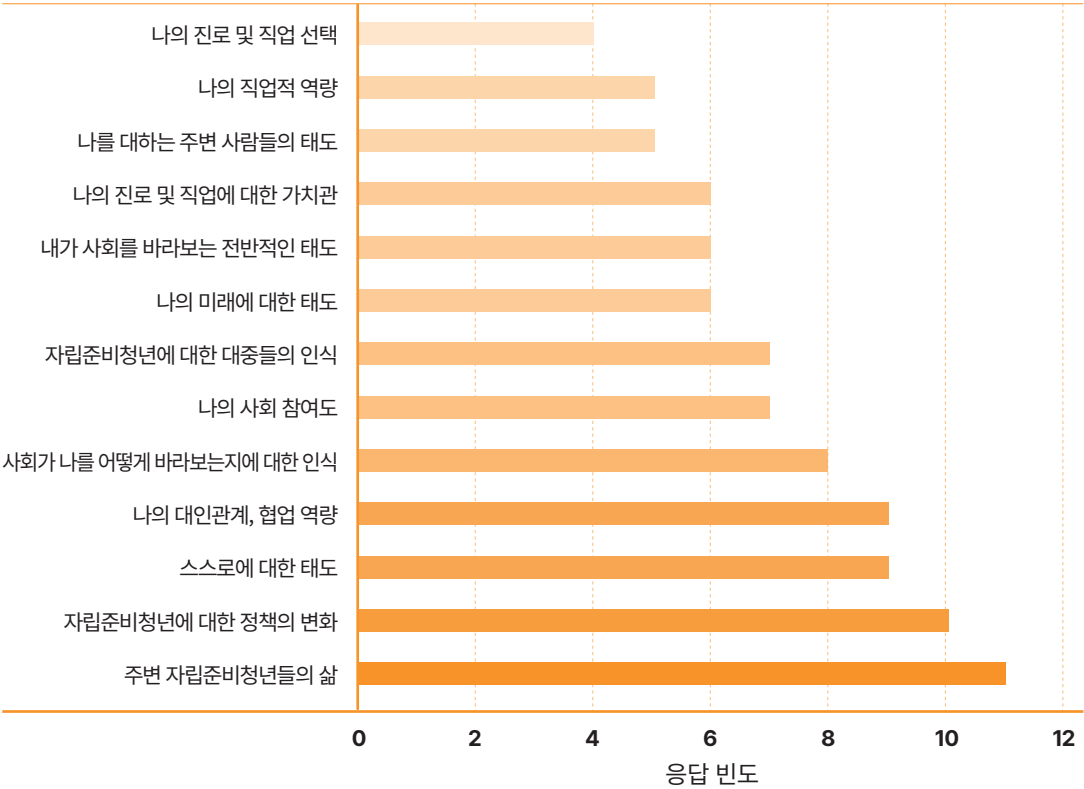
중요도의 경우 위에서 분석한 20개 변화 가설을 10개 항목으로 묶어 실제 변화를 체감했는지 묻고, 12명의 캠페이너들이 선택한 빈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추가적으로 FGI에서 적은 빈도로 언급되었지만, 확인이 필요한 변화(‘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나의 진로 및 직업 선택’, ‘나의 직업적 역량’)의 경우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진행했다.

분석 결과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11명 선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10명 선택)’, ‘스스로에 대한 태도(9명 선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9명 선택)’,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8명 선택)’이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확인을 위해 추가한 3개 항목의 경우 선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추가 분석 대상과 논리모델에서 제외했다.

<표 16> 변화 주제별 설문 항목

주제	설문 항목	관련 변수
캠페이너의 변화	스스로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정서적·심리적 자립
	나의 미래에 대한 태도	자아 정체감,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	사회적 낙인, 위축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	공동체성
	나의 사회 참여도(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시민성, 선순환
	나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진로 정체감
	나의 대인 관계, 협업 역량	대인 관계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나의 진로 및 직업 선택	파생적 변화 확인을 위한 추가 항목
	나의 직업적 역량	
자립준비청년의 변화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	네트워크, 선순환, 자기 고백, 영향력
사회의 변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인식, 태도, 관심도, 공감, 지지, 간접적 참여, 직접적 참여, 의제 중대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	당사자 중심성, 정책 구조 변화

[그림 22] 변화 중요도 평가(n=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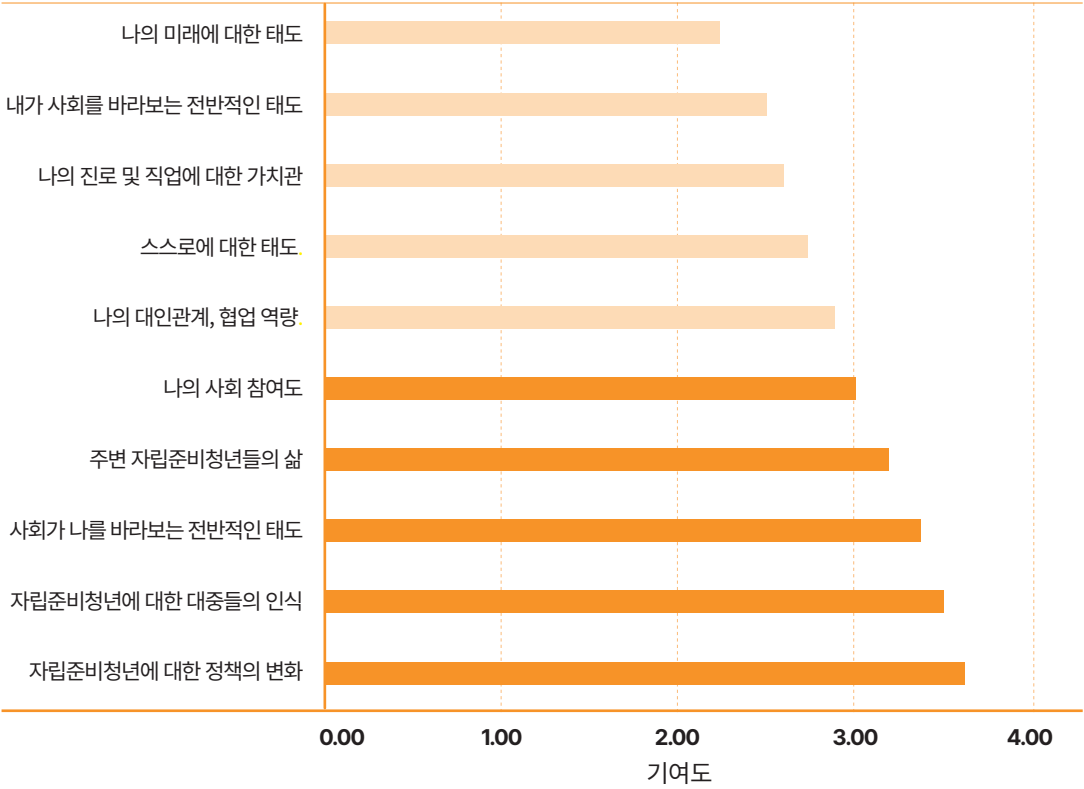


기여도 평가를 위해 반사실적 사고에 기반한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중요도 평가에서 6명(50%) 이상이 선택한 변화를 대상으로 캠페인 사업이 없었을 경우 각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을 명목형 선택지로 질의했다. 캠페이너들의 응답을 기여도 점수(1점~5점)로 코딩하여 계산하고, 3점 이상인 항목은 캠페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3.58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3.50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에 대한 인식(3.33점)’,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3.25점)’, ‘나의 사회 참여도(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3.00점)’의 순으 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 항목들을 핵심 변화로 설정하여 논리모델을 수립하였다.

선택지	기여도(점)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0%)	5점
낮은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 (1%~39%)	4점
일반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 (40%~59%)	3점
높은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 (60%~99%)	2점
캠페인 사업이 없어도 일어났을 변화다 (100%)	1점

[그림 23] 변화 기여도 평가(n=12, 평균값)



핵심 가정(Key Assumption)

변화이론에서 핵심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캠페이너와 실무자들의 FGI 응답 분석을 통해 캠페인 변화이론의 핵심 가정으로 ①심리적 지지 및 안전망, ②당사자 중심성, ③공감도 높은 잠재 이슈를 도출하였다.

캠페이너들은 함께한 실무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캠페인 내에 형성됐으며, 이를 통해 캠페이너들이 자신감을 얻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고민이든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캠페이너 인터뷰 중)

캠페이너들과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것은 ‘당사자 중심성’으로, 캠페이너들이 당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점과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변화도 적었을 것이고 대중의 공감과 지지도 많이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의 관점과 목소리를 캠페인에 담아가는 과정이 뜻깊었어요.” (캠페이너 인터뷰 중)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의제 자체가 갖는 특성도 파급적 변화에 중요한 조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실무자들은 ‘자립준비청년’ 이슈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지와 동시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인지하게 되면 대부분 공감하는 이슈예요.” (실무자 인터뷰 중)

4. 임팩트 하이라이트

(1) 분석 종합 및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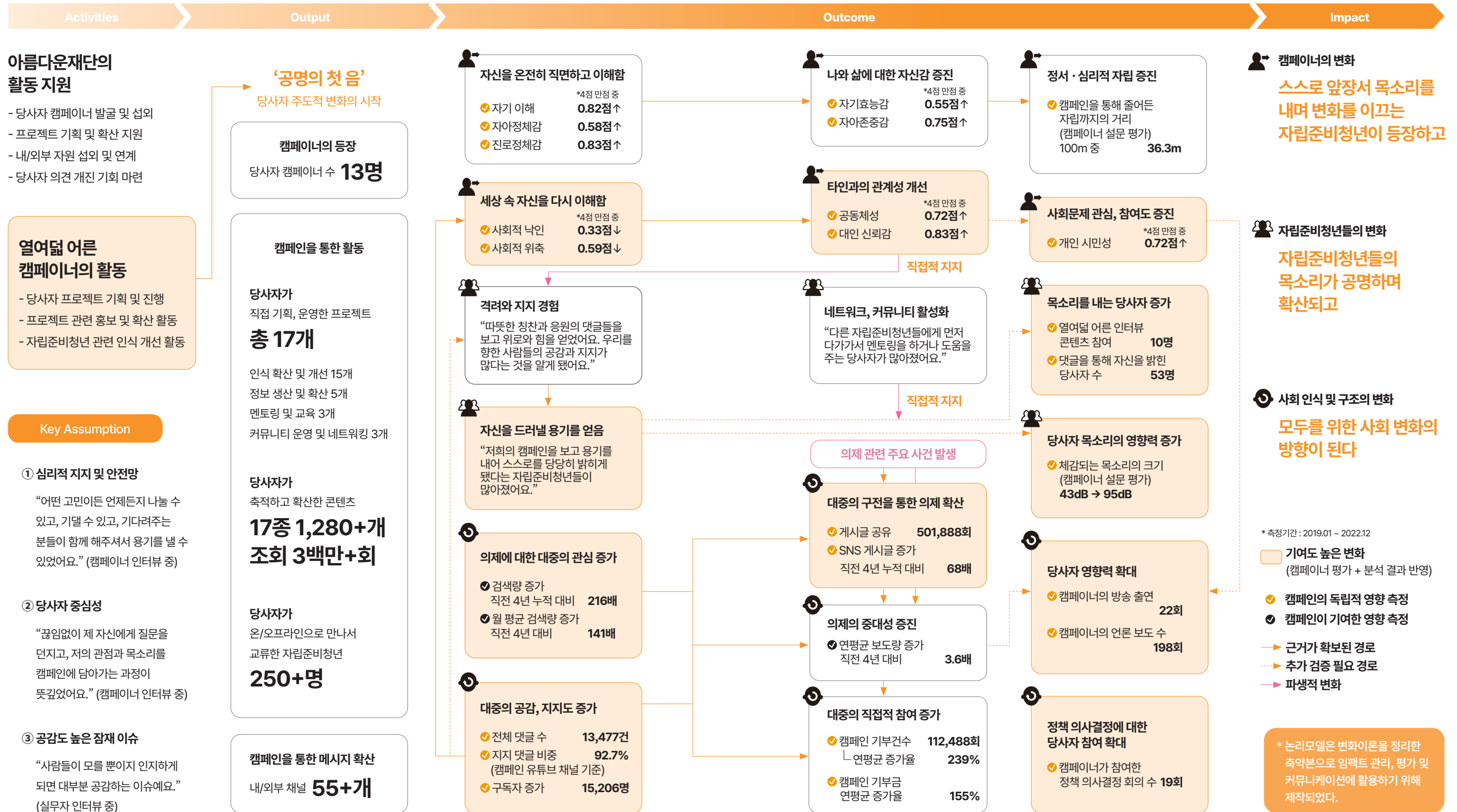
캠페인의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방향의 임팩트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번째는 캠페이너의 변화이다. 자신을 ‘문제 있는 존재’,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던 캠페이너들은, 당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에 대해 온전히 직면하고, 대중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며 사회를 향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 삶에 대한 자신감과 타인과의 관계성이 개선된 캠페이너들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앞장서 목소리를 내며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인 자립에 한발 더 가까워지기도 했다.

두번째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이다. 캠페이너들이 앞장서 낸 목소리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은, 다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또한, 인식이 변화된 자립준비청년들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서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며 돕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울림을 주는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주목하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번째는, 사회의 인식과 구조의 변화이다. 캠페이너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려 퍼지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영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캠페이너의 모습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의제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중대성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의 관점과 입장이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캠페이너들이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에 다수 참여하여 의견을 냈고 이는 정책 변화의 방향이 됐다.

[그림 24] ‘열여덟어른’ 캠페인 논리모델

Goal :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의 청년으로서 스스로, 또 함께 계속 나아가는 사회



(2) 임팩트 내러티브

캠페인의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공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표현한 임팩트 내러티브를 제작했다. 공명은 한 물체에서 생성된 음의 파동이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에 영향을 미쳐 같은 음의 파동을 생성하게 하는 현상이다. 공명한 음은 중첩되어 서로를 상쇄하기도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보강하여 진폭이 더 큰 음으로 합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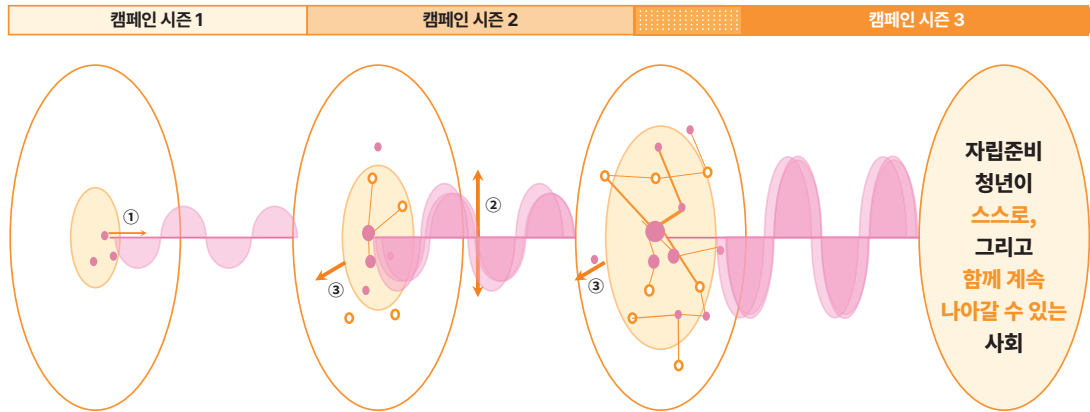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낸 목소리는 ‘공명의 첫 음’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이 낸 첫 목소리에 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당사자로서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명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많은 당사자들이 연쇄적으로 공명하자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의 진폭이 점차 증가하고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큰 울림으로 변한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캠페이너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변화의 주체가 됐다.

[그림 25] ‘열여덟아홉’ 캠페인 임팩트 내러티브

‘열여덟아홉’ 캠페인 임팩트 내러티브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공명하여 사회에 울리게 하다

공명: 고유 진동수가 같은 음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는 현상

← 변화의 방향 ○ 사회 ● 변화된 사회 ● 캠페이너 ○ 자립준비청년 ● 당사자 목소리



① 캠페이너의 변화 - ‘공명의 첫 음’

‘열여덟아홉’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앞장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캠페이너로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재단이 지원하는 당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감추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회에 당사자의 시각과 문제 의식을 담은 ‘첫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② 자립준비청년들의 변화 - ‘목소리들의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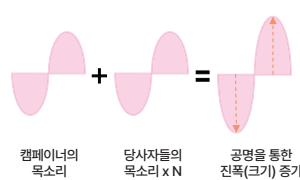
먼저 용기를 낸 캠페이너들의 목소리에 대중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고, 이는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이 용기 내어 자신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공명하여 점점 더 큰 소리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③ 사회의 변화 - ‘인식의 전환, 장벽의 균열’

공명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는 사회에 큰 울림을 주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캠페이너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변화의 핵심 주체가 되었습니다.



5. 연구 한계 및 제언사항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아홉’ 캠페인의 임팩트를 변화이론을 통해 진단하였다. 변화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실무자 및 참여 캠페이너의 FGI를 통해 다양한 변화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실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다는 것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과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한 몇 가지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각각의 경로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 가설과 경로를 수립했지만, 산출물(Output)에서 성과(Outcome), 성과에서 다른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 ‘캠페이너의 변화’의 경우 표본(캠페이너)의 수가 적어 정량적 검증의 의미적 한계가 존재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통제 가능성이 낮아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설정 및 의도한 임팩트가 정의되지 않았기에 이를 진단 및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 서두에 말했듯이, 특정한 목적이나 수단을 캠페이너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특정한 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팩트는 목표 대상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⁵⁾를 설명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다. 나아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측정 단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상에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알린다’는 캠페인의 맥락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였지만 전부 의도적인 변화로 간주할 수 없어 중요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핵심 변화를 도출했다. 또한, 사전에 설정된 지표와 이를 위해 축적한 데이터의 부재로 최적화된 지표 설정과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업에 제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을 통한 변화의 구조적인 설계 및 중장기 측정 필요

사업이 의도하는 변화(임팩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임팩트는 관리와 진단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변화상(임팩트)을 정의하고 이렇게 목표한 변화와 이에 대한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핵심 지표별 주요 데이터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정기적인 임팩트 진단과 측정을 통해 캠페이너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방향성을 유동적으로 재수립하고,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2) 부정적 임팩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타 기관의 사업들에 비해 가장 차별화된 캠페인의 특성은 ‘당사자 중심성’이다. 당사자들이 캠페이너가 되어 본인을 공개적

5) NPC. (n.d.), Theory of change in ten steps <https://www.thinknpc.org/resource-hub/ten-steps/>

으로 드러내고,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언론, 방송 등에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 당사자 중심성은 메시지 의 효과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아지게 했지만, 한편으로 캠페이너들이 부담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실제로 FGI 중 ‘대표성을 지닌 당사자’로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캠페이너들의 응답이 있었으며, 일상 생활에도 영 향을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정책과 관련된 언 급을 해야 하는 캠페이너들의 경우 재단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애드보커시의 확장과 사회 변화 모니터링 필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무후무한 애드보커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사회문 제 해결을 지향하는 조직 및 생태계에 중요한 귀감이 되었다. 당사자 캠페인을 통해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공 유하여, 유사한 목표 및 변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기관의 사업에 적용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중 및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요인과 동력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사업 이후 직접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진단 결과 등을 공유할 때, 캠페인을 통해 창출한 임팩트와 교훈(Lessons learned)이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공유를 통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재단의 역할이 촉구된다.

Appendix

• 설문 개요

설문조사 대상	캠페이너 12명
설문조사 일정	2023.10.8 ~ 2023.10.11
응답률	100% (12명 전원 응답)
설문 항목	챕터 1. 캠페인 사업 전, 후의 상황 및 활동 변화 챕터 2. 캠페인 사업을 통한 변화와 기여도 챕터 3. 캠페인 사업 전, 후 인식 및 태도 변화 개인의 변화 - 삶의 만족도, 본인 및 사회에 대한 태도, 자아 인식 등 사회의 변화 - 다른 당사자의 태도, 지지체계 등 총 96개 문항 질의

•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의 임팩트 분석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입 니다. 사업에 직접 참여한 캠페이너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여러분의 응답을 통해 사업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 려 합니다.

설문 항목은 사전에 진행된 FGI(핵심그룹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챕터 1. 캠페인 사업 전, 후의 상황 및 활동 변화

챕터 2. 캠페인 사업을 통한 변화와 기여도

챕터 3. 캠페인 사업 전, 후 인식 및 태도 변화

 개인의 변화 - 삶의 만족도, 본인 및 사회에 대한 태도, 자아 인식 등
 사회의 변화 - 다른 당사자의 태도, 지지체계 등

본 설문의 응답 결과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임팩트 분석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응답자 개별 분석 이 아닌 전체 응답에 대한 통계치로 표시됩니다. 향후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 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진심 으로 응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 요청 기간 : 2023년 10월 5일 ~ 2023년 10월 10일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챕터 1. 캠페인 사업 전, 후의 상황 및 활동 변화	귀하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주관식 단답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객관식 단일형
	1) 대학진학 준비 중	
	2) 대학교(원) 재학 중(휴학 포함)	
	3) 취업준비 중	
	4) 취업 중	
	5) 창업 준비 중	
	6) 기업/기관 운영 중	
	7) 기타()	
	현재 귀하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객관식 단일형
	1) 대학진학 준비 중	
	2) 대학교(원) 재학 중(휴학 포함)	
	3) 취업준비 중	
	4) 취업 중	
	5) 창업 준비 중	
	6) 기업/기관 운영 중	
	7) 기타()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관식 서술형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참여하고 있던 사회활동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객관식 복수형
	1) 취미활동(각종 동호회, 팬클럽, 소모임 등)	
	2) 친목·친교활동	
	3) 종교활동	
	4) 봉사활동	
	5) 진로 및 자기계발(그룹 스터디) 활동	
	6) 학생회 활동	
	7) 학술·연구활동	
	8) 대외활동(서포터즈, 홍보대사, 기자단 등)	
	9) 시민사회활동(NGO, NPO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10) 온라인 게시판 중심 커뮤니티	
	11) 정당 활동	
	12)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정책참여 활동	
	13) 노동조합 활동	
	1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챕터 2. 캠페인 사업을 통한 변화와 기여도	“캠페인 사업 이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객관식 복수형
	1) 취미활동(각종 동호회, 팬클럽, 소모임 등)	
	2) 친목·친교활동	
	3) 종교활동	
	4) 봉사활동	
	5) 진로 및 자기계발(그룹 스터디) 활동	
	6) 학생회 활동	
	7) 학술·연구활동	
	8) 대외활동(서포터즈, 홍보대사, 기자단 등)	
	9) 시민사회활동(NGO, NPO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10) 온라인 게시판 중심 커뮤니티	
	11) 정당 활동	
	12)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정책참여 활동	
	13) 노동조합 활동	
	1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챕터 2. 캠페인 사업을 통한 변화와 기여도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 사업 이후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객관식 복수형
	1) 스스로에 대한 태도	
	2) 나의 미래에 대한 태도	
	3)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	
	4)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5)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	
	6) 나의 사회 참여도(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7) 나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	
	8) 나의 진로 및 직업 선택	
	9)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10)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	
	11)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	
	12) 나의 대인관계, 협업 역량	
	13) 나의 직업적 역량	
	14) 기타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이 없었다면 아래 변화가 일어났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객관식 단일형
	1) 스스로에 대한 태도	1)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0%) 2) 적은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1%~39%) 3) 보통의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40%~59%) 4) 높은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60%~99%) 5) 재단이 없어도 일어났을 변화다 (100%)
	2) 나의 미래에 대한 태도	
	3)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	
	4)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5)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	
	6) 나의 사회 참여도(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7) 나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	
	8) 나의 진로 및 직업 선택	
	9)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10)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	
	11)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	
	12) 나의 대인관계, 협업 역량	
	13) 나의 직업적 역량	
	14) 기타	
	아름다운재단 사업을 통해 경험한 것중 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순위 선택형
	1) 나를 숨기지 않고 대대적으로 드러내는 경험	
	2)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경험	
	3)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지원 받은 경험	
	4) 타인의 폭넓은 포용과 인내를 받아본 경험	
	5)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 경험	
	4) 나와 다른 캠페이너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대중들의 반응	
	5) 나와 다른 캠페이너들이 TV, 라디오 등 공중매체에 출연하는 경험	
	6) 나와 다른 캠페이너들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7) 나와 다른 캠페이너들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이 변화된 경험	
	8) 기타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이전,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들의 규모는 어느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식 선택형
	1) 1인 활동 2) 동아리 모임(2명~50명) 3) 중규모 공연(50~200명 내외) 3) 대규모 공연(200~1,000명 내외) 4) 대규모 공연(1,000~5,000명 내외) 5) 실내 경기장 (5,000명~20,000명 내외) 6) 야외 스타디움 (20,000명~50,000명 내외)	객관식 선택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이후,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들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1인 활동 2) 동아리 모임(2명~50명) 3) 중규모 공연(50~200명 내외) 3) 대규모 공연(200~1,000명 내외) 4) 대규모 공연(1,000~5,000명 내외) 5) 실내 경기장 (5,000명~20,000명 내외) 6) 야외 스타디움 (20,000명~50,000명 내외)	주관식 서술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이전,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는 어느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130dB) *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소리 65dB, 자동차 경적음을 1m 앞에서 들을 때 100dB, 관중석에서 듣는 응원 소리 130dB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이후,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는 어느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130dB) *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소리 65dB, 자동차 경적음을 1m 앞에서 들을 때 100dB, 관중석에서 듣는 함성 소리 130dB	주관식 서술형
	귀하가 생각하는 자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자립을 100m 경주에 비교할 때, 내가 온전히 자립하기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__m	주관식 서술형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줄어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_m	주관식 서술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어느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척도 (1점, ‘매우 낮은 수준’ ~ 10점, ‘매우 높은 수준’)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한 이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었습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자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주관식 서술형
	자립을 100m 경주에 비교할 때, 내가 온전히 자립하기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_m	주관식 서술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줄어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_m	주관식 서술형
챕터 3. 캠페인 사업 전, 후 인식 및 태도 변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어느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척도 (1점, ‘매우 낮은 수준’ ~ 10점, ‘매우 높은 수준’)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한 이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었습니까?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꼈다 / 느낀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꼈다 / 느낀다.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 느낀다.	
	사회는 나를 편견을 가지고 봤다 / 본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을 많이 났다 /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 했다 / 한다.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 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 안다.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았다 / 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 알고 있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었다 / 있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했다 / 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쉬웠다 / 쉽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해놨었다 / 정했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했는데 /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했다 / 분명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 있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 있다.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 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었다 /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었다 / 있다.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다 / 있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다 / 느낀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 느낀다.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생각한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했다 / 참여한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안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했었다 / 한다.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들었었다 / 듣는다.	사업 전 / 후 비교 4점 척도
	나는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있다.	
	어려운 이웃/국가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었다 / 있다.	

챕터	문항 내용	응답 방법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4점 척도 (1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4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캠페인 사업에 참여한 이후,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업 참여 이후, 귀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관식 단답형
	캠페인 사업 이후, 주변에서 자신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고백한 당사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인가요?	주관식 단답형

“느리더라도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죠”

‘열여덟 어른’ 캠페인 손자영,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

● 책임감, 불편함, 안타까움 그리고 용기

Q. 열여덟 어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신선 캠페이너(이하 신선) 재단은 불쌍한 모습이 아닌 청년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면서 제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냈죠.

손자영 캠페이너(이하 손자영)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허진이 캠페이너(이하 허진이) 저는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은 나가지도 않고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데 회의감을 느끼던 중이었어요. ‘재밌겠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좋은 기회 덕분에 질 좋은 자립생활을 해왔는데, 갖고 있던 미안함과 책임감도 이번에 잘 풀리겠다 싶었어요.

Q.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같이 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꼽는다면요?

손자영 제가 캠페인 오픈 직전에 걱정되어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재단 팀장님은 혼내기보다 오히려 제가 괜찮은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덕분에 캠페이너 활동에 좀 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허진이 프로젝트 할 때 여러 보육원을 다녔는데 재단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강연하는 당사자 친구들 기분까지 살피주셨어요. 그런 노고가 감동이었죠. 그리고 저의 개성을 알아봐주시고, 프로젝트의 모든 순간에 제 자신을 담을 수 있게 재단에서 지원해주셨어요.

신선 저는 정책이 바뀌고 좋아지게 된 시작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라 생각해서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밖으로 나오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임을 이야기해도 부정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 변화야말로 우리 캠페인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Q. 활동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허진이 제 친구는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지금까지 기죽어서 자립준비청년임을 고백하지 못했는지 억울하다’ 하더군요.

손자영 보호아동 대상 교육 때 <열여덟 어른TV>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출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캠페인의 긍정적 영향을 느꼈죠.

Q. 당사자이자 캠페이너로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자영 가장 큰 차별점은 우리를 불쌍하게 그리지 않은 점이지요. 우리 또한 보통의 청춘이고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단체들의 광고에서는 불쌍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별점은 진심으로 고민하는 단체라는 것.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곳이 또 있을까 생각해요.

신선 저도 동의해요. 강연 가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이런 동정적인 시선을 다들 불편해 해요. 웃으면서도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허진이 저는 ‘허진이’를 자립준비청년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허진이’라는 사람으로, 당사자 정체성뿐 아니라 나의 재능이나 센스를 펼칠 수 있게 수용해 주는 점이 재단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 불쌍한 청춘이 아닌 보통의 청춘은 안 될까요?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들은 많았어도, 이들이 시설을 떠난 후 겪는 삶의 분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당사자 캠페이너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손자영,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를 만났습니다.

● 문제 해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선구자로의 아름다운재단을 기대

손자영 아, 또 있다. 일을 섬세하게 하는 것. 당사자 관점과 의견을 듣고, 배려하고, 우선하는 일의 방식은 재단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Q. 아름다운재단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신선 며칠 전 희망가게 20주년 행사를 봤는데, 한부모여성가장들이 자립할 수 있게 꾸준히 지원해 왔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서 나중에 함께 이룬 것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돼주면 좋겠어요.

손자영 앞으로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거요. 퇴소한 친구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위탁이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같은 거요. 아름다운재단이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바람이라기보다 기대되는 부분이죠.

Q. 마지막으로 세 분의 다음 꿈은 무엇인가요?

신선 개인 신선으로의 가능성도 확인하고 싶고,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손자영 사실 ‘세상이 변한다’는 말에 의심이 많았어요. 캠페이너 활동하면서 ‘느리지만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구나’를 느꼈죠. 그래서 비영리 활동을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모와 원가정의 한계 같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아 바뀌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한 꿈을 꾸고 있어요.

허진이 재단을 통해 일을 하는 방법과, 일을 할 때 나라의 사람이 돋보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앞으로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일의 형태나 내용은 고민하려고요. 또 자립준비청년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제 가정을 잘 가꾸는 것도 꿈이에요.

신선 마지막으로 캠페인 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당사자 인터뷰나 펀딩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는데, 기부자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글·사진. 김아란



더 큰 공명을 위해 나아가다

해마다 수천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필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시대에 발맞춘 실질적 자원과 분명한 변화입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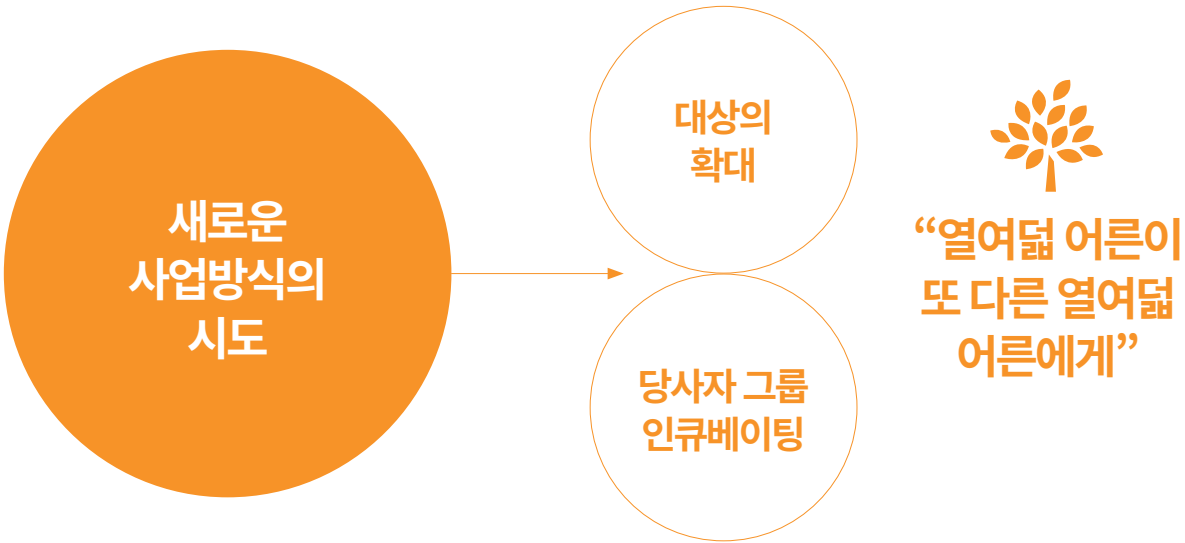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은 참여자간의 교류를 통해 관계를 확장하고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향후 방향

환경분석 및 시사점

환경	전망	시사점
정부, 자립준비청년 연이은 지원 대책 발표	사회적 관심 증대 동시에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 존재	▶ 현금성 지원,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민간 지원과 노력 필요 (관계망, 네트워크의 부족, 편견과 인식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증대	정부, 민간, 기업 각층의 지원 집중 유사 사업, 중복지원 사례 반복	▶ 정부, 민간 지원 확대에 따라 재단 사업 경쟁력, 차별성 확보 필요 → 사각지대 발굴, 공론화 등 재단 강점 기반 활동 지속 및 새로운 시도 → 사업 필요로 추진 시기 앞당겨 조정
여전한 사각지대 존재	자립 후 25세 이상, 중도퇴소,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사각지대의 부각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의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 지원 필요	▶ ‘실질적 자립준비청년’ 대상 확대 및 지원 필요
당사자 목소리 중요성	정책,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 대두 당사자 입장의 중요성 강화	▶ 건강한 대변자 발굴 및 당사자 성장 지원 필요 ▶ 재단 전문성과 진정성 바탕 활동 지속 필요 → 아름다운재단의 가치가 담긴 목소리 강화 및 확산

자립준비청년사업 개편 방향



자립준비청년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첫 시작이자, 가장 오래된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부 정책 변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부로 이어져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다각화의 바탕이 되었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재단은 다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보다 다가서기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앞으로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전략 과제	현황 및 문제점	개편 방향	세부 내용
사각지대 지원	전달체계 및 지원정책 분절로 원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청소년/청년 발생	지원 대상 확대	✓ 청소년복지시설, 미인가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대상 4개 지원사업 규모 확대 - 쉼터, 노숙위기청년, 청소년부모, 보호대상아동 등
지원사업 개편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관심↑ 그러나 유사한 사업들의 한계	아름다운재단 가치의 내재화 및 확산	✓ 아름다운재단 가치가 담긴 방식의 지속 - 지원사업의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 되도록 - 연령, 학력 등의 기준이 아닌, 가능성이 기준이 되도록
당사자네트워크 및 조직화 지원	당사자 관점의 부족 건강한 관점의 대변자 필요	당사자 그룹 조직화	✓ 청년을 돕는 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킹 강화 ✓ 지원사업뿐 아니라 활동가, 단체를 지원해주는 방식 ✓ 배분 사업 방식을 뛰어넘는 연대 방식
	당사자 인식 개선	인식 개선 활동	✓ 당사자 그룹 조직화 구체화 및 실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포트 실행
			✓ 자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담론 확산 ✓ 수혜자, 대상자를 넘어 주체자로서 인식 개선 활동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아름다운재단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여 년간 끊이지 않았던 묵묵함으로, 도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당당한 주체자로 바라봤던 시선으로, 새로운 과제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더 큰 공명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는 협력단체 및 기부자

공익은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실현된다 믿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협력단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신 기부자님이 있기에
아름다운재단은 오늘도 변화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력단체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_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고립위기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사)PIE나다운청년들 _ 청년배움지원사업
직장이나 학교에 속하지 않는 학교 밖·사회 밖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우는 고립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_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전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층과 지역사회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_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 부채 및 금융 소외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_ 청소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과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며, 그룹홈 및 아동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부모지원킴메이커 _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청소년부모가정의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나눔은희망과행복 _ 노숙위기청년주거지원사업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노숙예방과 탈노숙을 위한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_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함께해온
아름다운
마음,
공명하다

선뜻 따뜻한 관심과 손길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하는 강한 울림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음을,
그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겠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의 주인공인故 김군자 할머니

[illegible][illegible]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과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이 자립준비청년의 삶 속에 더 단단히 내려갈 수 있도록,
다름이 차별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을 또 다른 ‘청춘’들에게도
보통의 일상, 보통의 청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공명을 만들어가는 길에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다

열여덟 어른, 공명하다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발행일	2024.02.15
발행인	한찬희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전화	02-766-1004(대)
이메일	give@beautifulfund.org
홈페이지	https://beautifulfund.org/
디자인	헤든디앤피 02-2266-6372

epilog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